조선민화집(25)
《구슬픈 여울물소리》를 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조선민화집(25) 《구슬픈 여울물소리》에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져내려오는 재미나는 옛이야기들과 전설들이 들어있습니다.

《억쇠와 이쁜이》, 《은혜갚은 자라》, 《호랑이와 시골선비》에서는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것과 남의 불행을 제일처럼 아파하고 도와주며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의리심과 의좋게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탐욕과 불의를 멀리하고 증오하였으며 근면한 로동으로 자기의 생활을 개척하였습니다.

《소경이 써준 신비한 글쪽지》, 《귀신을 쫓아낸 며느리》, 《순박한 농부와 욕심많은 량반》 등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있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이야기, 전설들도 있습니다. 《소를 내몰아 외적을 족친 고랑쇠》, 《뻥대로 적을 물리친 슬기로운 녀인》등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책에는 지명유래들에 깃든 전설들도 있어 예로부터 전하는 우리 민족풍습들도 잘 알수 있습니다.

책에 담은 이야기, 전설들은 다양한 생활세태들을 구수하고 재미나게 엮었기때문에 독자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것입니다.

그러나 책에는 옳은 리해와 관점을 가지고 가려보아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귀신, 도술이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것이며 인간세상에는 있을수 없는 허황한 이야기들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당대 사람들의 사상적 제한성으로부터 오는 부족점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것들을 옳게 가려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것입니다.

편집부

차 례

억쇠와 이쁜이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두 농부가 앞뒤집에서 의좋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대밭을 뚜지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네것내것 따로없이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앞집에는 억쇠라는 아들애가 태여나고 뒤집에는 이쁜이라는 귀여운 딸애가 태여났습니다. 그들은 애들이 자라면 짝을 무어주어 대를 이어가며 의좋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억쇠의 아버지가 고된 일에 지쳐서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도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쁜이의 아버지가 두 집 농사일을 도맡아하게 되였습니다. 나어린 억쇠와 이쁜이는 밭을 갈 때면 소를 몰아주고 김을 맬 때는 풀도 뽑아주면서 이쁜이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고을에서 내려왔다는 아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래일부터 매 집에서 한명씩 왕궁을 짓는데 부역을 나가야 하겠네.》

《나는 나가겠지만 저 집에는 형님이 앓는 몸이라 나갈 사람이 없수다.》

이쁜이 아버지가 억쇠네 집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사람이라도 나가야지.》

《아주머니가 나가면 환자는 누가 봐주고 아이는 누가 키운단 말이우.》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요. 임금님의 어명이라 누구도 어길수 없단 말이요. 그리 알고 떠날 차비를 하오.》

아전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쳤습니다. 이쁜이 아버지는 아전의 손을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두몫하면 안되겠수? 사정을 좀 봐주시우.》

《할수 없지. 그럼 그렇게 하우.》

아전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여 이쁜이 아버지는 부역장으로 떠나가고 두 집 녀인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농사를 짓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쁜이 아버지가 위험한 지붕일을 하다가 떨어져 반주검이 되여 돌아왔습니다. 두 집 식구들이 떨쳐나서 별별 약을 다 구해다 써보았지만 이쁜이 아버지는 끝내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말았습니다.

일이 안되려면 화만 겹쳐든다고 약값으로 꾸어쓴 빚돈을 물지 못해서 이쁜이까지 멀고먼 부자집 몸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까지 빼앗긴 이쁜이 어머니도 화병에 걸려 종내 저세상사람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동안 힘꼴이나 쓰는 어엿한 총각으로 자라난 억쇠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나 빚을 물고 이쁜이를 구해내야겠다고 아글타글 애를 썼습니다.

짬짬이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 팔고 겨울한철에는 림산판으로 가서 품팔이도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나무짐을 지고 고을장마당으로 나갔던 억쇠가 동헌앞길을 지나가고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헌앞벽에 나붙은 광고장을 쳐다보며 웅성거리는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한 젊은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수십마리나 되는 말들이 우리를 뛰쳐나갔는데 그것들을 잡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많은 상금을 준다는 방이 나붙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금을 탄다면 이쁜이를 데려내올수 있겠다고 생각한 억쇠는 서슴없이 동헌대문안으로 찾아들어갔습니다.

《소인이 그 말들을 잡아오겠소이다.》

원은 갑자기 자기앞에 나타난 억쇠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퇴돌밑에 놓여있는 육중하게 큰 구리향로를 가리키며 한번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억쇠는 끙하고 한번 용을 쓰더니 그 큰 향로를 어렵지 않게 번쩍 머리우로 들어올렸습니다.

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라졸 두사람을 붙여 서울로 올려보내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억쇠는 으리으리한 어느 관청으로 끌려들어갔습니다. 갑옷을 떨쳐입은 장수가 억쇠를 만나주었습니다.

《네가 뛰쳐난 그 군마들을 잡아들이겠단 말이지?》

《예, 그렇소이다.》

《길들이지 못한 사나운 놈들이여서 헐치 않을게다. 무척 힘겨운 일인데 그래 요구되는게 뭐냐?》

《날랜 준마 한마리하구 말들을 잡아매놓을 명주천이나 몇필 주시면 되겠소이다.》

억쇠는 험한 산판에서 사나운 말들을 내몰아 통나무를 끌어내던 솜씨가 있어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는 혼자서는 힘들거라고 하면서 용감한 기마군사 열명을 몰이군으로 더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숱한 말들을 보름동안에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억쇠는 그 감때사나운 말들을 열흘도 못되는 동안에 다 잡아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숱한 군마를 명주천으로 줄줄이 묶어 앞세우고 채찍을 휘두르며 성문으로 들어서는 그 장한 모습을 보겠다고 온 서

울장안사람들이 다 떨쳐나왔습니다. 그 희한한 소식을 듣고 임금도 성문루각에 올라 경이에 찬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허, 저런 아까운 인재가 산골구석에 파묻혀있었단 말인고. 정말 나무랄데 없는 어영대장감이로다.》

임금은 채수염을 쓸어내리면서 그를 자기곁에 붙잡아둘 생각부터 했습니다. 무술공부를 시켜서 장차 막내공주와 짝을 무어준다면 나라의 큰 인재로 되리라 믿어졌던것입니다.

그래서 성대한 환영연회를 차리고 개선장군처럼 내세워주었으며 특별히 별궁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극진히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승대감을 보내서 자기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자기한테는 이미 약혼한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임금의 의사를 그자리에서 단마디로 거절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임금은 분을 삭이고 좀더 잘 구슬려보라고 정승대감을 타일렀습니다.

억쇠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궁성에 남아서 임금의 부마로 된다면 서울장안에 틀고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한평생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쁜이 아버지와 종살이를 하고있는 이쁜이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래, 자기 하나의 안일만 생각하면서 그들을 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개, 돼지만도 못한 추악한 인생이지.)

그래서 억쇠는 상금을 타서 이쁜이를 구해내자던 생각도 다 뒤로 미루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어물거리다가는 궁성에 사로잡혀 헤여나지 못할것이였습니다.

억쇠는 남 다 자는 깊은 밤에 슬그머니 궁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쫓아올세라 급히 걸음을 다그쳐 고향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쁜이를 빼

낼 다른 수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마침 이러한 때에 이쁜이가 종살이를 하는 그 부자집에서 머슴살이 할 사람을 수소문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쇠는 그 즉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공짜로 일해줄테니 이쁜이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몸이 다부지고 마음이 어질어보이는 억쇠가 눈에 들었는지 그자리에서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억쇠는 이쁜이를 종살이에서 풀려나오게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히 일해주었습니다. 힘이 장수이고 몸이 날렵한 억쇠는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남보다 두곱, 세곱 더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쁜이도 억쇠가 곁에 와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성수가 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알뜰히 해주었습니다.

주인내외도 그들이 일을 잘해주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너무도 흡족해서 이제 기한만 되면 이쁜이를 돌려줄뿐 아니라 죽은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잔치상도 차려주고 살림살이도 돌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억쇠의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억쇠는 어머니의 병이 나으면 인차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반년이 넘었는데도 억쇠는 어인 일인지 돌아올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오래전부터 이쁜이의 인물에 반하여 눈독을 들이고 있던 고을의 아전놈이 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성화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힘꼴이나 쓰는 억쇠가 무서워 몸을 움츠리고있던 이놈은 그가 잘못된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이쁜이를 자기한테 달라고 주인한테 졸라댔습니다. 이집에서는 이쁜이를 위해 3년이나 성실히 일해준 억쇠를 생각해서 단마디로 거절했지만 어찌나 검질기게 달라붙는지 날이 가고 달이 찰수록 견뎌내기가 더 힘들게 되여갔습니다.

《아, 인차 돌아온다던 머슴녀석이 반년이 썩 지나도록 종무

소식이니 이거야 잘못된게지 살아있다면 그러겠소. 내가 종년을 안해로 맞아서 호강시켜주겠다는데 왜 말을 안듣소? 그래, 종년을 처녀로 늙히면서 두고두고 부려먹자는거요?》

아전놈은 이렇게 야료를 부리면서 따지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안하니 마구 성을 내면서 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그러면 재미없수다. 그래, 우리 관청하구 틀리면 어떻게 된다는걸 모르시우. 뭘 믿고 그러시우. 참는것도 한계가 있지. … 나도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겠수다.》

주인내외는 하도 딱해서 이쁜이를 앞에 불러앉히고 구슬려보았지만 자기는 죽어도 한번 먹은 마음 변할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앉아 울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나마 끌던 주인내외는 드디여 아전놈의 강박에 못이겨 할수없이 승낙하고 잔치날까지 잡아놓게 되였습니다. 이쁜이가 물에 빠져죽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속에서 잔치날은 하루하루 다가와 잔치준비가 한창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억쇠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서 자리를 뜰수 없었던것입니다. 하도 정성이 지극하니 1년만에 병도 수그러들기 시작했지만 곁에 밭은 친척이 없으니 할수없이 더 눌러앉아서 구완해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병을 깨끗이 털고일어나 몸을 추세우도록 보약도 구해들이고 혼자서도 걱정없이 살도록 농사도 하고 땔나무도 푼푼히 장만해놓고 떠나자니 또 1년이 걸려 이제야 집을 떠나오게 된것이였습니다.

억쇠는 주인집이 멀리 바라다보이는 주막집앞에 이르러 단 목을 추기려고 랭수 한그릇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방에 모여앉은 로인들이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주인집 일을 걱정하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고을아전놈의 강박에 못이겨 몸종을 시집보낸다던데 그게 옳은 처사인가, 그 머슴살이하는 총각은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억쇠는 그 소리를 듣

고 깜짝 놀라서 물그릇을 손에서 떨구며 그게 사실인가고 다우쳐물었습니다. 로인들은 펄쩍 놀라서 쳐다보며 억쇠를 책망했습니다.

《오, 자네가 그 총각인가?! 왜 이제야 오나?! 래일이 잔치날이라네. 그 처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데 이제야 오면 어쩌나!》

《어서 가서 그 아전인지 뭔지 하는 놈 주리를 틀게. 세상에 남의 약혼녀를 가로채다니! 더러운 놈, 퉤!》

억쇠는 겨우 분을 삭이며 그날밤을 뜬눈으로 지새고 첫새벽에 주인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던 각설이(타령을 부르며 돌아다니는 거지나 빌어먹는 사람) 밥 한술 주시우.》

억쇠는 대문밖에서 문짝을 두드리며 동냥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로친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구, 대사집에 재수없이 신새벽부터 거지가 끓이누나. 얘, 이쁜아, 궁상스레 울고만있지 말고 어서 밥 한술 주어 쫓아버려라.》

조금 있더니 신발소리가 자박자박 나면서 울어서 눈등이 퉁퉁 부은 이쁜이가 개다리소반에 떡 한목기(나무그릇) 얹어들고 대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푹 수그린채 상만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억쇠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불쌍한 이쁜이를 와락 그러안고 위로해주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꾹 참고 입속말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놀라지 말아. 나 억쇠다. 억쇠가 돌아왔어!》

《아, 왜 이제야 오셨어요. …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녀는 와뜰 놀라서 정찬 눈으로 쳐다보더니 목메인 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허둥지둥 달려들어갔습니다. 인차 되돌아나온 이쁜이는 품에 안고온 사발을 억쇠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술내가 확 풍겼습니다. 억쇠는 속이 상했던차라 술한사발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한마디 타일렀습니다.

《범고개에서 기다릴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구 가마에 앉아있으라구.》

그리고는 인차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가 보지 않나 사방을 살피면서 뒤따라온 이쁜이가 큰 보꾸레미를 슬그머니 안겨주고 돌아섰습니다.

주막집에 와서 풀어보니 큰 상에 고여놓을 떡 한함지를 다 싸보낸듯 설기떡이 듬뿍 쌓여있었습니다. 억쇠는 그 떡을 주막집사람들한테 대접하면서 자기가 왔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숨어들어가서 함께 머슴살이를 하던 친구 둘을 데리고 범고개로 갔습니다.

그들이 고개밑의 음침한 수풀속에 숨어서 담배 몇대를 피우니 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을쪽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가 한동안 자지러지게 울려오더니 드디여 저 멀리 혼례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집에서 혼례를 치른 신랑차림의 아전놈이 기분이 좋아서 말등에 앉아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뒤로는 신부가 탄 가마와 례장함을 등에 실은 하늘소가 따라왔습니다.

이때 길가의 풀덤불속에서 토스레옷차림의 젊은이 셋이 몽둥이를 추켜들고 뛰여나왔습니다.

《이놈들! 꼼짝말고 게 서라!》

견마잡이도 가마군들도 깜짝 놀라서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억쇠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아전놈의 덜미를 잡아 말등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 천하에 무도한 놈아, 백주에 남의 약혼녀를 빼앗아가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냐!》

추상같은 질책소리와 함께 내려치는 몽둥이가 지끈지끈 잔등과 옆구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전놈은 억쇠의 발밑에 꿇어엎드려 제발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했습니다.

《아니, 너같은 량반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백성들이 단

하루도 편히 살수 없다!》

억쇠는 아전놈의 몸뚱이를 번쩍 들어올려 고개밑으로 감돌아 흐르는 깊은 강물속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와들와들 떨고있는 견마잡이와 가마군들한테로 돌아섰습니다.

《무서워할것 없소. 어서 집으로 돌아들 가우. 다시는 이런 악독한 놈들을 따라다니며 수모를 받지 않기를 바랄뿐이요.》

그들은 고개를 숙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헤여져갔습니다.

억쇠는 두 친구와 함께 남자옷을 갈아입은 이쁜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이때부터 이고장에서는 손에 창검을 벼려든 장정들이 자주 관청과 부유한 량반집들을 들이치고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이 벌어지군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의적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받들었는데 그 두령이 억쇠였다고 합니다.

욕심쟁이형과 착한 동생

옛날 어느곳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죽으면서 집과 돈 열냥을 두 형제한테 물려주었습니다.

욕심쟁이형은 집을 자기가 차지하였을뿐아니라 돈 열냥중에서 아홉냥을 제 주머니에 쑤셔넣었습니다. 그리고도 동생에게 준 돈 한냥을 마저 가지지 못한것이 아쉬웠습니다.

《얘, 넌 쪼끄만게 돈은 해서 뭘하냐. 차라리 나한테 주렴. 열냥을 마저 채우게. …》

형은 동생한테 주었던 돈을 마저 다 빼앗아내고야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동생한테 밥을 먹이고 옷을 해입히는것이 아까왔습니다.

《얘야, 너도 이젠 다 컸는데 형한테 얹혀살겠니. 집을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야지. …》

형은 끝내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동생이 불쌍해서 저마다 혀를 차면서 동생을 자기집에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욕심쟁이형은 돈 열냥을 밑천으로 남의 돈을 따내여 큰 부자가 되여보려고 투전판에 뛰여들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돈을 다 떼우고 집까지 털리운 형은 할수없이 살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내내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수는 없다고 생각한 동생도 형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나 형은 어린 동생을 데리고다니면서 품팔이를 해서 벌어먹이자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두갈래길에서 동생을 떼여버렸습니다.

《자, 이젠 헤여지자. 나는 이쪽길로 갈테니 너는 저쪽길로 가거라. 5년후에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만나서 함께 살자.》

《싫어, 싫어. 난 형님을 따라갈테야. 나 혼자는 못살아.》

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따라갔습니다.

《에, 시끄럽다! 저리 비켜!》

형은 동생을 콱 밀쳐버렸습니다. 동생은 길가에 우거진 가시덤불우에 어푸러지면서 눈이 가시에 찔려 아우성을 치며 울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형님, 눈이 안보여!》

《에, 차라리 잘됐다!》

인정사정없는 매정한 형은 눈먼 동생을 인적없는 외진 산중에 버려둔채 달아나버렸습니다.

불쌍한 동생은 저혼자 울다가 가시덤불밑에 지쳐 쓰러진채 잠이 들고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몸이 떨려서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새벽이슬에 옷자락이 젖어들어 몹시 추웠습니다.

눈먼 동생은 밤이 된것도 알수 없었습니다.

가랑잎을 긁어모아 몸에 덮으려고 손더듬하던 동생은 구새먹은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그속에 들어가서 가랑잎을 덮으니 한

결 몸이 훈훈해졌습니다. 몸이 노근해지면서 다시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한무리의 도깨비들이 구새먹은나무 앞 공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마에 뿔이 난 도깨비들이 공지 한복판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저마다 금방망이, 은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며 고아댔습니다.

《술 나오라 뚝딱!》

《고기 나오라 뚝딱!》

그러자 뿌연 안개가 풀썩 피여오르면서 그속에서 술과 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이 솟아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닥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놈이 두령놈한테 술을 한잔 부어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두령님, 이번에 숱한 보물을 빼앗아왔으니 그 공로가 대단하오이다. 허지만 유감스럽게도 화살에 맞아 외눈깔이 되였으니 이젠 그자리를 나한테 넘겨주시오이다.》

그러자 두령놈이 꽥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미친 수작말아. 버드내사람들은 머저리가 돼서 좌상어른네 눈먼 막내딸을 못고쳐주지만 나는 거기서 가져온 이 버드나무껍질로 비비면 얼마든지 눈을 뜰수 있단 말야.》

도깨비들이 떠들썩하는 바람에 잠을 깬 동생은 눈을 뜬다는 소리를 듣고 귀를 바싹 강구고 놈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눈이 멀어 버드나무껍질을 보지 못하는게 한스러웠습니다.

이때 다른 도깨비가 또 지껄여댔습니다.

《버드내사람들은 정말 밥통들이라니까. 아, 그 버드나무밑에 있는 너럭바위만 들어내면 샘물이 콸콸 솟아나오겠는데 물고생을 하고있으니 참 한심하지.》

그러자 다른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말야. 사람들은 똑똑한것 같으면서도 이런 내막엔 캄캄이거던…》

그러는새에 먼동이 트고 날이 푸름푸름 밝아왔습니다.
두령놈이 동녘하늘을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만 지껄여! 날이 밝는데 사람들이 올라와서 들으면 어쩌자구 떠들어대는거냐.》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동생이 몸을 옹송그리는 바람에 등결에 붙어있던 마른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딱!》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앗, 사람이다!》
《뛰자!》
도깨비들은 혼비백산하여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다 집어던지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공지가 텅 비고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더운 기운이 풍겨오는 모닥불쪽으로 더듬더듬 기여가서 여기저기 손더듬해보았습니다.
손에 걸리는것은 모두 차거운 쇠붙이뿐이고 그 버드나무껍질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동안 더 손더듬질을 해서야 겨우 갓 벗겨온듯 물기가 느껴지는 버드나무껍질을 찾아낼수 있었습니다.
《야, 버드나무껍질이다!》
동생은 환성을 지르면서 그것으로 정신없이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쿡쿡 쑤시던 눈이 점차 시원해지면서 눈앞이 환히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안겨오고 공지를 둘러싼 우중충한 숲이 바라보였습니다. 나무 우듬지들에는 아침노을이 곱게 비껴들고있었습니다. 모닥불주변에는 도깨비들이 먹던 불고기와 술방구리들이 널려있었습니다. 아까 손에 더듬어지던 쇠붙이들은 모두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 금방망이, 은방망이들이였습니다. 놈들이 어디선가 빼앗아왔다는 금은보석들도 한더미 무져있었습니다.
동생은 고소한 불고기냄새에 이끌려 먼저 주린배부터 채웠습

니다. 불고기를 배불리 먹었더니 팔다리에 기운이 솟는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금방망이, 은방망이와 금은보석을 주어모아서 어느 바위밑에 무져놓고 가랑잎을 덮었습니다.

그다음 숲속으로 구불구불 굽이쳐내려간 오솔길을 따라 씨엉씨엉 걸어내려갔습니다. 어서 도깨비들이 말하던 버드내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쁨을 안겨주고싶었던것입니다.

숲속을 벗어나니 산밑으로 저 멀리 아침연기 몰몰 피여오르는 초가집들이 바라보였습니다. 어느 한 집을 찾아내려가서 버드내가 어디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 십리쯤 내려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줄기 맑은 시내물이 졸졸 흘러내리고있었는데 버드내마을이 가까와질수록 물이 점점 줄어들고있었습니다.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서있는 버드내의 동구밖에 이르니 어디로 물이 다 잦아들었는지 시내물은 간곳 없고 짱짱 메마른 모래바닥만 드러났습니다.

버드나무의 잎들은 초들초들 마르고 마을주변의 조밭들은 가물을 타서 곡식들이 누렇게 말라들고있었습니다.

버드내마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오구작작 모여서 떡을 치고 돼지를 잡으며 기우제 지낼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동생은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네들, 이런 놀음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시오이다.》

마을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린 한시가 새롭다. 어서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말라죽어가는 곡식을 살려낼게 아니냐. 그런데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수염발이 허연 로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셨소이까? 저는 가물을 이겨내는 비방을 가지고 찾아온 소년이옵니다.》

동생이 허리를 굽히며 자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뭐? 네가?》

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듯 아래우를 훑어볼뿐 더 말을 못했습

니다. 그러자 기골이 장대한 한 젊은이가 앞에 나섰습니다.

《얘, 어서 네 갈 길이나 가거라. 어른들 하는 일에 함부로 참견하면 못쓴다.》

동생은 기분이 상했지만 물러설수 없었습니다. 어서 물을 찾아내서 말라죽는 곡식들을 살려내고 마을사람들을 무서운 불행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송하오나 한마디 더 하겠소이다. 저도 농사군의 자식이옵고 낟알을 먹고 사는 사람이오이다. 제가 알고있는 비방은 틀림없사오니 한번만 들어주시오이다. 그 비방이 은을 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자리에서 죽어도 좋고 한생 머슴을 살라고 해도 쾌히 응하겠소이다.》

수염발 허연 할아버지가 그 진정에 감복했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마을의 좌상인 나는 너를 믿겠다. 네가 성공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이 마을의 은인으로 모시겠다. 우리 마을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크고 장한 일인데 왜 우러러받들지 않겠느냐.》

몇몇 사람들은 손을 홰홰 내젓고 고개를 기웃거렸으나 좌상할아버지가 결심하고 나서니 싫든좋든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좌상할아버지를 모시고 아름드리 버드나무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줄레줄레 따라나섰습니다.

나무밑에는 정말 도깨비들이 말하던 너럭바위가 누워있었습니다.

동생은 주변의 땅생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땅속으로 흐르던 물줄기가 여기로 솟구쳐오르다가 이 바위에 막혀 멎어선것 같소이다. 그러니 이 너럭바위를 굴려내면 틀림없이 샘줄기가 터져나올것이옵니다.》

그러자 좌상할아버지가 젊은이들한테 일렀습니다.

《얘들아, 어서 이 바위를 굴려내거라.》

좌상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힘꼴이나 쓰는 젊은이들이 와—하고 달라붙어 지레대로 떠밀고 바줄을 걸어 끌어내느라 법석 끓

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을 쓰는데 따라 움씰움씰 드놀던 너럭바위가 드디여 번쩍 들리면서 떼굴떼굴 굴러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샘줄기가 탁 터지면서 맑고 찬 샘물이 콸콸 솟구쳐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지르면서 물속에 첨벙첨벙 뛰여들어 두손으로 물을 떠마시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는 동생을 번쩍 안아올려 목마를 태워주었습니다.

《네가 우리 마을사람들을 살려주었구나. 아, 이런 은인도 몰라본 우둔한 나를 용서해라.》

그날저녁 좌상할아버지네 집에서는 기우제를 지내자고 마련했던 음식으로 큰 잔치를 차리고 동생의 은공을 칭송했습니다. 온 마을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동생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온 마을이 명절날처럼 흥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구석에서는 좌상할아버지의 로친네가 눈을 번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막내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경사가 났다고 모두 저렇게 기뻐 날치는데 우린 무슨 죄를 졌기에 함께 즐기지 못하느냐.》

처녀애는 어느 하나 흠할데가 없이 어여쁘게 생겼는데 눈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고운 얼굴이 수심에 잠겨 퍽 서글퍼보였습니다.

이때 마을사람들이 은인이라고 받드는 그 총각이 그들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이다. 래일이면 따님이 앞을 보게 될것이옵니다.》

처녀는 그 한마디 말이 더없이 고마왔지만 앞 못보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로친네가 딸애의 마음까지 합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꿈엔들 바라겠소만 그 말씀만 해도 고맙기 그

지 없 구 려. 》

《아니오이다. 저를 믿고 하루밤만 기다려주시오이다. 》

그 총각은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슬며시 그 집 뜨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서있는 동구밖으로 달려가서 정성스레 나무껍질을 벗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그 속껍질을 갈라내서 만문하고 부드럽게 잘 주물러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좌상할아버지앞에서 그 막내딸을 불러앉히고 자신이 직접 버드나무껍질로 눈을 살근살근 비벼주었습니다.

그렇게 세번을 비비니 처녀의 눈에 반짝 정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네번 비벼주니 앞이 환해진다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먼저 처녀의 눈에 비쳐든것은 자기의 눈을 치료해준 그 름름한 총각이였고 그다음에는 나이많은 아버지의 정다운 모습이 안겨왔습니다.

처녀는 너무도 기쁘고 감동에 젖어 곱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을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여나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좌상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은 영원히 자기네들과 함께 살면서 마을일을 돌봐달라고 청하면서 많은 례물을 주었지만 동생은 다 사양하고 막내딸을 안해로 맞아달라는 좌상할아버지의 권고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은 막내딸과 새 가정을 꾸리고 이 마을사람들과 몇해동안 서로 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좌상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름난 목수 한명과 힘센 장정 10명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갈래길에서 5년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형과 비극적으로 헤여진지도 벌써 다섯해나 되여왔던것입니다.

그 갈래길에 이른 동생은 바위밑에 숨겨두었던 금은방망이와 금은보석을 꺼내서 그것을 밑천으로 양지바른 산기슭에 집을 두채 지어놓고 그 한 집에서 살면서 객주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물은 버드내사람들이 고루 나누어쓰라고 데리고왔던 목

수와 장정들에게 실려보냈습니다.

그가 눅은 값으로 길손들을 받아들여 후하게 대접하기때문에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이 객주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날 다 해진 람루한 옷을 몸에 걸친 거지 하나가 밥 한술 동냥하자고 대문앞에 와서 구걸했습니다.

동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첫 순간에 그가 형님이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는 형님을 찾기 위하여 이 두갈래길에 객주집을 차려놓고 널리 소문을 내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치르었으나 손꼽아 기다리던 형님은 5년이 퍽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형님이니 왜 인차 알아차리지 못하겠습니까.

동생은 버선발로 마주 달려나와 형님을 반겨맞아들였습니다.

급히 물을 덥혀 어지러운 몸을 씻게 한 다음 새로 지어놓았던 명주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옷을 입고 나앉으니 잘 차린 밥상에 반주까지 받쳐 대접했습니다.

형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형님이라고 존대하는 까닭을 알수없어 어리둥절해서 어쩔줄을 몰라했지만 진정으로 권하니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리고있던 참이라 큰 놋바리에 무둑히 담은 밥 한그릇을 게눈 감추듯 다 퍼먹고 나앉았는데 점잖은 주인내외가 다시 방에 들어와 그앞에 꿇어엎드리며 아뢰이는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문안드리오이다.》

형은 엉거주춤 일어서서 두손을 홰홰 내저었습니다.

《아아, 이러지 마시오이다. 나한테는 동생이 없소이다. 눈이 먼 내 동생은 이 못된 형이 내버리고 달아나서 틀림없이 죽었소이다. 지나가던 걸인에게 이런 훌륭한 환대를 해주시는것만 해도 너무 과남한데 주인장께서 자꾸 이러시면 어찌하오이까.》

《형님,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오이다. 제가 바로 몇해전에 이 갈래길에서 헤여졌던 형님의 친동생이오이다.》

《아니오이다. 제 동생은 살아있다고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오이다.》

형은 여전히 동생의 말을 믿을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가시덤불에 어푸러져서 눈이 멀었던 그 동생이라는데두요.》

동생은 눈에 난 상처자리까지 보이면서 눈을 뜨게 된 사연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야 형은 동생의 발치에 어푸러지듯 꿇어엎드리며 쓰라린 후회의 눈물을 좔좔 흘렸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놈을 그래도 형이라고… 으흐흑…》

형은 너무도 큰 감동에 휩싸여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비여두었던 새 집에서 살도록 형에게 새살림을 꾸려주었으며 형은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 못된 버릇을 뚝 떼여버렸습니다.

동생은 형을 찾은 다음 객주업을 그만두고 형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의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갚은 자라

옛날 어느곳에 소금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총각이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가의 모래불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둔덕밑에서 무슨 신음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총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분명 누군지 가냘픈 목소리로 구원을 청하고있었습니다.

총각은 그리로 발볌발볌 다가가보았습니다.

모래둔덕밑에 큰 자라가 벌떡 뒤집혀 네발을 버둥거리며 아우성치고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일으켜주시오이다.》

자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하였습니다.

총각은 얼른 소금짐을 벗어던지고 달려내려가서 자라를 들어올려 뒤집힌 몸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자라는 너무 고마와서 몇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오이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소금장사총각은 손을 홰홰 내저었습니다.
《그만해라. 그게 무슨 큰 은혜라구. …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였니?》
《최주사댁 심술쟁이아들녀석이 미역감으러 나왔다가 모래불에서 해빛을 쪼이고있는 나한테 달려들어 그렇게 했소이다. 그놈은 내가 일어나보려고 버둥거리는것을 보고 손벽을 치며 좋다고 히히덕거리다가 그냥 달아나버렸소이다.》
자라는 너무 분해서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자라는 방패와 같이 무겁고 든든한 껍질을 등에 뒤집어쓰고있기때문에 어떤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나딩굴어 몸이 뒤집히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혼자서는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뒤집히는것을 제일 무서워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최주사네 아들놈은 무슨 심술로 그런 못된짓을 하고 그냥 달아났단 말입니까.
소금장사총각은 격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못된 녀석같으니, 내 그녀석 만나면 혼찌검을 내줄테니 분을 삭여라.》
《형님, 정말 고맙소이다. 그런데 형님은 왜 그렇게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다니며 고생하나이까?》
자라가 은인을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소금짐을 지고 떠나려던 총각은 말하는 자라를 만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것이 재미났던지 소금짐을 다시 내려놓고 자라앞에 마주앉았습니다.
《허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소금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니. 산골사람들은 소금을 흰금이라구 한단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못살거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도 소금을 져다주는거야.》
자라는 몹시 감동되여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어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형님, 형님은 참 좋은분이예요. 지금 가물이 들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있는데 나와 함께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소이까?》

《비가 오고 안오는건 하늘의 조화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돕겠니? 비도 소금처럼 져다줄수 있다면 나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

총각도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도 소금짐을 지고 먼길을 걸어오며 비가 오지 않아 개울바닥이 드러나고 우물이 말라 사람들이 애타하는것을 수없이 보았던것입니다.

자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오이다. 저는 물속으로 드나들며 사는 작은 짐승이여서 땅속으로 흐르는 물곬을 좀 아오이다. 그리고 비가 언제 내리겠는지 천기도 좀 가늠해볼줄 아오이다. 그러니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그저 제가 하라는대로만 하시오이다.》

《그럼 그래보자꾸나.》

총각은 자라가 몸은 작지만 어쩐지 볼수록 미덥고 사랑스러워 그가 하자는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소금짐을 버들방천에 숨겨놓고 자라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게 되였습니다. 자라는 총각이 둘러멘 다래끼안에서 밖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쩍쩍 갈라터지고 메마른 논판에서 꼬장모를 내고있었습니다. 말뚝으로 논바닥에 구멍을 뚫고 물을 한바가지씩 쏟아부으며 거기에 벼모를 꽂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소금장사총각은 다래끼안에서 자라가 속삭여주는대로 마을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네들, 한숨만 쉬며 괜한 고생 하지 말구 이리 나와서 담배나 피우소이다.》

그러자 모꽂던 사람들이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훼방질이냐? 어서 네 갈길이나 가거라!》

《가물기만 바라는 염전족속이니 무슨 걱정이 있겠니. 흰소리치

지 말구 썩 사라져!》
소금장사총각은 어이없다는듯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나도 밥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허튼소리를 하겠소. 천기를 보니 이제 한소나기 내리겠기에 하는 소리오이다.》
《흥, 네까짓게 천기를 볼줄 알기나 하느냐?》
《허허, 비가 오면 소금이 녹는데 천기를 볼줄 모르고 어떻게 이 놀음을 하겠소이까.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내기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소이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자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내기를 해서 정말 비가 내리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고운 처녀를 임자한테 짝을 무어주겠네. 만약 비가 안내리면 총각은 어찌려나?》
《좋소이다. 내가 지면 내 소금짐을 내놓고 한뉘 머슴살이를 하래도 탓하지 않겠소이다.》
이렇게 내기를 건 마을사람들은 소금장사총각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점심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상을 물리고 담배를 한대씩 말아 피우는데 정말 하늘이 갑자기 새까맣게 흐리면서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더니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내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이 총각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며 그렇게 기다려도 내리지 않던 비가 그의 말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쏟아져내리니 정말 귀인을 만났다고 총각을 성의껏 환대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총각은 좌상로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다행스럽게 소낙비가 내려서 지금 당장은 모를 내게 되였소이다. 허나 한뉘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을수야 없지 않소이까.》
로인도 깊은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후유, 그렇지만 하늘의 조화인걸 어쩌겠나.》
총각은 어제밤 자라가 일러준대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오이다. 하늘을 쳐다볼게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

땅속에 고여있는 샘줄기를 찾아 이끌어내야 하오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줄 알고 끌어내겠나.》
《어제밤에 지세를 돌아보니 저 골안막바지에 잡초무성한 진펄이 있고 그아래에 집채같은 츠렁바위가 솟았는데 그밑을 파헤치면 틀림없이 샘구멍이 터질것이옵니다.》
《그럼 됐네. 이젠 살았네. 내 이제 당장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겠네.》
좌상로인은 총각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온 마을사람들이 달라붙어 츠렁바위밑을 파헤치니 바위구멍이 펑 뚫리면서 시원한 맑은 샘물이 콸콸 터져나왔습니다.
도랑을 파고 그 물을 논밭으로 끌어다대니 아무리 큰 왕가물이 들어도 이 마을사람들은 물걱정을 모르고 해마다 풍년농사를 짓게 되였습니다.
집집의 뒤주마다 낟알이 차고넘치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여나고 이 풍요한 생활을 안아다준 은인인 소금장사총각을 믿고 따르는 마음도 나날이 커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집을 짓고 좌상로인의 손녀를 안해로 내주어 소금장사총각이 행복한 새살림을 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크고작은 일들을 모두 그와 의논하며 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마을에 뛰여난 명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 궁성의 높은 성벽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왕은 그 명인을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호화로운 마차와 고관들이나 입는 멋진 관복까지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어제날의 천한 소금장사젊은이는 으리으리한 관복을 차려입고 화려한 마차우에 오르니 꿈을 꾸는것만 같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자라를 담은 다래끼를 꼭 옆에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궁성에 가면 꼭 무슨 변이 날것만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자라의 말을 들으며 한마을의 재난은 가셔낼수 있었지만 궁성에 들

어가면 무슨 어마어마한 일감을 내맡길지 모르며 그 일을 감당못하면 어떤 무서운 참변을 당하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들구뛰여야 목숨을 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영대장이 거느린 숱한 군사들이 창검을 번뜩이며 마차를 호위하고있어서 어쩌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라를 믿고 마차의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천구경이나 하고 앉아있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차가 깊은 산중에 들어갔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마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큰 기와집앞으로 다가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몇번 찾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고 집안은 괴괴하기만 하였습니다. 한동안 기다려서야 안에서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나어린 처녀가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루밤 묵어가자고 하였더니 이 집은 위험한 곳이니 어서 떠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사연을 물었더니 밤마다 괴물이 나타나서 집안식구들을 다 잡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오늘밤이 자기 차례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우리가 원쑤를 갚아주겠으니 마음을 놓으라고 처녀를 안심시키고 이 집에 려장을 풀었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어영대장과 의논하여 호위군사들을 사방에 숨겨놓고 대청에 올방자를 틀고 나앉아서 괴물이 나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야밤삼경이 지나서야 무엇이 휙휙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청천벽력같은 고함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꼼짝달싹말아!》

고함소리와 함께 대낮처럼 환히 홰불이 켜지면서 날이 시퍼렇게 선 창검이 괴물들의 가슴을 겨누고 조여들었습니다.

얼굴에 탈바가지를 쓴 괴물들은 꼼짝 못하고 그자리에 꿇어엎드렸습니다. 놈들은 겁에 질려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이때 관복을 차려입은 소금장사젊은이가 대청우에 척 나앉으면서 엄하게 꾸짖어 물었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무엄하게 덤벼드는가! 목숨이 아

깝거든 무슨 일로 덤벼들었는지 바른대로 아뢰여라!》
그러자 한놈이 벌벌 기여나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희들은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구미여우의 꼬임을 받고 이 댁 아가씨를 잡으러 왔소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이다.》
《그 구미여우는 어디에 있는고?》
《앞산 절벽의 동굴속에 틀고앉아있소이다.》
《이놈들을 결박하여 고간속에 가두어라!》
소금장사젊은이의 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와— 하고 달려나와 괴물의 탈을 쓴 괴한들을 꽁꽁 묶어서 빈 고간속에 처넣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금장사젊은이는 다래끼속의 자라한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자라는 그전에 시내가의 벼랑턱에서 여우잡이하는것을 본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 방법을 속삭여주었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자라가 일러준대로 고추 3말을 군사들한테 지워가지고 살금살금 벼랑턱으로 기여올랐습니다.
구미여우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도망칠수 있는 곁굴을 네개나 더 뚫러놓고있었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기본굴에 불을 피우고 고추를 태우면서 그 독한 연기를 불어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을 비껴든 군사들이 네개의 곁굴아구리를 지켜섰다가 내내에 취하여 쫓겨나오는 놈들을 모조리 찔러눕히라고 하였습니다.
일은 뜻대로 되여 이날밤 굴속에 숨어있던 여우 100마리를 찔러눕혀 구미여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날밤 군사들은 구미여우한테 잡혀있다가 겨우 살아나온다는 아가씨를 한명 놓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미여우가 그렇게 아가씨로 둔갑하여 빠져나간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과시 명인은 명인이로다. 궁성으로 올라오는 길에서도 쉬지 않고 그 교활한 구미여우를 잡아내여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

었군 그래.》

궁성에 도착한 소금장사젊은이는 왕의 어명으로 더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였습니다. 그를 귀빈들을 모시는 별궁에 들게 하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궁녀들이 춤과 노래로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자라가 들어있는 다래끼를 침상밑에 감추어두고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발밑에 꿇어엎드린 그를 일으켜세워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짐은 나라의 귀중한 보물인 옥새를 잃고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노라. 허나 오늘은 자네와 같은 명인을 만났으니 만시름을 놓고 편히 쉬게 되였노라. 그러니 충의를 다해 부디 옥새를 찾아야 하겠노라.》

왕을 만나고 돌아온 젊은이는 급히 침상밑에 숨겨놓았던 다래끼를 꺼냈습니다.

《동생, 왕이 잃어버린 옥새를 찾으라니 어쨌으면 좋겠소?》

《형님, 제가 밤새워 왕궁의 안팎을 샅샅이 뒤져서 옥새 숨겨놓은 곳을 찾아낼테니 아무 걱정마시고 편히 쉬시오이다.》

자라는 이런 말을 남기고 정원으로 엉금엉금 기여나갔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자라를 기다리며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라는 온몸이 축축히 젖어가지고 새벽녘에야 돌아왔습니다.

《형님, 그 옥새는 왕이 사랑하는 궁녀의 침상밑에 있었소이다. 래일 왕한테 1 000명의 인원을 풀어 드넓은 왕궁안팎을 샅샅이 뒤지라는 어명을 내리시라고 여쭈시오이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의 말을 듣고 왕은 그 즉시 1 000명의 군사들을 풀어 궁전의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왕은 소금장사젊은이와 함께 후원의 정각우에 높이 올라앉아 궁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수색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 000명의 군사들이 어영대장의 지휘하에 창칼을 꼬나들고 궁전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방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끔

히 뒤져나갔습니다. 참빗으로 머리를 빗듯 하니 정말 개미 한마리 빠질 틈이 없는 수색이였습니다. 군사들이 바싹바싹 조여들어 이제 남은것은 궁녀가 거처하는 별궁뿐이였습니다. 수색이 중단되고 군사들도 멎어섰습니다.

그날밤 새로 왕궁에 들어온 궁녀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명인의 처방을 받게 해달라고 왕한테 당부했습니다.

궁녀의 당부는 그 다음날 아침 왕의 어명으로 소금장사젊은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라가 말했습니다.

《흥, 그 궁녀가 누군지 아시오이까. 구미여우사냥을 하던 날 밤에 놓아준 불쌍한 아가씨가 바로 왕의 궁녀로 둔갑한 구미여우오이다. 군사들이 조여드니 급해나서 그날의 앙갚음을 하려고 형님의 처방을 요청한것이옵니다.》

소금장사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소스라치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의 궁녀가 그 구미여우란 말야! 이런 변이 있나. 그래 동생,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형님, 제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마시오이다. 이제 왕을 만나시면 그 궁녀를 직접 만나서 진찰을 해야 한다고 하시오이다. 그러면 절대로 만날수 없다고 할것이옵니다. 그럼 방문을 열고 밖에서라도 얼굴을 들여다봐야 옳은 처방을 내릴수 있다고 우기시오이다. 그러면 왕도 마지못해 응할것이옵니다. 그때 형님은 나를 도포의 팔소매속에 숨기고 들어가셔야 하오이다. 그러면 제가 기회를 보다가 구미여우를 물어메치겠소이다.》

일은 자라의 말대로 착착 맞아떨어졌습니다.

자라를 도포의 팔소매속에 숨긴 소금장사젊은이가 왕의 뒤를 따라 궁녀의 방문앞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어험어험 점잖게 기침을 하면서 궁녀의 방문을 스르르 열었습니다.

소금장사젊은이가 얼핏 스쳐보니 궁녀가 방문옆에 놓인 호화로운 침상에 누워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장사젊은이의 도포 팔소매속에 숨어있던 자라가 휙— 궁녀의 침상우로 날아떨어지면서 날카로운 송곳이로 날쌔게 궁녀의 숨통을 물어끊었습니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궁녀가 피를 내뿜으며 껑충 뛰여오르더니 둬번 재주넘이를 하고 침상밑에 곤두박혔습니다.

실로 눈깜빡할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왕도 어쩔새가 없었습니다.

왕이 질겁하여 침상밑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피를 토하며 쓰러진것은 궁녀년이 아니라 꼬리가 아홉개나 달린 구미여우였습니다.

교활한 암여우가 궁녀로 둔갑하여 왕을 유혹했으며 명인의 처방을 구실로 소금장사젊은이를 물어메칠 꿍꿍이를 했던것입니다.

왕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 처참한 몰골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한참후에야 정신이 좀 드는지 소금장사젊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무슨 변고인고?》

소금장사젊은이가 이날 벌어진 일의 내막을 다 말하고 침상밑에서 옥새까지 꺼내주자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라의 불상사를 막고 옥새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몇번이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후 소금장사젊은이는 왕이 하사한 많은 상금과 선물, 높은 벼슬을 다 마다하고 자라와 함께 사랑하는 안해가 기다리는 마을로 돌아와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시골선비

옛날 가난한 시골선비 한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끼고왔다는 은반지와 달비까지 팔아서 마련해준 몇푼 안되는 로자를 아껴쓰면서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나 걸음을 다그쳐갔습니다. 밤이면 남의 집 웃방에서 몸을 웅송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어머니가 싸준 메밀범벅으로 끼니를 에우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숲이 우거진 어느 험한 고개를 넘어가고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의 바위밑에 웬 사람이 쓰러져 신음하고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몸에 허름한 장삼을 걸친 중이였습니다. 얼굴에 피기가 없고 초들초들 입술이 말라터진것을 보니 마을로 동냥을 내려왔다가 초기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길이 바빴지만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초기만난 사람한테 필요한 음식이라고는 메밀떡밖에 없었습니다. 아껴먹으며 여기까지 오느라니 그것도 다 먹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덩이 안되는 메밀떡을 중한테 먹이면 자기자신이 굶주리며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는 굶주려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보짐을 풀어헤쳤습니다. 그는 고개밑에서 샘물을 떠다가 메밀떡을 만문하게 풀어서 중의 입에 떠넣어주었습니다.

중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낯모를 시골선비가 자기를 구원해주었다는것을 알고 고마와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암자에 가서 하루밤 쉬고 가시오이다.》

선비는 중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얼마쯤 톺아오르니 풀덩굴 우거진 벼랑밑에 크지 않은 동굴이 나졌습니다. 중은 암자라고 하였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암자로 꾸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도 제단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의심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중이 안심시켰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아무려면 생명을 구원해주신 은인을 곤경에 빠뜨리겠소이까. 행색을 보니 과거를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님같은데 지금 조정안팎에는 간신의 무리가 우글우글하고 매관매직행위가 성행하고있어 몸에 지니신 로자나 가지고는 과거를 본대도 가망이 없소이다. 그러니 하루밤 묵으면서 우리 함께 방도를 찾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하오이다.》

선비는 이 허름한 장삼을 몸에 걸친 중을 놀란 눈으로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필경 이 굴에서 도를 닦는 도사어른이 분명하군. 그렇지 않다면야 나의 처지나 나라형편을 어떻게 그리 자상히 알텐가.)

도사의 가르침을 받게 된것을 다행한 일이라 여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자, 다 들어왔소이다. 여기 편히 앉으시오이다.》

그 소리를 듣고 생각에서 깨여난 선비가 주변을 살펴보니 도사의 잠자리인지 구석에 풀검불이 무드기 깔려있고 굴바닥에는 여

기저기 짐승의 뼈다귀가 나딩굴고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났습니다. 부쩍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기미를 느꼈는지 중이 모든것을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선비님이야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뭘 더 숨기겠소이까. 놀라지 마시오이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굴에서 100년 도를 닦은 호랑이로소이다. 그래서 앞일도 좀 내다보고 둔갑술도 쓰는것이오이다. 그런데 저는 몇달전에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겠소이까.》

그의 말을 듣고보니 그가 호랑이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믿음이 가고 큰 불행을 당하였다니 동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무슨 불행을 당하셨소이까?》

《지난해 봄이였소이다. 저의 사랑하는 안해를 저 앞산 절벽에 사는 호랑이놈이 빼앗아갔소이다. 제가 사냥을 떠난 사이에 이 굴에 달려들어 억지로 끌어갔소이다. 저는 그길로 달려갔지만 힘이 모자라서 얻어맞고 물어뜯기워 만신창이 되여 쫓겨왔소이다. 자, 보시오이다.》

중은 옷을 활활 벗고 목과 잔등에 난 험한 상처를 내보였습니다. 정말 보기 끔찍스러운 상처였습니다.

《아니, 이런. 그런 악독한 놈을 살려둔단 말이오이까?!》

선비도 분개하여 주먹을 틀어쥐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키워가지고 다시 찾아갔지만 매번 물어뜯기기만 하였소이다.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잘수도 없고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소이다. 그 불쌍한 안해생각이 나서 정말 견딜수 없소이다. 그래서 허기진 몸으로 미친듯이 돌아치다가 초기를 만나 죽게 된것을 선비님이 구원해주셨소이다. 정말 선비님의 은덕은 죽어도 잊을수 없소이다. 선비님만 허락하신다면 저는 평생토록 선비님을 나의 형님으로 모시겠소이다.》

선비는 크게 감동되여 그와 함께 가슴아파하게 되였습니다.

《뭐, 허락하고 말고 할게 있나. 나도 자네를 동생으로 생각하네. 그럼 동생, 그놈을 징벌할 무슨 방도가 없겠나?》

《형님, 그럼 절 좀 도와주시오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동생을 돕겠나? 나는 힘이 없네. 그리고 맨

주먹으로는 어쩔수 없는거고…》
그러자 중이 한구석에 간수해두었던 활과 화살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그놈과 맞붙어 돌아갈 때 틈을 엿보다가 형님이 그놈을 활로 쏘시오이다. 그러면 그놈이 깜짝 놀라서 돌아다볼 때 내가 물어메칠수 있소이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어서 그러세.》
그렇지만 활을 들어보니 어찌나 무거운지 책상물림의 선비인지라 힘이 모자라 활을 다룰수 없었습니다. 암만 활줄을 당기고 화살을 먹이려고 안깐힘을 써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은 안되겠소이다. 제가 장수샘물을 떠다드릴테니 힘을 키우고 활 다루는 법도 익혀야 할것 같소이다.》
선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은 매일 아침저녁 절벽밑으로 내려가서 장수샘물을 길어다주었고 선비는 그 물을 마시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중은 또한 매일 밖으로 나가서 노루와 메돼지를 잡아다 함께 구워먹으면서 선비의 원기를 돋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지나니 선비의 팔뚝에 힘이 뻗치는것이 알렸습니다. 활시위를 당겨보니 어렵지 않게 화살을 날릴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성수가 나서 활쏘는 련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나니 굴속으로 날아드는 박쥐도 어렵지 않게 쏘아 떨굴수 있었습니다.
《동생, 이젠 됐네. 떠나보세.》
《그럽시다.》
중은 휘휘 몇번 재주넘기를 하더니 황소만한 호랑이로 변하였습니다.
《자, 어서 활을 들고 등에 올라타시오이다.》
선비가 갈색 줄무늬가 듬성듬성 가로 건너간 누런 잔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휙— 소리를 내면서 굴밖으로 나는듯이 달려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앞산 바위절벽앞에 있는 너럭바위우에 날아내렸습니다.
《형님, 내리시오이다. 이 바위뒤에 숨어서 제가 그놈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회를 보아 그놈의 가슴팍을 쏴주시오이다.》
《알겠네.》
선비는 활줄에 화살을 걸어들고 바위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앞발로 너럭바위를 쿵하고 내려치면서 앞산벼랑턱에 대고 따웅— 하고 소리쳐 적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앞산벼랑이 쩌렁 울리면서 요란한 따웅소리와 함께 황소같이 큰 호랑이가 바위굴에서 휙— 날아나왔습니다. 동생호랑이도 마주 달려나갔습니다. 이윽고 으르릉 으르릉 하늘땅을 뒤흔드는 무서운 고함소리를 내지르면서 두 호랑이가 맞붙어 돌아갔습니다. 서로 날아들면서 앞발로 내려치고 날카로운 이발로 물어뜯는 피어린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선비는 활을 겨누어들고 화살을 날릴 기회만 노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휙휙 날아돌아가며 싸우니 어느게 동생호랑이고 어느게 원쑤놈인지 미처 분간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가슴을 겨누고 화살을 날리려 하면 어느새 뒤바뀌여 동생호랑이가 나타나군 하니 잘못하다가는 동생호랑이를 쏘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낼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싸움은 결판이 나고말았습니다. 동생호랑이는 어깨를 물어뜯겨 피투성이가 되여 돌아왔습니다.
《형님, 또 패했수다. 그런데 왜 쏘지 않았소이까? 한화살 먹여주기만 하면 내가 이 꼴이 되지 않고 이길수 있었겠는데…》
선비는 동생호랑이의 상처에서 피를 닦아내고 송진을 긁어다가 발라주었습니다.
《맞붙어 엉켜돌아가니 어디 그놈을 가려볼수 있어야 쏘지. 잘못하다간 동생을 쏠것만 같아 화살을 날릴수 없더라니까.》
동생호랑이는 그날 너무 분해서 저녁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동생, 이렇게 하세. 다음번엔 이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나가서 싸우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놈을 쉽게 분간해서 쏴갈길것 같더라니까. 어떻게 할가?》
선비가 메밀떡을 쌌던 흰보자기를 내주면서 물었습니다.
《거 정말 신통한 생각을 했소이다.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구 이

제 당장 가서 결판을 냅시다.》
동생호랑이가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비가 그의 손을 잡아 앉히며 타일렀습니다.
《아, 이러지 말게. 상처도 아물고 몸도 추선 다음에 량패가 없도록 차비를 잘해가지구 맞서야 하네. 그렇게 덤벼치다간 무슨 일에서나 실수를 할수 있다네.》
《이거야 속이 타서 견디겠나.》
동생호랑이는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며 겨우 분을 삭였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선비가 밖에 나가 활로 노루를 쏘아잡기도 하고 송진도 긁어왔습니다. 아침저녁 동생호랑이의 어깨에 송진을 갈아붙이면서 노루의 생피를 먹여 원기를 돋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나흘동안 빈틈없는 준비를 한 그들은 다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벼랑이 무너져내리는듯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며 휘휘 번개같이 날아돌아갔지만 어깨에 흰보자기를 둘렀기때문에 원쑤놈을 쉽게 분간할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지그시 활을 겨누고있다가 원쑤놈이 동생호랑이한테 달려들었다가 물러나는 순간에 숨을 딱 멈추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픽― 하고 날아가서 그놈의 가슴팍에 퍽― 하고 들어박혔습니다. 그놈은 따웅― 하고 놀란 소리를 내지르면서 펄쩍 뛰여오르더니 앞발로 화살을 꺾어던지면서 불이 펄펄 이는 화등잔같은 눈길로 이쪽을 홱 돌아다보았습니다. 그찰나에 동생호랑이가 번개같이 날아들면서 날카로운 송곳이로 그놈의 숨통을 콱 물고 잡아비틀었습니다. 그놈은 미친듯이 요동을 치면서 동생호랑이를 뿌려던지려 했지만 동생호랑이는 더 드세게 숨통을 물어뜯었습니다.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분수처럼 내뿜겼습니다. 두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되여 나딩굴었습니다. 원쑤놈은 한동안 그렇게 요동을 치더니 마침내 혀를 빼물고 척 늘어져버렸습니다. 동생호랑이는 물고 늘어졌던 그놈을 홱 뿌려던지고 벼랑중턱에 있는 그놈의 굴로 날아들어가더니 암호랑이를 업어내왔습니다.
암호랑이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노루피를 입에 떠넣어주고 네다리를 주물러주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암호랑이

를 자기 굴로 업어다 눕힌 동생호랑이는 선비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고맙소이다. 이 동생의 목숨을 건져주고 오늘은 또 원쑤를 갚고 안해를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제가 한평생을 다 바쳐 갚은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이까.》

《동생, 뭘 그러나. 우리야 형제가 아닌가.》

선비는 동생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안했습니다.

《형님, 이 동생의 소원은 다 풀렸으니 이제는 형님이 미루어온 뜻을 이루어볼 때가 되였나보오이다.》

《동생, 그래 어쩌자는건가?》

《아, 이제야 장가도 드시고 과거도 보셔야 할게 아니오이까.》

《응, 또 그 소린가. 됐네. 그건 급하지 않으니 어서 제수의 몸부터 추세워줘야 하겠네.》

《예, 알겠소이다. 형님은 그저 제가 하라는대로만 하시오이다.》

그러더니 동생호랑이가 어디로인가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활을 둘러메고 굴밖으로 나가서 사슴을 한마리 잡아왔습니다. 사슴의 만문한 뿔을 잘라 달여먹이고 생피를 내여 아침저녁으로 암호랑이의 입에 떠넣어주었더니 사흘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암호랑이는 선비를 아주버니라고 존대하면서 너무도 고마와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굴밖으로 사라졌던 동생호랑이가 그날 저녁에 비단옷을 몸에 휘감은 어여쁜 아가씨를 하나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암호랑이가 그 아가씨를 받아 내리워주면서 동생호랑이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암호랑이가 일어나 자기를 맞아주니 동생호랑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비가 누워있는 아가씨의 입에 미음을 쑤어서 떠넣어주면서 동생호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어데서 업어왔나?》

《서울장안에 들어갔댔소이다. 지나가는 한 젊은이한테 과거를 언제 보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공시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

면서 그 일을 주관하는 리판서나 알 일이라고 하지 않겠소이까.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가보니 외동딸의 잔치차비로 많은 녀인들이 붐비고있었소이다. 가만히 다가가서 녀인들의 말소리를 귀를 기울고 엿들어보니 아니 글쎄 권세가 등등한 황정승대감의 강박과 재물에 눌리워 그 집 병신아들한테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귀여운 딸을 시집보내게 된 리판서네 집에서는 초상난 집처럼 울며불며 마지못해 잔치를 차리고있다는게 아니겠소이까.》

동생호랑이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엮어내려갔습니다.

《그리구 그 집 외동딸은 죽어도 그런 병신한테는 시집을 안가겠다고 벌써 사흘째나 침식을 잊고 이불속에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고 하오이다.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속에 떠올랐소이다.

흥, 마침 잘됐다! 뭐 과거보는 날자를 물어볼게 없지. 그 황정승이라는 나쁜 관료놈을 골탕먹이고 리판서집 딸을 곤경에서 구출한다면 만사가 풀릴게 아닌가. 형님을 그 집 사위로 들여앉힐수 있을게고 그렇게만 된다면 과거보는 일쯤은 문제가 아닐테니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게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슬쩍 아무도 모르게 아가씨방으로 새여들어가 감쪽같이 새색시를 이리로 업어왔소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선비는 큰 변이라도 난것처럼 얼굴에 난색을 지었습니다.

《아하, 이거 큰 야단이 났군! 아, 딸을 잃은 그 댁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소. 잔치전야에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큰 소동이 일어났을건 물론이구…》

그러자 동생호랑이가 호탕하게 웃어대며 선비를 안심시켰습니다.

《하하, 이제 잃었던 딸을 찾는 날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걸 좀 생각해보시오이다. 그까짓 걱정쯤은 가뭇없이 사라지구 딸찾은 기쁨에 병신대신 장한 사위를 맞는 기쁨이 겹칠터인즉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어데 있겠소이까. 그러니 형님, 마음 푹 놓으시오이다. 그저 이 동생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량패가 없소이다.》

《허허, 참… 허허…》

선비는 어이가 없어 그저 따라웃고말았습니다.

그때에야 겨우 정신이 든 아가씨가 호탕한 웃음소리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 아니 글쎄 황소만한 큰 호랑이 두마리가 마주앉아있는 굴속에 자기가 누워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굴속에서 믿을것은 오직 선비 한분뿐이여서 아가씨는 자기도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의 품속으로 바싹 안겨들었습니다. 숫총각인 선비는 아릿다운 아가씨가 갑자기 안겨드는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 누이동생처럼 꼭 품안아주면서 부드럽게 위안해주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이다. 이 호랑이들은 내가 살려준 동생과 제수이니 마음을 놓으시우.》

그러자 그 호랑이들이 《형수!》, 《형님!》 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사람처럼 인사까지 하는 바람에 아가씨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이틀 지나는 사이에 아가씨는 이 괴이한 굴속생활에 차츰 익숙해졌으며 선비한테 온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의좋은 부부가 되여 살아나가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생호랑이가 아가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래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이까?》

《글쎄, 굴속에서 살다보니 날이 가는걸 헤아릴수 없었소이다.》

《형수님, 래일이 아버님의 환갑날이니 가셔야 하지 않겠소이까?》

《아이구머니, 이를 어쩌나. 아무 준비도 못했으니…》

아가씨는 깜짝 놀라서 헤덤벼댔습니다.

《형수님, 제가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아무 걱정 마시구 어서 몸단장이나 하시오이다.》

아가씨를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간 동생호랑이는 커다란 사슴과 메돼지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튿날 의좋은 한쌍의 부부가 된 선비와 아가씨는 말가죽을 뒤집어쓴 동생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들의 뒤로는 사슴과 메돼지를 등에 실은 암호랑이가 말가죽을 쓰고 따라섰습니다.

죽은줄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리판서댁에서는 살아돌아온 딸을 부둥켜안고 울며 웃으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선비는 동생호랑이가 일러준대로 사슴과 메돼지를 뜨락에 부려놓고 말가죽을 쓴 동생네 부부호랑이를 뒤뜰안에 매놓았습니다.

한편 이 댁 아가씨는 자기를 구원해주고 보살펴준 은인이고 랑군님이라고 하면서 시골선비를 부모님앞에 인사시켰습니다. 공손히 인사를 드리는 시골선비의 의젓하고 름름한 모습을 보고 리판서부부는 경사에 경사가 겹쳐들었다고 환성을 올리면서 사위의 두손을 잡아 일으켜주었습니다.

환갑잔치에 모여들었던 손님들도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전날 혼례를 치르려다가 랑패를 본 사돈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들었습니다.

《흥, 어떻게 된노릇인고 하구 의아해했더니 딸을 슬쩍 빼돌렸댔구나. 세상에 이런 무례한짓을 하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뇨?!》

권세발이 등등한 정승대감인 전 사돈령감이 손에 쟁기를 든 한무리의 왈패떼를 몰고 달려들어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고삐를 끊고 말가죽을 벗어던진 큰 호랑이가 따웅! 하고 우뢰치듯 부르짖으며 뜨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기세등등하여 달려들던 왈패놈들은 기겁을 하여 쟁기들을 집어던지고 내뺐으며 손님들도 눈이 휘둥그래서 그자리에 풀썩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환갑잔치로 흥성거리던 안마당은 한순간에 수라장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새 사위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앞으로 썩 나서더니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멱살을 부여잡고 철썩철썩 귀쌈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산중의 대왕이라는 호걸스러운 짐승들이 이 무슨 무도한짓인고!》

그러자 그 무서운 호랑이들이 기가 죽어 꿇어앉으며 변명했

습니다.

《호환에 걸려 다 죽게 된 이 집 아씨를 구원한 의로운 장수님 앞에서 감히 권세를 믿고 야료를 부리는 정승대감 노는 꼴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분별을 잃고 달려들었사오니 부디 한번만 용서하여주시오이다.》

《음,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하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어서들 공손히 물러가라!》

이 댁의 새사위가 한마디 하니 호랑이들이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고 비실비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전 사돈령감도 제놈이 저지른 행위가 온당치 못하므로 더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왈패들과 함께 어깨가 처져서 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하여 울기만 하던 귀동녀, 호환에 걸려 죽을번한 딸을 다시 찾고 슬기롭고 용맹스러운 장수를 새사위로 맞이한 이 댁의 환갑잔치는 한결 더 이채롭고 흥겹게 벌어졌습니다.

리판서는 너무 기뻐서 딸의 결혼잔치를 크게 차려주고 궁궐같은 새집에서 재미나게 잘살도록 보살펴주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데다가 마음씨 착하고 대바른 시골선비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큰일을 맡아보게 된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소를 내몰아 외적을 족친 고랑쇠

옛날 어느 한 고을에서 큰 피난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을 건너온 오랑캐무리가 벌써 십리밖에 밀려들어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잡아죽이고 재물을 략탈하고 마을에 불을 질러 재무지로 만든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고을을 지켜야 할 고을의 관장인 원은 저만 살겠다고 얼마 안되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남먼저 꼬리를 사리고말았습니다.

오랑캐의 큰 무리와 맞서싸우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겁이 나서 한순간도 더 견뎌낼수 없었던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맨손으로 적과 맞서싸울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량반부자놈들은 저마다 더 많은 재물을 싣고 도망치려고 소와 말, 사람들을 마구 들볶아대고있었습니다.

이때 황소 한마리가 등에 실어놓은 짐을 내동댕이치고 뿔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채찍을 든 량반을 휙— 받아넘겼습니다.

그러자 그옆에서 달구지에 짐을 싣고있던 그 집 머슴군총각 고랑쇠도 등에 둘러멘 궤짝을 집어던지고 마을사람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마을을 떠나서는 안되우다. 짐승도 제가 나서자란 땅을 떠날수 없어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만 살겠다구 피해 달아나겠소. 우린 죽기를 각오하고 원쑤와 싸워야 하우!》

그 소리를 듣고 마을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따라나섰습니다.

《옳수다. 우린 저 량반나리들처럼 도망칠수 없소!》

《싸우자구! 죽기내기루 싸운다면 무엇이 무섭겠소.》

그렇지만 량반부자놈들은 악을 쓰며 반대해나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닭알로 바위치기지. 네까짓것들이 수천을 헤아리는 적의 큰 무리를 어떻게 당해낸단 말야. 잔말말구 어서 피난이나 가자!》

그러자 고랑쇠가 황소를 앞세우고 한발자국 다가서며 을러멨습니다.

《흥, 저리 썩 물러서우! 이 황소한테 받기우지 않겠거든.》

량반부자놈들은 두눈을 부릅뜬 황소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뒤걸음질쳐 달아나버렸습니다.

고랑쇠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평소엔 저혼자 나라를 위하는것처럼 날치던 나리들이 정작 란을 당하고보니 저 꼴이구만. 퉤! 한놈도 믿을게 없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 모두 소를 끌고 따르시우.》

마을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랑쇠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물었습니다.

《여보게 고랑쇠, 그래 어쩌자는건가?》

《그 좋은 수라는게 뭔가?》

고랑쇠는 이 위급한 속에서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모두들 보았겠지요.》
《뭘말인가?》
《황소가 주인나리 받아넘기는거 말이우.》
《암, 거야 보았지. 아주 씨원하더군 그래.》
《맞았수다. 바로 그 힘을 써먹자는거우다.》
마을사람들은 고랑쇠의 설명까지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따라나섰습니다.
그들은 달구지나 소잔등에 실어놓았던 량반부자놈들의 짐을 와락와락 뿌려던졌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소고삐를 끌고 고랑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랑쇠는 그들을 이끌고 동구밖의 비탈진 외통길로 향했습니다.
원쑤놈들이 마을로 기여들자면 깎아지른듯한 두 벼랑사이로 뻗어나간 이 외통길을 지나야만 했던것입니다.
고랑쇠는 소무리를 앞세운 마을사람들을 이 외통길입구에 멈춰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쑤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우선 날랜 젊은이들을 마을로 들여보냈습니다. 매 집 돌아다니면서 식칼이며 장도칼, 낫가락과 작두날을 모두 거두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싸리나무를 베다가 벼짚오리들과 뒤섞어서 홰불방망이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듬뿍듬뿍 발라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뿔에다 노끈으로 두세개씩 칼을 매달아놓게 하였으며 소꼬리에는 홰불방망이를 달아매도록 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랑쇠가 시키는대로 그자리에서 밥을 지어먹으면서 밤새도록 빈틈없이 싸움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원쑤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잠시도 눈을 팔아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소와 함께 외통길입구의 풀숲에 숨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무서운 함정이 마련되고있는줄이야 적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교활한 놈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마을을 타고앉자는 심산으로 날

이 밝기 전 이른새벽에 살금살금 마을로 다가왔습니다.

도간도간 찌르륵찌르륵 풀벌레소리가 들려올뿐 외통길은 쥐죽은듯 고요했습니다.

놈들의 긴 행렬이 발걸음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조심 외통길에 모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때를 기다리고있던 고랑쇠가 오른손을 머리우로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우며 《시작!》 하고 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소꼬리에 매단 홰불방망이에 불을 붙여 소무리를 외통길로 내몰았습니다.

꼬리에 시뻘건 불이 달리자 깜짝 놀라난 소들이 무서운 영각소리를 내지르며 미친듯이 원쑤놈들의 무리속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성난 소무리는 불을 털어버리려고 꼬리를 휘젓고 뿔을 마구 내흔들면서 놈들의 무리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내달렸습니다.

그 서슬에 뿔에 달아맨 칼들이 이리번쩍 저리번쩍 하면서 원쑤들의 몸뚱이를 마구 쳐갈겼고 불방망이가 여기저기 불찌를 날려 온통 시뻘건 불바다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어디로도 몸을 피할곳 없는 외통길이여서 놈들은 어디로도 달아나지 못하고 갈팡질팡 아우성치다가 뿔에 받겨 쓰러지고 칼에 맞아 목이 뎅강 떨어져나갔습니다.

소발통에 짓밟혀 죽고 옷에 불이 달려 숯검뎅이가 된 놈들의 시체가 골안을 짝 메웠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뒤따라 들이닥친 마을사람들의 걸이대에 찔리고 쇠스랑에 얻어맞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수천을 헤아리는 적들의 무리가 불바다, 피바다속에 휘말려들어 변변히 한번 맞서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을 당하고말았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죽어자빠진 놈들한테서 창검과 활을 빼앗아 둘러메고 승리의 함성높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무리죽음을 당한 놈들은 겁이 나서 다시는 이 마을에 접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듣고 멀리 몸을 피해 달아났던 고을의 원도 군사

를 이끌고 돌아왔고 량반부자놈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랑쇠는 창과 칼로 무장한 마을사람들과 함께 원을 앞에 세워놓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고을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원이 제 한몸 살아보겠다고 그 모든것을 줴버리고 도망쳤은즉 이미 중임을 스스로 내놓은셈이요. 헌데 무슨 렴치로 다시 코를 내미는거요. 우리한텐 그런 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소.》

고랑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창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욱 달려들어 원을 태운 가마를 지경밖으로 들어다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겁을 집어먹은 량반부자놈들도 슬금슬금 다 꽁무니를 빼고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는 어느 량반도 겁이 나서 원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랑쇠가 하라는대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농사를 지으며 잘살았다고 합니다.

소경이 써준 신비한 글쪽지

옛날 한 선비가 괴나리보짐을 지고 어느 고을의 들길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시내가를 지나며 보니 옷주제가 초라한 한 소경로인이 부자집아이들한테 시달림을 받고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지팽이 없인 한걸음도 옮길수 없단다. 제발 그 지팽이를 돌려주렴.》

먼길에 몹시 지친듯한 초췌한 소경로인이 간신히 손을 들어 내밀면서 둘러선 아이들한테 사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소경로인한테서 빼앗은듯한 지팽이를 줄듯말듯 그의 내민 손을 툭툭 건드리며 희롱했습니다.

《자, 자, 어서 가지라니까. 히히하하…》

《소경, 소경, 거지소경, 두눈 깜깜 용용 죽겠지.》

소경로인은 손에 툭툭 와닿는 지팽이를 잡으려고 허둥거리다

가 삐죽 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채여 첨벙 하고 내물에 어푸러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일으켜줄 대신 지팽이로 물탕을 쳐주면서 하하 웃어댔습니다.

선비는 급히 내물로 뛰여들어가서 로인을 부축하여 내가로 데려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먹을 내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게 섰거라! 앞 못보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지 이게 대체 무슨짓이냐!》

부자집아이들은 지팽이를 내던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소경로인은 지치고 허기진 몸에 봉변까지 당해서 그런지 몸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로인을 등에 업고 가까이에 있는 객주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을 찾아 값을 후하게 치를테니 어서 이 로인한테 더운 국밥을 대접하고 젖은 옷을 말려서 잘 손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경로인은 맥이 진하여 일어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로인을 객주집 아래목에 눕히고 더운 국밥을 입에 떠넣어주었습니다.

로인은 한참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따뜻한 방바닥과 이부자리를 손더듬하여 쓸어만져보더니 자기가 어떻게 되여 이런 호사를 하게 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객주집주인이 선비의 구원을 받은 사연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로인의 주름진 눈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선비의 손을 더듬어잡더니 자기가 귀인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눈물겹고 원통한 지난날을 하소연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로인이였습니다.

이 소경로인도 한때는 나라의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마음 어질고 대바른 그는 간신의 모략에 걸려 왕의 버림을 받게 되였고 귀양살이를 하다가 병을 만나 앞 못보는 소경이 되였다고 합니다. 그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와보니 처자들은 노비가 되였다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경로인은 누구도 돌봐줄 사람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여 천대와 멸시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신세가 되였다고 깊은 한숨

을 몰아쉬였습니다.

길떠날 시각이 되였건만 선비는 이 불쌍한 로인을 낯모를 객주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자니 차마 발길을 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집에서 로자로 쓰자고 가지고 떠났던 돈을 몽땅 꺼내서 로인의 손에 쥐여주면서 당부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남은 여생이나마 여기서 편히 지내도록 하시오이다.》

소경로인은 손을 홰홰 내저으며 받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가는 길같은데 로자가 떨어지면 어쩌겠나. 안되네. 나야 다 산 몸인데 뭐라나. 앞길이 구만리같은 사람의 앞길을 막을수 없네. 과거에 급제하고 성공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만 선비는 기어코 로자로 쓸 돈을 로인의 손에 들려주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럼 내 말 한마디만 듣고 떠나게.》

소경로인이 헤덤비며 간절히 청했습니다.

《왜 그러시오이까?》

선비가 문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자네 앞날을 따져보니 자네는 꼭 성공할 사람이야. 헌데 둬번 곡절을 겪어야 할걸세. 첫번은 금붙이가 살려주겠는데 다음번 고비를 넘기기가 수월치 않아. 그래서 내가 몇자 써서 좀 도와주자고 임자를 붙잡은거네.》

선비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이까?》

《내 예언은 틀려본적이 없다네. 어서 문갑을 꺼내놓고 벼루에 먹을 갈게.》

선비는 미타한 생각이 들었지만 로인의 진정을 마다할수 없어 문갑을 꺼내놓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로인의 손에 붓을 들려주었더니 펴놓은 종이를 손더듬해보고나서 단숨에 흰 백자를 셋이나 써놓았습니다. 얼마나 날래고 활달한 붓글솜씨인지 획은 획마다 꿈틀꿈틀 살아서 날아오를듯한 기상이였습니다. 몸은 비록 세파에 부

대껴 늙고 쇠진했지만 그 뜻은 변함이 없어보였습니다.

소경로인은 그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넣어주면서 거듭거듭 일렀습니다.

《절대로 꺼내지 말고 품속에 잘 건사하게. 정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을 때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내놓게. 꼭 명심하기 바라네. 그러면 위기를 면하고 성공할걸세.》

선비는 그 봉투를 받아서 품에 넣고 소경로인과 헤여졌습니다.

선비가 걸음을 다그쳐 어느 한 번화한 거리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비는 눈앞에 보이는 큰 기와집 솟을대문을 두드리며 하루밤 묵어가자고 청했습니다. 하인이 대문간에 나오더니 군말없이 어느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요란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선비가 잘못 들어온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려하자 몸이 장대한 사나이가 앞을 막으며 일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선비가 머뭇거리고 서있는데 소복단장을 한 새색시차림의 젊은 녀인이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왈패들이 몇명 뒤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선비의 덜미를 잡아 신부와 마주세우고 혼례식을 치르려 하였습니다. 선비가 이게 무슨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뿌리치려 했지만 왈패놈들의 힘을 당할수가 없었습니다. 놈들은 억지로 신부와 맞절을 시키고 신부가 부은 술을 입에 부어넣었습니다. 선비가 반항하는 바람에 술잔이 날아나고 음식그릇이 방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새색시옆에 붙어서서 옷단장을 보살펴주던 늙은 녀종이 보쌈으로 걸려든 선비를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늘씬한 키와 환한 얼굴, 별처럼 빛나는 예지로운 눈… 아, 저런 훌륭한 사람들을 마구 해친다면 장차 이 나라는 누가 떠메고나가랴 하는 생각이 들어 더는 못본체 할수가 없었습니다. 녀종은 눈치를 보다가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혼잡을 이룬 틈을 타서 새색시의 패물중에서 슬그머니 금방울 두개를 떼내여 선비의 괴춤에 슬쩍 찔러넣어주

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라는 말없는 신호였습니다. 선비는 감사의 정이 어린 눈빛으로 그를 피뜩 쳐다보았을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여쭐 경황이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달려들어 선비를 포대짝에 넣어 둘러메고 어디론가 사라진것입니다.

선비가 포대짝에 난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두놈의 왈패가 자기를 둘러메고 어딘가 달빛이 푸릿한 우중충한 숲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달려가던 왈패들은 포대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다리쉼을 하며 담배를 한대씩 말아물었습니다.

《나도 한대 피우게 해주구려.》

선비가 포대짝안에서 꼼지락거리며 청했습니다.

《앗따, 죽을 놈이 배포도 유하다.》

한놈이 이렇게 지껄이자 다른 놈이 응수했습니다.

《사형수한테두 술 한잔 준다던데 마지막으로 담배 한대 피우게 해주세나.》

놈들은 포대아구리를 풀고 선비를 내놓더니 담배쌈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선비는 부스럭부스럭 담배를 말면서 슬쩍 한마디 건네였습니다.

《자네들은 왜 팔자 고칠 생각 못하고 이런 험한 일을 하나!》

그러자 한놈이 허거프게 웃으며 툭 내쐈습니다.

《이놈아, 재산이 있어야 팔자도 고치는거야. 우리같이 천한 놈들한테 재산이 있어?》

이때라고 생각한 선비는 녀종이 넣어준 금방울을 손에 내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구 어디 먼데로 달아나서 새살림을 펴도록 하게.》

왈패들은 달빛에 번쩍이는 금방울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금방울이 아냐?》

한놈이 와락 금방울을 덮쳐잡더니 이발로 깨물어보았습니다.

《히야, 이거 진짜 황금이야. 이거면 진짜 팔자를 고칠수 있겠어.》

다른 한놈은 금방울을 들여다보고 감격에 넘쳐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거… 이런 귀물을 주시면 우리같은것들이 그 은혜를 어찌 갚겠소이까.》

선비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은혜는 무슨 은헨가. 나를 놔주면 되는거지. 너좋고 나좋으면 되는거지 뭐 셈할게 있나. 어서들 가보게.》

이렇게 되여 선비는 첫번째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서울로 가서 과거를 보게 되였습니다. 선비는 원래가 총명한 젊은이인지라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대번에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서울장안에는 시골총각이 장원급제했다는 소문이 쫙 나돌고 딸가진 고관들은 저마다 이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모략과 권모술수로 량심적인 대바른 충신들을 다 밀어내고 나라일을 좌지우지하던 리정승이 선손을 써서 이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였습니다.

선비가 사모관대를 하고 혼례식장에 들어서니 새각시도 몸종들한테 이끌려 방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낯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지 낯이 새파래가지고 모로 홱 돌아앉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것을 보니 무슨 곡절이 있는게 분명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뒤로 돌아앉아서 어깨를 떨며 흑흑 흐느껴울기만 하였습니다.

(혼례식이라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는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라는데 저렇게 울기만 하는걸 보면 마음에 없는 혼례를 치른게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저 녀인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래일아침 리대감한테 인사하고 조용히 헤여져가면 저 녀인의 설음도 가셔지겠지. …)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창가에 돌아앉아 초불을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 선비가 소변을 보려 밖으로 나가

면서 보니 그 녀인은 몸종들이 펴준 이불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지 방안은 괴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자기가 방금 나온 신방에서 무슨 비명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서 급히 방으로 달려가보니 그 녀인이 비수에 가슴을 찔려 마지막숨을 거두고있었습니다. 이불과 방바닥은 피로 얼룩져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선비가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고 쩔쩔매는데 벌써 잠을 깬 사람들이 모여들어 법석 끓어댔습니다.

결국 선비는 살인현장에 있던 유일한 혐의자로서 살인자로 몰려 심문을 받게 되였습니다.

선비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를 립증할 끈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세가 등등한 리정승은 딸을 죽인 살인자를 당장 처형하라고 떵떵 을러멨습니다. 리정승의 불호령에 바빠난 포도청과 의금부의 관속들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마구 덤벼쳤습니다. 그저 바른대로 대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마구 매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하고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무턱대고 덤빈다고 일이 되겠소. 나라의 큰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이 사리를 따져가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이러면 되겠소. 나도 장원급제한 선비요. 일이 바로잡히는 날엔 내가 자네들의 웃자리에 올라앉게 될게 뻔하지 않소.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리치적으로 곰곰히 잘 생각해보시우. 내가 리정승의 사위가 되면 공명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겠는데 왜 그런짓을 하겠소.》

선비의 사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을 듣고 관리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그렇다고 긍정했으며 무턱대고 덤벼친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에게 혼례식날 자기가 보고 느낀것도 사실그대로 다 말해주었습니다. 새각시가 그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신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흐느껴울었는데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거라

고 하면서 그 집 노비들과 몸종들을 만나서 잘 알아보면 무슨 실마리를 잡을수 있을거라고 타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속들은 방향을 바꾸어 리정승이 모르게 그 집 노비들과 몸종들을 불러내여 하나하나 따지고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리정승의 딸이 집에 드나드는 왈패들과 은밀히 만나 무엇인가 쑥덕거렸으며 서로 붙안고 히히덕거리는것을 여러번 보았다는 단서를 잡게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놈들이 새각시를 죽였다는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낼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인현장에 있은 유일한 사람인 선비는 혐의를 벗어던질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젠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으니 억울한 죽음을 당할수밖에 없단 말인가!)

옥에 갇혀 이런 생각을 하는 선비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큰뜻을 이루어보자고 갖은 고생을 다하며 도를 닦았는데 장원급제까지 한 지금에 와서 이런 루명을 쓰고 죽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선비가 시름에 잠겨 철창밖으로 머나먼 고향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옥리가 웬 녀인 하나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억울한 선비를 동정하여 녀종들이 보내온 사식(류치장에 갇힌 사람에게 들여보내는 음식)이오이다.》

옥리는 한마디 하고 물러갔습니다.

선비가 머리를 돌려 쳐다보니 옥문밖에 낯익은 녀종이 보꾸레미를 받쳐들고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혼례식날 새각시를 시중들던 몸종인데 주인아씨와 왈패들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눈치채고있었기때문에 억울하게 루명을 쓰고 옥에 갇힌 선비를 동정하여 벌써 여러번 사식을 들여보내준 인정많은 처녀였습니다.

그 녀종을 다시 보는 순간 선비의 눈앞에는 자기한테 흰 백자를 써주던 소경로인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처녀의 얼굴모습이 그 로인과 비슷해보였던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녀종이

더 미덥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녀종이 내미는 보꾸레미를 받으면서 서둘러 괴춤에 깊숙이 품고있던 글쪽지를 꺼내여 처녀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소경로인이 막다른 고비에 꺼내쓰라고 한 글쪽지를 믿고 넘겨줄 사람은 이 처녀밖에 없으며 이것이 마지막기회라고 생각되였던것입니다.

《이 글쪽지를 누구도모르게 포도대장한테 전해주우.》

처녀는 글쪽지를 받아들더니 와뜰 놀라서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아버지!》 하고 조용히 외우는 처녀의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든 글쪽지에는 그렇게 애타게 그렸으나 소식없던 아버지의 필적이 분명한 글자가 적혀있었던것입니다.

선비는 놀라운 눈길로 처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오?》

처녀는 한동안 격정에 사무쳐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님의 글씨옵니다. 아, 불쌍한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살아계시오이까?》

다시한번 놀란 선비는 정겨운 눈길로 애무하며 처녀를 위안했습니다.

《살아계시지 않구. … 그러니 아가씨가 로인이 찾지 못해 애타하던 딸이란 말이우? 이제 만나게 될거우.》

《고맙소이다. 그런데 황백삼이란 놈이 범인이라는걸 어떻게 알아냈소이까?》

《황백삼이라니?!》

선비가 다시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백로지에 흰 백자를 셋 써놓지 않았소이까? 그러니 누를 황자에 흰 백자와 석삼자, 황백삼이란 이름을 나타낸것이 아니오이까. 그놈은 리정승의 권세를 믿고 날뛰는 왈패무리의 두목이옵니다.》

선비는 너무도 감동이 커서 말을 못했습니다.

벌써 오늘일까지 환히 내다보고 살인범을 밝혀낸 눈먼 로인의 선견지명에도 탄복했지만 종이쪽지에 써놓은 글자 셋을 보고 즉석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맞힌 처녀의 슬기에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입니다.

선비는 남들이 눈치채면 큰일 날 급한 일이니 후에 다 말하기로 하고 어서 떠나라고 목메인 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종종걸음을 쳐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글쪽지는 그 즉시로 포도대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포도대장은 글쪽지를 펴보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음, 황백삼이! 네놈이였구나! 리대감의 겨드랑이밑에 붙어 눈꼴사납게 논다 했더니 오늘에야 꼬리를 잡혔구나. 이놈!》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악스럽게 생긴 놈팽이가 후닥닥 뛰여들어 포도대장의 발밑에 꿇어엎드렸습니다. 요즘 포도청의 눈초리가 리정승의 댁으로 돌려지고 왈패무리의 비행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겁을 먹은 황백삼놈이 제놈의 뒤를 캐지 않나 해서 포도청의 문밖에 숨어들어 기미를 살피다가 포도대장의 입에서 제놈의 이름이 터져나오자 질겁해서 뛰여든것이였습니다.

그놈은 포도대장의 발을 그러안으며 애걸했습니다.

《제발 한번만 눈감아주시오이다. 그러면 평생 은인으로 받들겠소이다.》

《안된다! 이 천벌을 받을 흉악한 살인악당놈아!》

포도대장은 그놈을 발길로 콱 차굴리면서 당장 결박하여 곤장 백대를 쳐서 옥에 처넣으라고 포교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살인악당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당장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있던 선비를 형조판서로 임명하고 황백삼일당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어지를 내렸습니다.

형조판서의 자리에 올라앉은 선비는 황백삼의 왈패무리를 심문하는 과정에 그가 살인을 하게 된 동기만 밝혀낸것이 아니라 그놈의 왈패무리를 끄드겨 성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민심을 소란하

게 하며 그 기회에 왕위를 빼앗으려고 흉악무도한 음모를 꾸민 리정승의 역적행위도 밝혀냈습니다. 리정승의 딸과 배가 맞아 돌아가던 황백삼은 리정승이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는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혼례식날 밤에 신방에 뛰여들어 선비를 비수로 찔러죽이려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선비가 밖으로 나간것을 모르고 이불속에서 단잠이 든 리정승의 딸을 그로 삭갈려 잘못 찔러죽인것이였습니다.

선비는 살인사건을 밝혀내는 과정에 황백삼이 리정승한테도 불만을 품고있다는것을 알고 그 알륵관계를 리용하여 리정승의 정변음모까지 들춰내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리정승의 모해를 받고 정배살이를 갔던 소경로인의 무죄가 선포되고 그의 처자들이 억울하게 뒤집어썼던 노비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눈물겨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이날 형조판서도 상봉의 자리에 참석하여 그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눈물속에 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보쌈으로 걸려든 선비에게 금방울을 주어 죽음을 모면하게 해준 늙은 녀종은 알고보니 소경로인의 부인이였습니다.

형조판서는 그들의 은혜를 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기한테 사식을 들여보내고 종이쪽지의 글풀이를 해서 포도대장한테 전해준 로인의 딸을 안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경로인 부부를 친부모처럼 공대하며 행복한 새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며느리

옛날 어느곳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있었습니다.

그한테는 마음씨 곱고 대바른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덧 열여덟꽃나이가 되여 시집을 보낼 때가 되였건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누구도 며느리로 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서른이 지나도록 집살림이 어려워 장가를 들지 못하고있는 이웃마을 로총각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집 시부모들은 늦게야 겨우 맞아들인 며느리가 귀하여 험한 밭일은 시키지 않고 집안일이나 맡아서 돌보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를 위해주는 시부모님들이 고마왔지만 그들을 더 잘 위해드리지 못하는것이 괴로왔습니다.

그 집에서는 귀신을 믿고있었는데 하루 두끼 겨우 풀죽을 끓여먹으면서도 뒤울안 처마밑에 매달아놓은 귀신퉁구리앞에는 하루 세끼 더운 밥을 지어다놓고 잘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거나 어디에 갔다 돌아와도 꼭꼭 그앞에 먼저 꿇어엎드려 두손을 싹싹 비비며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귀신이라는것을 모르고 자라난 며느리는 그것이 허황하게만 생각되고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쌀과 비용이면 헐벗고 굶주린 몸으로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그처럼 위해주는 시부모공대를 잘할수 있겠는데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왔습니다. 그 쌀로 발김을 매러 나가는 시부모님한테 더운 밥 한그릇이라도 지어 대접하고 그 비용으로 고등어 한토막이라도 사서 구워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날 남편한테 자기 생각을 슬쩍 비쳐보았더니 조상들의 신주를 모시는것은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우리 집 가풍인데 그러다가 부정을 타겠다고 하면서 펄쩍 뛰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 며느리는 더는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못해보고 저혼자 속을 썩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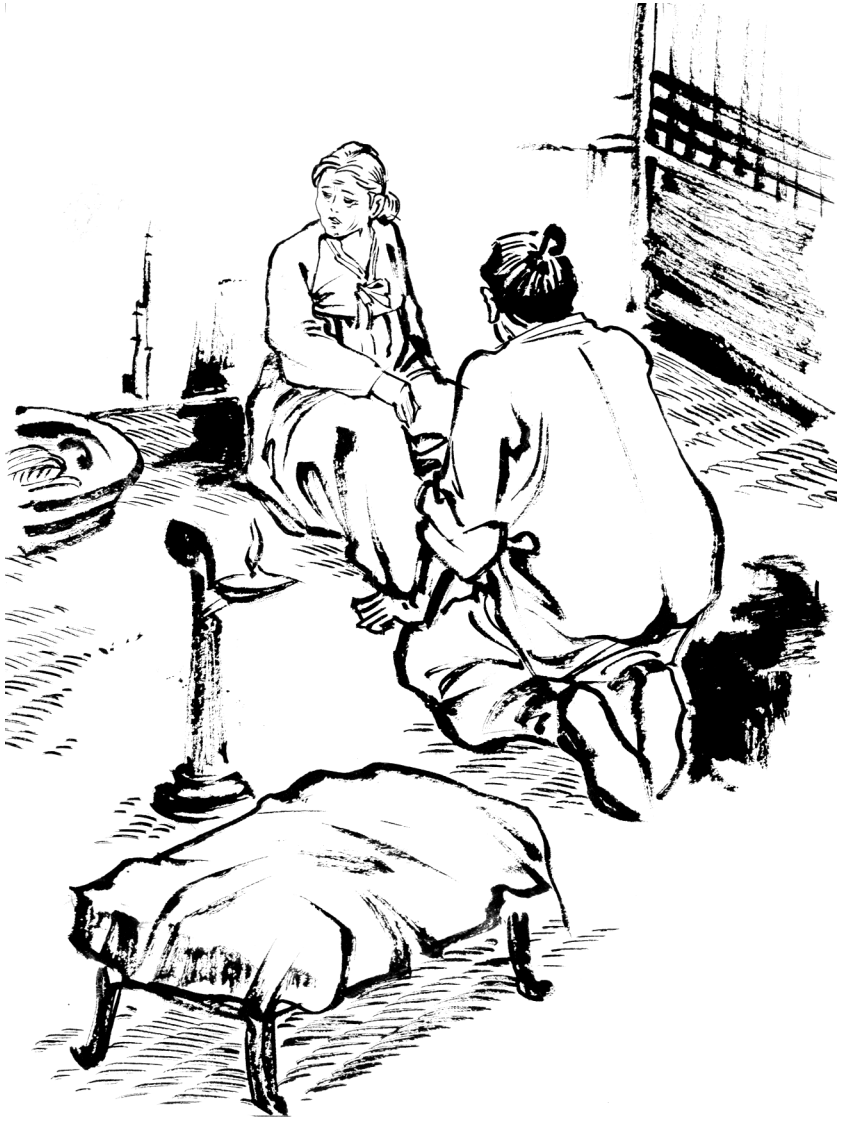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온 식구가 먼산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떠나고 며느리와 시누이만 집에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며느리는 몸살이 나서 앓고있는 시누이한테 찬물찜질을 해주고나서 뒤뜨락에서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신주를 모실 저녁쌀을 쿵쿵 절구질하고있느라니 눈앞에 문득 귀신단지앞에 넙적 꿇어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며 두손을 썩썩 비비던 남편의 궁상스러운 모습이 떠올라 저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뭐 조상의 신주라고 극진히 받드는데 도대체 저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가?)

며느리는 부쩍 호기심이 나서 헤쳐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 되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모르게 처마밑에 매달아놓은 귀신퉁구리앞으로 발볌발볌 다가갔습니다. 평소에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여왔지만 막상 거기에 손을 대려니까 무섭증도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속을 헤집어보니 누렇게 색이 바랜 백로지접은것이 한장 들어있을뿐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써놓았는지 시꺼먼 먹글씨가 적혀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성명과 본, 난날과 죽은 날을 적어놓은것이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신통한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별게 아닌걸 가지구 그러댔구나.)
귀신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이날이때까지 살아온 며느리의 입가에는 허거픈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허황한것에 매일 절구질을 하여 새벽밥을 지어 공양했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침저녁 온 식구가 거기에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며 명복을 빌었지만 가난한 집안살림살이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호호, 이런데다 대고 절을 하고 빌고… 참 한심도 하지.》
며느리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혼자 호호 웃고나서 그 밉살스러운 귀신퉁구리를 팔굽으로 콱 떠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고삭은 삼끈이 툭 끊어지면서 거기에 간신히 매달려있던 퉁구리가 퇴돌우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바람에 퉁구리속에 들어있던 귀신단지가 와지끈하고 깨여져 산산쪼각이 나고말았습니다. 허나 이 세상에 없는 귀신을 믿는다는것이 허무맹랑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집안에서 대를 물려온 귀신단지를 박살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어망결에 저질러놓은 일이라 허둥지둥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얼마 안있어 집안식구들이 돌아오겠는데 어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겁이 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외양간뒤에 있는 물거름통이 눈에 띄자 며느리는 이 불길한 흔적이라도 없애버리자는 생각에서 부랴부랴 깨진 단지쪼각들을 주어모아서 그 구정물속에 처넣었습니다.
드디여 집안식구들이 고사리를 한보따리씩 이고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시부모님의 동정만 살피며 불안에 떨고있었습니다.
귀신단지에 치성을 드리려고 뒤뜰안으로 돌아갔던 시어머니가 울상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구,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신주퉁구리가 없어졌수다.》
그러자 온 식구가 그리로 욱 밀려가고 울고불고 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구, 이젠 집안이 망했구나!》
시아버지가 토방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새아가야, 너는 알겠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가슴시원히 다 말해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따지고들었습니다.
《저, 저는 모르겠사와요.》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겨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와락 성을 내며 대통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년, 너밖에 집에 남아있은 사람이 없는데 모르겠다니 말이 되느냐! 바른대로 말해라!》
대통에 얻어맞아 며느리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까짓 귀신단지가 뭐라고 사람을 치면서 이 야단이야요! 흑흑…》
며느리는 손으로 이마를 싸쥐고 엉엉 울면서 울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된장떡을 빚어 이마에 싸매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해주었습니다.
《에구, 얻어맞을짓을 했구만. 하지만 일없어. 무슨 귀신이 있다구 끼니끓일것두 없는 집에서 매일 제를 지내며 그 극성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제 귀신이 없다는걸 깨닫구 데리러 올테니 걱정말아.》
그러나 며느리는 남편이 너무 야속해서 밤새도록 베개잇을 적시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누구도 보지 않는 어뜩새벽에 본가집으로 가버리고말았습니다.
본가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붙안고 함께 울면서 미련하고 덜돼먹은 녀석이라고 사위를 욕했고 아버지는 당장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년, 그게 무슨 놈의 행실이냐! 귀신은 없다쳐도 시부모의 허락도 없이 네년이 그럴수 있느냐! 백번 맞아 싸다. 당장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이구, 분해라. 그까짓 귀신단지가 뭐라구 남의 집 귀한 딸을 이 지경을 만든단 말이우! 당신은 분하지두 않수. 난 시집살이를 못시키면 못시켰지 그런 집으루 못돌려보내겠수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는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본가집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사흘을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송편을 한함지 빚어가지고 사돈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외로 돌아앉아 본체만체 하였고 딸은 흑흑 흐느껴울며 부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모님, 이 우둔한 사위가 분김에 그런것이니 제발 용서하시구 노여움을 푸시오이다.》
사위가 장모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털어놓고 사정했습니다.
《사돈님, 노여움을 푸시우. 아시다싶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의 신주를 모셔오지 않았수.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 큰변이 아니우. 그렇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조금도 탓하지 않게 되였으니 너그럽게 생각해주시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뛰쳐나간 그날밤이였습니다. 이제 귀신이 노하여 천벌을 내릴것이라고, 집안이 영영 망하게 되였다고 모두 잠을 못 이루고 침통한 기색으로 한숨만 풀풀 내쉬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몸을 옹송그리고 쪽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시어머니앞에 형체를 잘 분간할수 없는 조상들의 혼백이 우르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에 못된 새애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집에서 더 못살겠다.》
《여기 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우린 떠나가겠으니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모두 한마디씩 내뱉고는 문밖으로 우르르 밀려나갔습

니다. 슬그머니 쳐다보니 머리가 터진이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이도 있어 허우적허우적, 쩔뚝쩔뚝 모두 병신이 되여 구름너머 저 멀리 하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쪽잠에서 깨여보니 꿈이였다고 합니다.

귀신을 믿으니 꿈에도 귀신인가 봅니다.

모두 깨여나서 꿈풀이를 한다고 또 한번 법석 떠들어댔습니다. 꿈이 하도 괴이해서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어서 액막이를 해야지 큰 불행이 닥쳐올것이라고 벌벌 떨었으며 시아버지와 남편은 혼백이 멀리로 다 달아났으니 좋으면 좋았지 해될게 없다고 허허 웃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좋은 꿈인지 사흘낮사흘밤이 지나도록 무슨 해로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반가운 일만 생기더라는것이였습니다. 밤새도록 몸에 열이 나서 끙끙 앓던 시누이가 씻은듯이 병을 털고 일어났으며 며느리가 제 쌀로 찧어놓았던 좁쌀로 오래간만에 밥을 지어먹었더니 힘이 나서 모두 더 많은 일을 하였다는것입니다.

《허허 장모님, 그러니 그 사람이 집안에 복을 안아들인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지요. 귀신은 무슨 귀신이겠어요. 그저 제풀에 주눅이 들어 그런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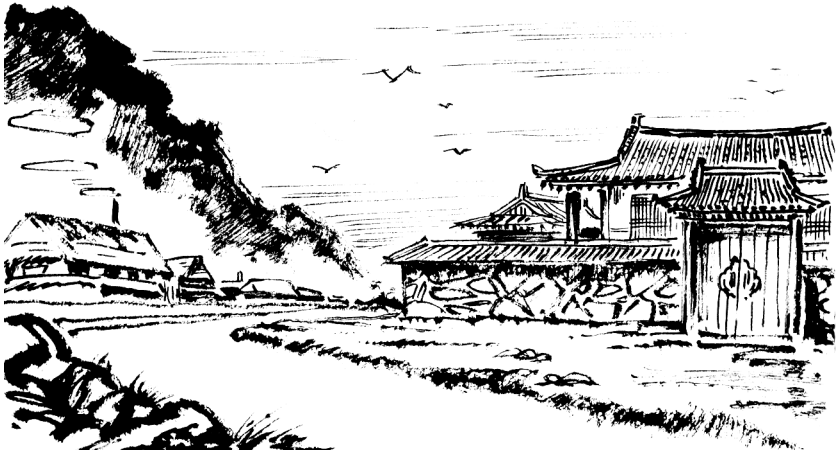
사위가 장모의 손을 잡으며 허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바람에 장모는 호호 웃으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호호, 귀신이 있다면 벌을 내렸지 좋은 일이 생겼겠수.》

시어머니도 따라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수다. 귀신이란게 정말 허황한것이였수.》

부엌으로 뛰쳐나갔던 며느리도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고깝던 마음이 풀려 생글생글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새애기를 데리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그후 귀신단지를 위하던 쌀과 비용으로 시부모공대를 더 잘하였고 시부모는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더 아끼고 사랑해주었다고 합니다.

순박한 농부와 욕심많은 량반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마음씨 무던하고 순박한 농부가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청명을 하루 앞둔 어느날 어머니의 산소를 돌아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안장하면서 눈이 깊이 쌓인 추운 날씨여서 무덤에 떼를 잘 입히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강을 건느게 되여 나루배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세찬 돌개바람이 휙 불어치면서 그의 머리에서 갓을 벗겨 허공중에 휘말아올렸습니다.

낯선 고장이여서 어디서 갓을 마련해야 할지 알수도 없었고 또 맨머리바람으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갈수도 없고 참으로 딱한 일이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그는 주춤거리며 한동안 생각하다가 하는수없이 그

곳 좌상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한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여쭈어 도움을 받아볼가 해서였습니다.
좌상로인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를 어리석은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지도 않고 쫓아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순박한 시골농부이니 그럴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효성이 기특해서 은근히 동정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농부한테서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러 다른 배들과 서로 어기는 순간에 갓을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난 좌상로인의 머리속에는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젊은이들을 불러 그때 옆으로 지나간 배의 주인들이 주막집에 묵고있을테니 데려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이윽하여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배주인 두사람이 퇴돌밑에 꿇어앉았습니다.
좌상로인은 먼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알아본 다음 배가 어기던 때의 일을 꼬치꼬치 캐여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로인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부의 두서없는 말을 듣고보니 자기가 짐작했던바와 다름이 없었던것입니다.
그들은 강웃쪽과 아래쪽에 따로 살고있었지만 요즘 장사길에 나서서 자주 이 마을앞으로 흐르는 강을 오르내리고있었습니다.
《듣자하니 저 농부가 강복판에서 갓을 날려보내는것을 보고도 자네들은 동정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르는척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고?》
로인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 소인들이 서로 배를 어기다가 저 손님의 갓이 바람에 날려가는것을 분명히 보았소이다.》
무슨 큰 죄를 져서 끌려왔을가 하고 가슴조이던 두 장사군은 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였습니다.

허지만 좌상로인의 다음말은 엉뚱하게 울려나왔습니다.

《그만하면 갓을 왜 날려보내게 되였는지 그 까닭이 명백히 밝혀진셈이로다. 저 농부가 갓을 잃은것은 다 자네들탓이니 새갓을 하나 사주어 어서 길을 떠나게 해주어야 하겠노라.》

그렇지 않아도 아무죄없이 불려와 문초를 당하는것이 불쾌했던 그들은 원망이 살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장사군이 얼굴을 붉히며 여쭈었습니다.

《감히 여쭙기는 황송하오나 억울하오이다. 바람이 부는거야 자연의 조화인데 어찌 저희들탓이겠소이까.》

그러자 로인이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앞이라고 주둥이질인고! 그래 네놈들은 배를 몰고다니면서 바람을 두고 뭐 생각하고 원한적이 없단 말인고?》

그 말을 듣고보니 그들에게는 아닌게아니라 마음속에 켕기는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란적이 얼마이며 바람새 사나운 날바다에서 순풍이 불게 해달라고 바다신에게 손을 싹싹 비비며 제사를 지낸적이 어디 한두번이겠습니까.

좌상로인이 어떻게 배를 타고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생각까지 다 알고있는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은근히 겁이 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농부는 농부대로 마음이 불안스러웠습니다.

공연히 자기때문에 일이 점점 난처해지고있는것을 보고 송구스러워서 몸둘바를 몰라했습니다.

좌상로인은 농부가 몹시 딱해하는것을 보고 이 순박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갑절이나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눈짓으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나서 장사군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어서 바른대로 대지 못할고!》

장사군들은 좌상로인이 자기들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보는것 같아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리를 따지며 더 생각해볼 경황이 못되였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고개를 수그리고 낮추 빌붙는게 땅수라는것을 장사길에서 웃사람들과 맞다들면서 깊이 깨달은 그들이였습니다.

《예예, 소인은 장사를 떠날 때 그저 배길이 편하도록 제발 동풍이 불게 해주십사 하고 옥황님께 빌었소이다.》

강웃쪽에 사는 장사군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소인도 서풍이 불어주었으면 좋겠소이다 하고 빌… 빌었소이다.》

강아래편에 사는 장사군도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거리며 고하였습니다.

《그것 봐라. 아무리 공명정대한 옥황상제인들 너희들의 엇갈리는 소원을 어떻게 다 풀어줄텐고.

그러니 동풍을 불게 할가, 서풍을 불게 할가 망설이다가 두가지 소원을 다 풀어주기로 한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 동풍과 서풍이 마주쳐서 돌개바람이 일어날수밖에 없느니라. 이래도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고?》

장사군들은 그 사리정연한 분석과 판단에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를 조아릴뿐이였습니다. 또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다가는 더 크게 걸려들것 같아서 어머니산소에 가는 농부에게 새갓을 사주겠노라고 다짐하고 그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여 마음이 순박한 농부는 새갓을 쓰고 산소에 가게 되였으며 이 소문은 퍼지고퍼져서 이웃마을에 사는 한 지주량반의 귀에까지 흘러들게 되였습니다. 그는 권세높고 돈이 많은 대부호이건만 린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공짜라면 양재물도 꿀꺽꿀꺽 떠마실 그런 추물이였습니다.

그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이통에 새갓을 공짜로 하나 장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날 헐어서 쓰지 못하고 구석에 내

던졌던 갓의 먼지를 털어 쓰고 나루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나루배에 올라 강을 건느다가 다른 배들과 어기는 순간에 헌 갓을 우정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맨머리바람으로 그 좌상로인을 찾아가서 바람에 날려간 갓을 찾아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그의 상소를 자세히 다 듣고난 로인은 그의 음흉한 검은 속심과 간사스러운 언행이 얄미워서 량반이지만 단마디로 거절하고 볼기를 쳐서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가난한 농부들의 피땀을 짜서 제 배를 채운다는 이 지주량반의 못된 버릇을 뚝 떼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꾹 참았습니다.

《허허, 근래에 와서 돌개바람에 의관을 잃고 찾아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지는고? 괴이한 일이로다. 하여간 우리 마을앞의 강에서 생긴 일이니 나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수다. 새갓을 마련해줄테니 념려말고 집에 돌아가서 사흘동안만 기다리도록 하우.》

좌상로인은 지주량반을 보내고나서 한 갓쟁이를 불러 이리이리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날저녁에 갓쟁이가 집에 찾아와서 량반의 머리치수를 적어갔습니다.

《옳지. 벌써 새갓을 만드느라고 머리를 재여가는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좌상로인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이 지주량반은 새갓을 또하나 공짜로 장만하게 되였다고 기분이 들떠서 무릎장단을 치며 코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글쎄 사흘만에 다시 찾아온 갓쟁이는 떡시루만치나 큰 갓을 붙안고 방안에 들어서는게 아니겠습니까.

갓쟁이가 앞에 가져다놓은 갓을 살펴보니 그것은 찰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옹기갓이 아니겠습니까.

량옆의 가녁에는 끈을 꿰여 조여맬수 있게 구멍까지 뚫려있었습니다.

갓이라면 의례히 가는 말총오리들을 엮어서 만들기마련인데 옹기갓을 가져다놓았으니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영문을 알수 없어 량반은 얼굴이 대번에 시퍼래지면서 갓쟁이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

니다.

《이놈! 네놈이 량반을 어떻게 보고 희롱질을 하려드는거야! 이것도 갓이라고 만들어왔느냐!》

이때 방문이 열리며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좌상로인이 방안에 들어섰습니다.

로인은 입가에 알릴듯말듯 얄궂은 웃음을 지으며 젊은이들에게 분부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무척 기다리신것 같은데 어서 갓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씌워보도록 해라.

그만하면 바람에 다시 날려갈 념려는 없을것 같구나.》

그러자 젊은이들이 옹기갓을 맞들어다 량반의 머리우에 씌워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꼴불견이였습니다.

어찌나 무겁고 투박한지 관자노리가 으스러지는듯 쓰려나고 목이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 량반은 오만상을 찌프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 너》 하면서 손을 내흔들었습니다.

그 꼴을 바라보고 서있던 좌상로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우? 다시 바람에 날려갈가봐 걱정돼서 그러우? 얘들아, 옹기갓이 돼서 묵직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을줄 알았는데 량반님께서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니 갓끈을 바짝 조여매드려라!》

그러자 젊은이들이 옹기갓끈을 구멍에 꿰여 량반의 턱에 걸고 맞당겨 바싹 조여맸습니다.

굳은 옹기갓이 머리를 지지누르고 갓끈이 턱에 조여드는 바람에 량반은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지르며 두손으로 옹기갓을 벗어던지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좌상로인은 그러거나말거나 모르는체 하고 젊은이들에게 또 분부했습니다.

《이 량반어른이 아직도 미심쩍어하시는것 같은데 귀밑에 굵직한 대못을 하나씩 박아 갓이 드놀지 않도록 고정시켜드리는게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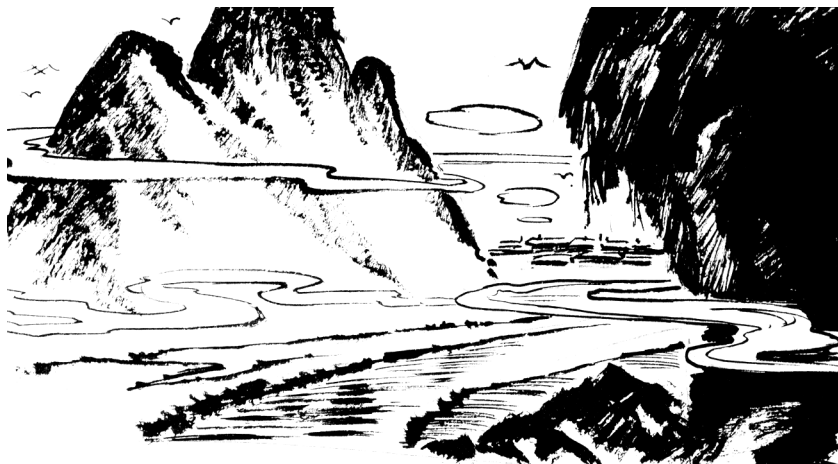
을듯 하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대못과 망치를 집어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주량반은 너무 다급해서 옹기갓을 쓴채로 로인의 발밑으로 벌벌 기여들어 제발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좌상로인은 그 량반의 머리에서 옹기갓을 벗겨주면서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니 됐수다. 이 옹기갓을 버리지 말고 당반에 얹어놓수다.

그 못된 욕심이 꿈틀꿈틀 머리를 들 때마다 그걸 쳐다보도록 하우.》

그리하여 지주량반은 이날 어찌나 땀을 빼고 혼쌀이 났던지 그 후부터는 갓을 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다잡았으며 당반우에 있는 옹기갓을 쳐다보며 함부로 헛된 욕심을 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퉁이와 재토끼

먼 옛날이였습니다.

어느곳에 재퉁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황부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아침저녁 소여물을 끓이고 부엌구석에서 잠을 자기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얼룩얼룩 재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라는 그를 재퉁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황부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욕심쟁이이며 깍쟁이였습니다.

광마다 쌀이 넘쳐나고 농짝마다 금은보석과 비단이 가득가득 쌓여있지만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재퉁이를 악착스럽게 부려먹었습니다.

첫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물을 길어오라, 여물을 끓여라 들볶기 시작하고 마당을 쓸어라, 소를 먹여라, 꼴을 베오라 하고 날이 저물어 캄캄해질 때까지 쉴새없이 부려먹고도 더 부려먹지 못해 안

달이 나했습니다.

저희들은 매끼 흰쌀밥에 떡과 고기를 배가 터지게 처먹으면서도 남은 밥 한덩이가 아까와서 재퉁이한테는 누룽지만 던져주었습니다.

불쌍한 재퉁이는 그 누룽지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부엌구석의 나무단속에 숨어서 사는 재토끼가 끼니때마다 기여나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재퉁이는 배가 고프다고 누룽지를 저혼자만 먹을수 없었습니다.

《재토끼야 너도 배고프지. 어서 먹으라.》

재퉁이는 누룽지를 절반 나누어주었습니다.

《재퉁아, 정말 고맙다. 이 신세를 언제 갚겠니.》

재토끼는 누룽지를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세는 무슨 신세…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아니야,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일생동안 갚아도 나는 너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해.》

사실 재토끼는 깊은 산속에서 살다가 사냥을 나온 황부자의 화살에 맞고 잡혀온것을 재퉁이가 자기가 사는 부엌구석의 나무단속에 숨겨주고 남몰래 치료해주어서 다시 살아난 몸이였습니다.

《넌 또 그 소리냐. 난 굶어도 헐벗어도 너만 곁에 있으면 더 바랄게 없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

그러나 세월이 흘러 상처가 다 낫고 몸이 튼튼해진 재토끼는 기다리는 산속의 토끼형제들한테로 돌아간지도 오랬고 재퉁이도 어느덧 름름한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루도 서로 잊은적이 없었고 반갑게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해 한가위날이였습니다.

온 마을이 송편을 빚어 나누어먹으며 명절의 하루를 즐기는데 황부자는 재퉁이한테 검정소를 내주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하던 재퉁이는 북소리, 꽹과리소리 흥겹게 울려오는 실

버들 휘늘어진 시내가 잔디언덕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버드나무그늘밑에서는 울긋불긋 고운 옷으로 단장한 마을처녀들이 그네를 뛰고 시내가의 모래불에서는 상씨름(결승 또는 큰 씨름)이 한창이였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처럼 마음껏 뛰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속이 울적해지면서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때 재토끼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재퉁이는 도끼를 발밑에 집어던지고 그자리에 주저앉아 담배만 뻑뻑 빨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가는것을 보고서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무를 못했다고 욕을 먹고 매맞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집어들던 재퉁이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누가 해놓았는지 나무가 발구에 가득 실려있었던것입니다.

재퉁이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생각해보았지만 어느 고마운분이 그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좌우간 실어가고보자.》

재퉁이는 검정소한테 발구를 메워가지고 산밑으로 끌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단밑에서 무엇인지 부스럭부스럭하더니 이런 말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재퉁아, 고생만 하지 말구 그 집에 장가를 들려무나.》

《뭐, 뭐라구?》

재퉁이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여서 발구를 멈춰세우고 나무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무잎을 헤치고 재토끼가 기여나왔습니다.

《나야, 나 두귀 발쭉 재토끼란 말야!》

《아니, 재토끼야, 네가 어떻게?》

《우린 얼마전에 네가 보고싶어 이 산으로 이사왔단다. 그런데 네가 나무를 하러 오지 않았겠니. 그래서…》

《응, 너희들이 나무를 했구나. 그런걸 난…》

《네가 명절날에도 놀지 못하고 고생하는걸 가만히 보고있을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다 떨쳐나서 나무를 해놓았단다.》

그 말을 듣고 살펴보니 정말 나무그루에 토끼의 이발자리들이 나있었습니다. 이 많은 나무가지들을 자기를 생각해서 이발로 물어끊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야, 정말 고마와.》

《그런 소리 듣자고 그런게 아니야. 그런데 넌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겠니. 난 잘살지만 네가 머슴노릇하며 고생하는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너 그 집 막내딸하구 친하지 않니. 그래서 그 집 사위가 되라는거야.》

재토끼가 재퉁이를 꼬드겨댔습니다.

정말 황부자네 막내딸은 재퉁이하구 친했습니다.

그는 재퉁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딸기도 따다주고 풀각시도 만들어주기때문에 무척 고마와했으며 마음씨곱고 부지런한 그를 좋아했습니다.

막내딸은 황부자가 모르게 재퉁이한테 떡도 훔쳐다주고 해진 옷도 기워주면서 무척 살뜰하게 굴었습니다. 재퉁이도 그런 막내딸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황부자가 자기처럼 가난한 머슴군총각한테 딸을 줄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퉁이는 머리를 가로흔들었습니다.

《얘,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어.》

《흥,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어. 넌 그저 내가 시키는대로만 해라.》

재토끼는 재퉁이의 어깨우에 뛰여올라 귀에 대고 또 뭐라고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재퉁이는 귀가 벌쭉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부자의 형한테서 기별이 왔습니다.

환갑잔치를 하겠으니 온 가족을 다 데리고와서 함께 즐기자는것이였습니다.

어느 고을의 원노릇을 하는 형이니 환갑잔치를 잘 차릴것이라고 하면서 황부자는 며칠전부터 잔치에 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고… 재퉁이는 허리를 펼 짬도 없이 들볶이였건만 고기 한점, 떡 한쪼각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식구들이 좋은 비단천을 끊어다 새옷을 지어입었지만 재퉁이는 토스레옷을 걸치고 부엌구석에서 자야 했습니다.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해주고도 천대만 받는것이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때 발자국소리가 자박자박 나더니 이 집 막내딸이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막내딸은 무엇인지 치마자락속에 감춰가지고온것을 재퉁이한테 꺼내주었습니다.

《어서 먹어. 너 배고프겠구나.》

재퉁이가 베보자기에 싼것을 헤쳐보니 구운 소고기였습니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막내딸이 고마왔습니다.

《넌 좋겠구나. 큰아버지 환갑잔치에 가니…》

막내딸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난 안갈래. 난 재퉁이와 함께 있는게 더 좋아.》

《안가면 아버지가 야단치겠는데두…》

《나도 다 알아. 재토끼가 가는체 하다가 슬쩍 빠져나오라구 했어.》

《너 조심해야 돼. 들키면 야단이야.》

《나도 다 알아. 걱정말라는데두…》

재퉁이와 막내딸은 누가 부엌으로 나오는것 같아서 재빨리 헤여지고말았습니다.

드디여 큰집 환갑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퉁이는 견마잡이가 되여 황부자네 가족을 마차에 태워다주었습니다.
막내딸만 마차를 타고가다가 도중에 슬그머니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퉁이가 황부자네 가족들을 태워다주고 돌아오니 재토끼가 막내딸과 함께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재토끼는 자기가 데리고온 토끼동무들과 함께 말잔등으로 기여올라갔다내려왔다 하면서 입에 문 솥으로 말몸뚱이에 검뎅이칠을 하였습니다.
막내딸은 재토끼가 시키는대로 재퉁이의 몸치장을 해주었습니다.
시내가로 데리고나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재토끼가 물어온 멋진 비단옷을 입히고 관까지 척 씌워주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그렇게 차리고나서니 세상에 그렇게 멀끔하게 잘생긴 미남자는 어디에도 없을것 같았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에 환한 얼굴과 시원하게 트인 이마, 어글어글한 맑은 눈동자…
원래 남자답게 잘 생겼다고는 생각해왔지만 재퉁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줄은 막내딸도 미처 몰랐습니다.
몸치장이 끝나자 재토끼는 재퉁이보고 어서 말우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무들과 함께 팔딱팔딱 재주넘이를 몇번 하더니 모두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재토끼는 견마잡이가 되고 다른 토끼들은 북과 꽹과리, 새납을 든 악공과 오색기발을 추켜든 기대잡이가 되였습니다.
그러자 재토끼가 품속에서 옥피리를 꺼내서 재퉁이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젠 풍악을 울리며 길을 떠나보세나. 이랴!》
견마잡이가 채찍을 휘두르자 재퉁이가 피리를 불며 말을 타고 앞장에 서서 호기있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뒤로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과 오색기발을 든 기대잡이들이 줄레줄레 따라섰습니다.

구성진 피리소리가 맑은 하늘가로 울려퍼지자 그들의 머리우에 오색령롱한 채색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고 길가에는 고운 꽃들이 방실방실 피여났습니다.

일행의 앞으로 나선 견마잡이가 채찍을 내두르면서 길손들을 단속했습니다.

《하늘의 신선님 내려오셨노라! 물러께라 치께라!》

지나가던 길손들은 깜짝 놀라서 길가에 꿇어엎드리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일손을 놓고 황홀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멋진 신선의 행렬이였습니다.

신선행렬이 황부자의 형이 원노릇을 하는 고을의 동헌앞에 당도하자 견마잡이가 호기있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고을 원 대령하라! 옥황님의 령을 받들고 하강하신 신선님행렬 듭신다!》

그러자 이 고을의 아전, 사령들이 대문밖으로 달려나와 두줄로 꿇어엎드리고 그가운데 난 길로 환갑잔치에 모여들었던 문무관료들을 거느리고 원이 달려나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귀하신 옥체 이 한미한 고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왕림하시니 황공하오이다.》

원이 신선차림을 하고나선 재퉁이를 정중히 맞아들여 대청의 제일 높은 상좌에 모시고 진수성찬을 차려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퉁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하게 꾸짖어댔습니다.

《변고로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에 떨고있는데 주지육림(술이 늪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을 질벅하게 펼쳐놓았으니 이 어이 망녕된 행실인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생업을 보살펴야 할 소임을 맡은 원이 너무 방자하도다.》

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재퉁이는 재토끼가 가르쳐준대로 계속 호령했습니다.

《원은 듣거라! 전지전능하신 옥황님께서는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신하 신선 한분을 신칙하기 위하야 어느 고을 황부자네 집으로 일시 귀양살이를 내려보내시였노라. 그런데 잘 도와주고 보

살펴줄 대신 재퉁이라 천시한다니 심히 불쾌하도다.
황부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이자리에서 볼기를 쳐서 엄히 징계하고 이 환갑잔치가 끝나는 즉시 그 신선에게 막내딸을 내주어 사위를 삼도록 할지어다. 조금이라도 불복하는 기색이 나타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하리로다.》
원은 꿇어엎드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예이》 하고는 뒤로 벌벌 뒤걸음쳐 물러났습니다.
그는 신선의 불호령인지라 할수없이 제 동생의 바지를 벗기고 볼기를 치게 하였으며 황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재퉁이를 막내사위로 맞아들이는 혼례식을 성대히 치르라고 분부했습니다.
신선행렬은 풍악을 울리면서 동헌에서 나와 오색구름 령롱하게 피여오르는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황부자보다 한발 앞서 집에 돌아온 재퉁이는 토스레옷을 갈아입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부자는 재퉁이가 일을 못하게 하였으며 제일 좋은 방에 모시고 막내딸이 직접 그의 생활을 불편없이 잘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차 그들의 결혼잔치를 잘 차려주었습니다. 또다시 신선이 내려와 엄벌을 내릴가봐 무서웠던것입니다. 그렇지만 쌀과 재물이 고간마다 차고넘쳐 썩어나고있는데도 너무 아까와서 갈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퉁이는 그런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처럼 구슬땀을 흘리면서 제손으로 농사도 하고 살림살이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날 나무를 하려 산에 올라갔던 재퉁이는 이미 낯을 익힌 그 토끼동무들을 만났습니다. 토끼들은 몹시 반가와하면서 토끼나라 왕궁에 가서 하루 쉬면서 회포를 나누자고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 토끼나라의 왕이 꼭 데려오라고 자기들을 여기로 보냈다는것이였습니다.
(토끼나라 왕이 나를 어떻게 알고 데려오라고 했을가?)
재퉁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끼동무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나라의 으리으리한 땅속궁전에 들어서니 재토끼가 마

중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린시절에 누룽지를 나누어먹었고 얼마전에는 황부자네 막내딸과 한가정을 이루게 힘껏 도와준 재토끼가 바로 토끼나라의 왕이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재퉁이는 땅속궁전에서 재토끼와 며칠동안 함께 지내면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난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친근하게 살아갈 일을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퉁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토끼나라의 땅속엔 흔한것이 금은보화라고 하면서 값진 보물을 말잔등에 한바리 잔뜩 실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퉁이는 그 보물을 가난한 마을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것을 팔아서 종이와 먹, 붓을 사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였다고 합니다.

숯쟁이와 임금

먼 옛날 어느곳에 한 농사군령감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일찌기 로친네를 여의고 세 딸을 데리고살았습니다.

맏딸과 둘째딸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너무도 응석을 받아주며 고이 키웠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홀아비가 된 아버지의 덕을 입으며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낳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대신 집안일을 어려서부터 제손으로 해버릇했기때문에 자립성이 무척 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들은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앉아 기다렸지만 막내는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팔을 걷고 나서군 하였습니다.

어느해 아버지의 생일날이였습니다. 막내딸이 아글타글 뛰여다니며 애쓴 보람이 있어 없는 살림이지만 아버지의 생일상을 남부럽지 않게 차려드릴수 있었습니다.

생일상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의 눈앞에는 로친네를 일찍 여의고 어린 딸들을 키우느라 고생스럽던 나날들이 어제일인듯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 자란 딸들을 대견스럽게 둘러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누구덕에 이만큼이나마 산다고 생각하느냐?》

맏딸과 둘째딸은 별생각없이 저희들이 늘 품고있던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덕이지요 뭐. 저희들이 아버지덕을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손에 자라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더 잘 모시지 못한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다 자란 지금까지도 늙으신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려고 하니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언니들, 아버지덕에 살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오이다. 제손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하지요.》

나이가 들면 노염이 많아진다고 아버지는 막내딸의 속깊은 생각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노엽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모르게 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래 네년은 제 잘난 덕에 살아왔다는거냐! 에익 고약한 년, 그러겠으면 집에서 썩 나가!》

급해난 막내딸은 그런게 아니라고 했지만 성이 난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쫓았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이 싸주는 좁쌀 몇되박을 받아들고 집에서 쫓겨나고말았습니다.

몸을 의지하고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이던 막내딸은 어느날 저녁 외진 산기슭에 있는 숯구이막앞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을 찾았더니 얼굴과 온몸에 숯검댕이칠을 한 떠꺼머리총각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가던 소녀 하루밤 쉬여가게 해주시오이다.》

막내는 수집음을 무릅쓰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청하였습니다.

《좀 내려가면 마을이 있소. 여긴 아가씨가 쉬여갈만한 곳이 못

되우.》

숯쟁이총각은 무뚝뚝하게 한마디 내던지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처녀는 한동안 그자리에 오도카니 서서 망설이다가 문앞으로 다가서며 다시한번 사정했습니다.

《캄캄한 산속의 밤이라 무서워서 더 가지 못하겠소이다. 토방에서라도 하루밤 자고가게 해주시오이다.》

그러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방이 어지럽다구 흉보지 마시우.》

총각은 방을 내주고 자기는 밖에 무져놓은 새초더미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처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니들이 꾸려준 좁쌀로 밥을 지어 총각한테 대접하고나서 다시한번 사정하였습니다.

《먼길에 발이 부르터서 그러니 하루밤만 더 묵어가게 해주시오이다.》

《허허, 싫지 않으면 그러구려.》

총각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고는 도끼를 둘러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숲속에서 쩡쩡 나무를 찍는 도끼질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처녀는 좁쌀을 일어 솥에 안치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구수한 토장국도 끓이고 향기로운 산나물채도 무쳐놓았습니다. 차비가 다되자 처녀는 음식을 종달바구니에 담아이고 총각이 올라간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숲속으로 오불꼬불 뻗어올라간 오솔길을 한동안 톺아오르니 돌과 흙으로 쌓아올린 숯가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보이지 않고 뜬김이 서려오르는 숯가마곁에는 나무토막과 숯섬들만 무져있었습니다.

쩡쩡 울리는 도끼질소리가 나는쪽으로 발볌발볌 숲속을 헤쳐나갔더니 총각의 름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밋거밋 볕에 탄 어깨와 잔등이 땀에 젖어 번질번질 구리빛으로 빛나는데 울뚝불뚝 힘살이 내뻗친 무쇠갈은 팔뚝을 휘둘러 도끼로 쩡쩡 아름드리나무를 찍어대고있었습니다. 힘과 열정이 넘쳐나는 그 모습은 정말 미더워보였고 더없이 장해보였습니다.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정겨운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어서 일손을 놓으시고 점심을 드시오이다.》

《응?》

총각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녀의 고운 눈길에 부딪쳐 어쩔줄을 몰라하더니 점심그릇들을 챙겨놓는것을 보고서야 그의 지성에 감동되였는지 차차 검붉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올랐습니다.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더운 밥과 구수한 토장국이며 정성껏 무쳐놓은 산나물채를 둘러보느라니 자기를 극진히 위해주던 돌아가신 어머니생각까지 겹쳐들어 목이 메여 수저를 들수 없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밥이 다 식겠소이다.》

처녀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 나딩구는 돌멩이처럼 이리채이고 저리채이면서 온갖 수모와 천대를 다 받아오던 자기를 그 누구도 이렇게 살뜰히 대해준적은 없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총각의 눈귀에는 맑은것이 고여올랐습니다.

《이거, 정말 고맙소이다.》

어서 많이 들라고 하면서 찬그릇을 앞으로 옮겨주던 처녀가 숯가마쪽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황금덩이가 아니예요?》

숯가마에 쌓아올린 돌멩이 하나가 번쩍번쩍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었던것입니다. 총각은 수저를 들고 처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뭐길래 그리 놀라우?》

총각은 두메산골에 파묻혀 숯이나 구우며 외롭게 살다나니 황금이 무엇인지 몰랐던것입니다.

《이건 황금이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오이다. 량반집 귀부인들은 이것으로 반지나 노리개같은걸 만들어서 온몸을 빛나게 장식하나이다. 보기 드문 보물이여서 장거리에 나가면 부르는게 값이오이다.》

《허허, 참 모를 일이군. 이런 막돌이 그런 귀한 보물이란 말이우?》
총각은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렇구말구요. 이것만 장거리에 내다 팔아도 숯을 굽지 않고 얼마든지 잘살수 있소이다.》
처녀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이것으로 고생하며 어렵게 사는 이 마음씨 어질고 순박한 총각을 잘살게 해줄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였습니다.
처녀는 황금덩이를 잘 닦아서 보자기에 싸놓았다가 총각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장거리에 가지고 나가시오이다. 그러면 많은 쌀과 천을 말파리에 가득가득 실어줄것이옵니다.》
총각은 그게 무슨 얼빠진 놀음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처녀가 진정으로 권하니 마지못해 읍장거리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자기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량반네들이 저저마다 쌀과 천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이런것이 있으면 꼭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전에 없던 친절을 베풀어 식사대접까지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외진 숯구이막에서는 두 젊은이가 난생처음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서로 권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처녀는 저녁상을 물리고나서 제일 좋은 비단천으로 총각의 새옷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숯을 굽지 않아도 잘살게 되였소이다.》
총각은 눈이 휘둥그래서 처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우?! 그런 누런 돌덩이는 저 골안막바지에 얼마든지 있수. 그렇지만 나는 숯을 구우며 살겠수다. 오륙을 놀려야 밥맛도 있고 사는 재미도 있는거라우.》
처녀는 무척 기뻤습니다.
《옳은 말씀이예요. 사람은 일을 해서 제힘으로 살아나가야 떳떳하고 사는 보람도 크옵니다.》
처녀는 그러면서 숯을 굽는것만 일이 아니라는것과 아는것이 많

아야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큰일을 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총각은 깊은 골안에 묻혀 살아서 본것, 들은것은 없지만 원래 머리가 총명하고 촉기가 빠른 젊은이여서 그 말뜻을 인차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이튿날 두 젊은이가 골안막바지로 올라가서 칡넝쿨이 뒤엉킨 바위를 파헤치니 많은 황금덩이가 땅속에 묻혀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파내여 고을 장거리로 실어내갔습니다. 금덩이들은 후한 값으로 제꺽 다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집도 덩실하게 짓고 소와 말을 장만하여 빈땅을 갈아엎고 농사일도 크게 벌려나갔습니다. 두 젊은이가 뜻이 맞아 손을 맞잡고 일하니 일도 무척 흥겨웠고 농사도 잘되였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뜨거운 정이 오가고 사랑이 무르익어 두 젊은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깨가 쏟아지도록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어느날 안해가 털가죽을 이겨서 정성껏 지은 등거리와 새 명주옷 한벌을 앞에 내놓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집걱정 마시구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으시오이다. 거기에 이름난 도사할아버지가 계신다는데 그 슬하에서 학문도 익히고 무술도 닦으시오이다.》

《알겠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소. 차마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떠날수가 없어서 망설이던중이요.》

남편은 이렇게 선선히 응해나섰지만 막상 집을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진 산중에서 숯을 구우며 외롭게 지내다가 아름답고 현숙한 녀인을 안해로 맞아 한창 재미나게 살게 되였으니 어찌 쉽게 발길을 돌릴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 더 큰일을 하기 위해 안해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걸음마다 안해의 정다운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고 그리움이 가슴속에 차고넘쳐 자꾸만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다보게 되였습니다.

사랑하는 랑군님을 먼길로 떠나보내는 안해의 가슴도 알찌근

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길을 축내지 못하고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못해 집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백로지를 펴놓고 재빨리 붓을 놀려 거울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장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가슴에 품으시오이다. 제가 보고싶을 때마다 꺼내보시오이다. 저는 큰뜻을 이루고 돌아오시기만 손꼽아 기다리겠소이다.》

남편은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서야 길을 재촉할수 있었습니다.

산중의 도사를 찾아가서 도를 닦으면서도 안해가 그리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글을 읽다가도 안해생각이 간절하면 그 그림을 꺼내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고 무술훈련의 쉴참에도 땀을 들이면서 남몰래 슬그머니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면 안해의 정다운 모습에서 새힘을 얻게 되였고 꼭 큰뜻을 이루고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하던 그 고운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오는듯 하여 더욱 용기백배하여 떨쳐일어날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장검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큰 강을 날아넘는 어려운 훈련을 하다가 강기슭의 너럭바위우에서 쉬게 되였습니다. 그는 안해의 정다운 모습이 그려진 그 그림을 꺼내보면서 저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한해만 더 기다려주오. 당신을 그리는 마음 한량없지만 내 그날까지 꾹 참고 기어이 훌륭한 장수가 되여 돌아가겠소.》

그가 안해와 만나게 될 그 기쁨의 순간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저혼자 싱글싱글 웃고있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일어나면서 휙하고 그 그림을 손에서 빼앗아 하늘높이 휘말아올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후닥닥 뛰쳐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바람에 휘말려돌아가는 가랑잎들이 허공중에 새까맣게 떠돌아 어느것이 그 그림인지 도무지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돌개바람이 휘몰아쳐가는 곳으로 두팔을 허우적거리며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어디서도 그 화상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허둥지둥 돌아다녔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할수 없지. 삼년석달을 참고 견뎌냈는데 화상이 없다고 이제 일년을 못견뎌내겠는가. 내 기어이 성공하고 돌아가리라!》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안해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털가죽등거리를 소중히 쓸어만졌습니다.

한편 돌개바람이 휘말아올린 그 그림은 여기저기로 날아돌아가다가 공교롭게도 임금이 사냥놀이를 하고있는 숲속공지에 떨어져내렸습니다.

때마침 화살을 날리며 사슴을 뒤쫓고있던 한 장수가 그 화상을 주어들게 되였습니다. 장수는 그 화상이 세상 처음 보는 미인이여서 색을 좋아하는 임금한테 가져다바쳤습니다. 임금은 두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릿다운 녀인이 있었단 말인고!》

나라안의 인물잘난 녀인들을 샅샅이 다 골라내여 궁성안에 3천궁녀를 채워놓고 부화방탕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임금이지만 아직 이렇게 고운 녀인은 보지 못하였던것입니다. 임금은 대번에 마음이 끌려 그를 기어이 찾아내여 왕후로 들여앉힐 꿍꿍이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사냥놀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왕궁으로 돌아가 문무백관을 모여놓고 언명했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짐에게 베풀어준 천하에 둘도 없는 큰 은총이로다. 그러니 경들은 하늘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녀인을 기어이 찾아내여 하늘의 뜻을 받들도록 할지어다.》

《예이, 상감마마의 어명을 충정으로 받들겠소이다.》

문무백관들이 모두 임금의 발밑에 꿇어엎드려 그 녀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다짐하고 헤여져갔습니다. 그 시각부터 궁성이 자리잡은 서울장안은 물론 온 나라에서 그 녀인을 찾는 복닥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화서의 화공들이 다 궁성에 끌려나와서 그 녀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지켜서있다가 얼굴을 그려내는 족족 한장씩 나누어가지고 온 나라 각지로 말을 몰아 달려갔습니다.

창칼을 비껴든 군사들과 륙모방망이를 꼬나든 사령, 라졸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발칵 뒤지며 돌아쳤습니다. 번잡한 도회지의 골목골목을 살살이 뒤진것은 물론 인적없는 산간오지의 골안막바지까지 참빗질하듯 훑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만에야 그 녀인을 찾아냈습니다.

임금은 그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자기의 화려한 황금마차까지 내주면서 그 녀인의 솜털 한오리 상하지 않게 모셔오라고 대감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대감은 마차를 10리밖에 세워놓고 모두 단잠에 곯아떨어진 새벽녘에 그 집에 달려들어 쥐도새도 모르게 그 녀인을 업어내왔습니다.

왕궁으로 끌려온 그 녀인은 정말 세상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녀인이였습니다. 임금은 아릿다운 자태를 지켜보면서 느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임금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녀인앞에 마주앉아 온갖 추파를 다 던지며 그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녀인은 입을 꾹 봉한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침해서 도사리고앉아있는 그의 얼굴에서는 한줄기의 웃음기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어명으로 3천궁녀가 다 떨쳐나서서 그 녀인에게 아양을 떨며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서 갈아입으시라고 아침저녁으로 화려한 꽃무늬의 비단옷을 받쳐올려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구미를 돋구어보라고 때없이 자꾸만 지어올리는 별의별 진수성찬도 하나 들념을 안했습니다.

임금은 등이 달아서 이 세상 달콤한 소리는 다 골라가며 살살 얼려도 보고 유혹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이 독같이 난 임금이 체면을 다 잃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어도, 몸서리치는 극형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해도 눈섭 한오리 까딱안하고 그린듯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녀인의 숯쟁이남편은 도를 마저 다 닦고 름름한 장부가 되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해를 만나게 된 기쁨이 하도 커서 수백리길을 말을 몰아 단숨에 달려왔건만 그를 맞아준것은 썰렁한 바람이 부는 문짝 떨어진 텅 빈 집뿐이였습니다. 말에서 뛰여내린 남편이 집안팎을 발칵 뒤지며 찾아 헤맸지만 안

해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외진 골안에서 한밤중에 누구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안해의 행처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해를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안찾아간 곳이 없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렇게 달이 기울고 해가 저물다나니 로자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해져서 거지신세가 되였지만 그는 안해 찾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다니던 말까지 다 팔아먹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여 끼니를 번지는 때도 많았지만 기다리고있을 안해를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찾아 떠나군 하였습니다. 어느 들판의 짚무지속에서 쪽잠에 들었다가도 안해가 지어준 털가죽등거리에서 따뜻한 안해의 손길을 느끼며 벌떡 소스라쳐 일어나군 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안해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있을 때 이 나라의 임금도 속이 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녀인한테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정신이 팔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확실했습니다. 해진 옷에 쪽박을 찬 거지들이 궁성밖으로 지나갈 때면 아무데도 관심이 없던 그 녀인이 두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살피군 하였던것입니다. 그럴 때면 그 녀인의 랭랭하던 얼굴에 한줄기 웃음이 피여나는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치며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명해! 왜 그러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려던 임금은 다시 멈춰서서 주춤거렸습니다. 자기가 말을 시켜도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그 녀인의 쌀쌀한 얼굴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던것입니다. 그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속을 썩이던 임금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궁을 불러 잠든 궁녀들을 다 깨워 대청에 모여놓으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단꿈을 꾸다가 재밤중에 대청으로 끌려나온 궁녀들은 선하품을 하면서 웬 영문인지 몰라 상궁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여 임금이 룡포자락을 퍼덕이며 그들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과인은 요즘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노라. 헌

데 너희들은 굳잠에 들어 단꿈만 꾸고있으니 이게 될말인고! 그래 마음들이 편하더냐? 제발 너희들이라도 과인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줄수 없을고?》

그러자 꿇어엎드려있는 궁녀들속에서 상궁이 한무릎 나앉으며 궁녀들을 대변하여 아뢰였습니다.

《상감마마를 한몸 다 바쳐 받들어모심은 우리 궁녀들의 본분이옵고 더없는 영광이오니 어서 분부만 내려주옵소소.》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음, 고맙도다. 그럼 이 시각부터 너희들은 밤낮 저 녀인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착 붙어있어야 하겠노라. 그런데 될수록 더 가까이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 녀인이 속마음을 터놓도록 해보아라. 이 일에서 성공만 한다면 과인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들을 더 귀하게 써줄것이며 큰 상을 내리겠노라.》

궁녀들은 감지덕지하여 일제히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꼭 그리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숱한 궁녀들이 그 녀인의 곁에서 침식을 같이하며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고 임금한테 아뢰게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없는 녀인앞에서 서성거리며 하루해를 지우자니 서먹서먹하고 무척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같이 지내면서 사귀고보니 누구나 다 천한 집안에서 태여나 가난하게 자라온 몸이라 인차 마음이 통하였으며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여버렸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있던 임금은 일이 잘되여간다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시켜 거지들이 녀인이 앉아있는 궁전의 뒤창문밖으로 떼를 지어 지나가도록 해놓고 눈이 빠지게 지켜보았습니다.

거지들이 눈앞에 나타나니 정말 그 녀인의 얼굴에 알지 못할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옷을 너풀거리며 지나가는 거지를 창밖으로 정신없이 바라보는 녀인의 얼굴에는 그 어

떤 추억에 잠긴듯한 숙연한 빛이 어리는가 하면 고향의 옛 소꿉친구를 만났을 때와 같은 순진하고 깨끗한 미소가 어리기도 했습니다.

궁녀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아이 참, 언닌 별나요. 거지만 나타나면 얼굴이 환해지며 무슨 생각에 잠기는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해진 옷입고 동냥이나 다니는게 뭐 볼게 있어서…》

그러자 그 녀인의 얼굴에는 서글픈 웃음이 비껴 흘렀습니다.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나도 가난하게 살다가 여기 잡혀와서 그런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운 고향마을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오는구나. 아마 그래서 반가와하는 기색이 좀 피여났겠지 뭐. 가난하게 자랐다면서 너희들은 뭐 그렇지 않니?》

《예, 우리들도 그렇긴 해요.》

궁녀들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녀인의 그 말은 그 즉시 임금한테 보고되였습니다. 임금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더 많은 거지들이 매일같이 궁성밖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궁녀들이 더 많은것을 알아내도록 부추겨댔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자신이 그 녀인의 계략에 말려들어가고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임금의 독촉을 받고 또 한무리의 거지떼가 궁성밖으로 떠들썩하며 지나가게 되였습니다.

녀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보란듯이 더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 피여올렸습니다. 궁녀들도 함께 따라웃으며 임금이 일러준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언닌 참 이상해요. 상감마마한테 몸을 맡기면 왕비가 되여 일생 호강하며 잘살겠는데 왜 마다해요? 거지들이나 바라보며 웃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녀인이 바라던 물음이였습니다. 녀인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치않은 소리야. 천한 숯쟁이의 안해가 왕후가 된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니. 궁성안에선 매일같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풍청거리는데 밖에선 굶주린 거지떼만 욱실거리니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지. 거지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주는 그런 임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임금이 있다면 나도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녀인의 그 말도 그 즉시 임금한테 보고되였습니다.

그 녀인한테 홀딱 반한 임금은 그거야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는 녀인만 품에 안을수 있다면 나라재산을 몽땅 털어내도 아까울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지체없이 거지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음식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궁녀들을 내몰아 친절하게 잘 접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거지들을 우대한다는 소문이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나 다 퍼지게 되였습니다.

그와 함께 궁성에 잡혀온 숯쟁이 안해에 대한 소문도 펴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의 입에서 새여나갔지만 소문이 퍼지고퍼져 지금은 사람들이 골목길이나 우물가에 한둘만 모여서도 수군수군 그 소리뿐이였습니다.

《궁성에 잡혀가있는 그 아릿다운 녀인이 숯쟁이의 안해라누만. …》

《그러게말야. 임금이 남의 집 유부녀를 잡아다놓고 희롱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뭐야.》

《글쎄 임금이 그 녀인의 청을 받고 거지들을 우대하느라 정신이 없다는군요. 참 별일이지요.》

이런 소문은 거지꼴이 되여 별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도 헐레벌떡 안해를 찾아다니던 그전날의 그 숯쟁이남편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안해의 다심한 정이 흠뻑 어려있는 털가죽등거리를 쓰다듬으며 궁성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울렁이게 하는 한걸음이 새로운 다급한 길이였고 정말 곡절도 많고 생각도 많은 길이였습니다.

드디여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궁성에서는 이 세상에서 본적 없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궁성의 동서남북 네 대문밖 넓은 공지로 이른아침부터 람루한 옷을 몸에 걸친 거지들이 빈 쪽박을 들고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한테도 량반사대부들한테만 차려주던 진수성찬이 그대로 차려졌습니다. 임금의 어명으로 하는 일이라 말은 못하고 억지로 나와서 볼이 부어 앉아있던 량반부자들은 어험어험 헛기침만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다 달아나고 거지들만 남아서 생전 처음 배터지게 먹고 마시며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옷으로 몸단장을 한 아릿다운 그 녀인도 처음으로 임금과 함께 그리로 나왔습니다. 흥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거지들한테로 사뿐사뿐 걸어가서 어서 많이 들라고 수저도 들려주고 음식도 권하는 녀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여올라 그 모습은 더 황홀하였습니다. 이제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것 같아서 녀인의 옆자리에 앉은 임금도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환히 웃는 녀인의 얼굴만 정신없이 바라보았지 그의 초조한 눈길이 그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있다는것은 감감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때 너무 닳고 해져서 바람에 펄럭이는 털가죽등거리를 몸에 걸친 수염이 더부룩한 거지 하나가 그리로 다가왔습니다. 온 나라를 다 돌며 헤매다나니 거지꼴이 되였지만 안해를 찾고야말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다가 궁성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숯쟁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섰지만 궁녀들이 친절하게 대접하는 음식에는 눈길 한번 보내지 않고 여기저기 휘둘러보며 그리운 안해의 얼굴만 찾았습니다.

안해가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임금이 거룩하게 앉아있는 웃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들속으로 오가는 궁녀들만 두리번거리면서 눈여겨

살펴보고있으니 어떻게 안해를 찾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녀인의 얼굴에서는 초조의 빛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름할수 없는 반가움이 웃음으로 활짝 피여났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고운 눈매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올랐습니다. 어여쁜 앵두볼에도 복스러운 보조개가 곱게 피였습니다. 얼굴전체가 이슬 머금고 피여난 함박꽃처럼 환히 빛났습니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랑군이 들어서는것을 첫눈에 알아본것이였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와락 달려가서 그 넓은 품에 온몸을 맡기며 기쁨을 터치고싶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녀인이라고는 생각해왔지만 임금도 이렇게 환히 웃는 복스러운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임금은 너무도 황홀해서 넋을 잃고 그 얼굴만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녀자의 눈은 금빛찬란한 왕관과 곤룡포를 몸에 걸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까맣게 잊은듯 거들떠보지도 않고 새로 나타난 거지사나이한테만 쏠리고있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속에서는 질투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올라 더 참아낼수가 없었습니다. 미칠듯한 질투심에 눈이 먼 임금은 다 닳아빠진 너덜너덜한 털가죽등거리를 몸에 걸친 수염투성이거지가 부러워서 견뎌낼수 없었습니다.

왕관이고 옥새고 뭐고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등거리만 몸에 걸친다면 녀인의 애틋한 눈길을 끌것만 같았습니다.

무서운 질투심때문에 분별을 잃은 임금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미쳐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옆에 지켜서있는 시종무관에게 버럭 소리쳐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털등거리를 걸친 거지를 과인앞에 대령시키지 못할고!》

그러자 《저 털등거리를 걸친 거지를 대령시키랍신다－》 하고 령을 받아외우는 복창소리가 성문루각을 드렁드렁 울리며 사방

으로 메아리쳐나갔습니다.

이윽고 그 거지가 두 장수의 아귀센 손탁에 떠밀려 임금앞으로 주춤주춤 걸어나왔습니다.

임금은 손에 들고있던 옥새를 마루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왕관과 곤룡포를 와락와락 벗어서 그 거지한테 내밀면서 호통쳤습니다.

《야 이녀석, 어서 과인과 옷을 바꿔입자!》

털가죽등거리를 걸친 거지도, 그자리에 참석했던 관속들과 거지들도 모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멍하니 임금의 거동만 쳐다보고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녀인이 앞에 나서서 왕관과 곤룡포를 받아 거지, 아니 그렇게 그립던 랑군님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상감마마의 어명인데 불복하면 어쩌리까. 어서 이 옷을 갈아입고 왕관을 쓰세요.》

거지남편은 안해의 깨끗하고 정겨운 눈빛과 의미깊은 턱짓에서 내놓고 말못하는 숨은 사연을 제꺽 알아챘습니다. 그는 알겠다는 의미로 싱긋 웃어보이더니 얼른 등거리와 옷을 벗어서 임금한테 바치고 그대신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떨쳐입었습니다. 임금도 해진 옷과 등거리를 몸에 걸치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음식상앞에 둘러서있는 거지들의 무리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어 어제날의 숯쟁이는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으리으리한 왕좌에 점잖게 올라앉았고 안해가 집어주는 옥새를 손에 든든히 틀어잡았습니다. 한편 거지들속으로 들어간 우둔한 임금은 왕의 징표인 옥새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것도 모르고 녀인한테 어서 자기를 보라고 소리치면서 등거리를 걸친 어깨를 들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엄스러워보이던 임금도 다 해진 옷과 너덜너덜 꿰진 등거리를 몸에 걸치고 춤을 추니 아주 초라해보였습니다.

게다가 녀인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게사니목청으로 꿱꿱 소리까지 치는 꼬락서니는 정말 꼴불견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꼭 얼빠진 어리광대가 춤을 추는것 같아 저마다 배를 그러안고 웃어

댔습니다.
어제날의 임금은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고있다는것도 모르고 계속 덩실덩실 춤을 춰대면서 흘끔흘끔 그 녀인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털가죽등거리를 입고 춤을 추면 더없이 기뻐하면서 살뜰한 웃음을 보내줄줄 알았던 그 녀인이 자기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무백관들앞에 척 나서더니 엄숙하게 선언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소녀는 무능하고 부화타락한 임금을 몰아내고 지혜롭고 용감한 젊은 장수를 새 임금으로 모시게 된것을 나라의 크나큰 경사로 생각하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것은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하늘의 엄숙한 뜻이옵니다. 여기 모인 문무백관들과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백성들이 새 임금님의 선정을 받들어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세우리라 굳게 믿어마지않소이다.》
그러자 무능하고 방탕한 임금한테 불만을 품고있던 관리들과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떨쳐일어나 팔을 내흔들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자 그전 임금은 리성을 잃고 새 임금을 손가락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임금이 아니라 숯쟁이다. 임금은 여기 있다. 당장 저 숯쟁이거지녀석을 룡상에서 끌어내려라!》
그러자 새 임금이 천천히 룡상에서 일어나 옥새를 든 손을 높이 추켜들고 처음으로 엄숙하게 호령했습니다.
《무엄하도다! 너는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라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옥새를 집어던진 용서받을수 없는 죄인이노라.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임금의 징표인 이 옥새를 맡겼으니 내 결단코 그 믿음에 보답하겠노라. 모두가 이날의 경사를 축복하여 만세의 환성을 터치고있는데 이 무슨 란동인고! 그 죄 막중하나 이 경사스러운 날 중형을 내릴수 없어 관대히 용서하노라. 여봐라, 이 무도한자를 나라의 지경밖으로 끌어다 내치도록 하라!》
그러자 《지경밖으로 끌어내랍신다!》, 《끌어내랍신다!》

하는 복창소리가 마루를 쩡쩡 울리며 대청밖으로 연방 울려나갔습니다.

이어 한무리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전 임금의 덜미를 잡아 대청밖으로 끌어내갔습니다.

이렇게 되여 무능하고 부화방탕하며 나라와 백성을 도탄속에 빠뜨렸던 임금이 밀려나고 지혜로운 안해의 도움으로 어질고 순박한 어제날의 숯쟁이청년이 새 임금으로 으리으리한 왕좌에 올라앉게 되였습니다. 새 임금은 고생도 많이 하고 천대도 받아본 대바른 사람이여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량반권속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다 내쫓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주는 정사를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안이 흥성거리게 되고 백성들이 서로 도와 부지런히 일하며 화목하게 사는 희한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왕후가 된 녀인의 공적이라고 하면서 어제날의 농부네 막내딸을 두고두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립성이 강할뿐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고와서 아버지등에 업혀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지가 된 두 언니도 다 찾아내여 제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며 잘살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

옛날 어느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까지 일찍 여의고보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힘든 농사일도, 주접스러운 부엌일도 혼자 도맡아하면서 아들한테는 공부만 시켰습니다.

아들이 너무도 죄스럽고 민망스러워서 호미를 들고 밭으로 따라나가거나 일나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저녁밥이라도 한번 지어놓으면 큰일이나 난것처럼 펄쩍 뛰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내녀석이 한번 마음먹고 달라붙었으면 큰뜻을 이룰 때까지 직심스레 달라붙어 끝장을 봐야지 도중에 딴눈을 팔거나 헛딴데 마음 쓰면 못쓰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기어이 성공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머리를 싸매고 책을 읽었고 시간을 아껴가며 무술을 익혔습니다.

이런 집안에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였습니다. 시집이라고 와보니 기가 딱 막혔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밭에 김이 자라서 범이 새끼를 치게 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방자만 틀

고앉아 책을 읽었으며 끼니거리와 땔나무가 떨어져 저녁을 짓지 못하게 되였는데도 본체만체 하고 마을젊은이들과 휩쓸려다니며 무술놀이에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햇곡식도 나기 전에 식량이 떨어져서 요즈음은 일나갔던 시아버지가 훑어오는 설익은 돌피를 풋바심하여 겨우겨우 끼니를 에워나가는 형편이였습니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가난한 집에서 태여나 고생스럽게 자란 그는 시집이라도 가면 좀 나아질가 생각했는데 이 지경에까지 이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심에 잠긴 그의 얼굴과 때없이 터져나오는 한숨소리를 보고 듣다못해 시아버지가 타일렀습니다.

《얘 며늘아가야,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더 고생하더라도 참고 이겨내면서 네 랑군이 도를 닦게 하면 꼭 기쁜 날이 올게다. 일없다. 너와 내가 부지런히 땅을 걸구면 래년엔 걱정없이 살게 될게다.》

그래서 며느리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아버지를 따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헐벗어도 나무라지 않고 책과 무술밖에 모르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여도 살림살이는 조금도 펴이지 않았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애써 가꾼 낟알은 량반부자들과 관속들에게 이리뜯기고 저리뜯기워 또다시 돌피를 훑어다 강피죽을 끓여먹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전날 훑어온 돌피를 멍석에 펴놓고 밭김을 매러 나가던 안해는 책을 읽고있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구름이 밀려드는게 심상치 않군요. 비가 오면 저 돌피를 좀 걷어주시오이다.》

그러나 남편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올방자를 틀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정신없이 중얼중얼 책만 읽었습니다.

안해는 살림살이에 너무 무관심한것 같아서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말았어요. 저 돌피가 비에 젖으면 무엇으로 저녁을 끓이겠소이까. 제발 좀 채심해서 거두어주소이다.》

그제야 남편은 엉겁결에 검은 구름이 떠도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응?… 어, 그러지.》

그날 낮에 정말 소낙비가 몇차례 쏟아져내렸습니다.

저녁에 안해가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와보니 남편은 그때까지도 책만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멍석에 널어놓았던 돌피는 마당으로 골을 지어 흘러내려온 흙탕물에 씻겨내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흙과 모래속에 뒤범벅이 되여 말이 아니였습니다.

안해는 너무 억이 막혀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안해는 흐느껴울면서 남편한테 투정질을 해댔습니다.

《당신은 너무해요. 돌피가 이 모양이 되였으니 온종일 비를 맞으며 김을 매신 아버님께 무엇으로 진지를 지어드리겠소이까. 정말 더는 이렇게 못살겠소이다.》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해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아하,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소. 책에 정신이 팔려 깜박 잊었댔구려. 제발 좀 리해해주구려.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남편은 마당으로 뛰여내려와 돌피를 쓸어모은다, 그것을 물에 씻어낸다 부산을 피우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는 남편을 보니 안해의 마음도 좀 풀리는듯 했습니다. 안해는 돌피를 깨끗이 씻어서 솥에 말리운 다음 절구에 찧어서 겨우 저녁끼니를 끓이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돌피죽을 시아버지와 남편한테다 대접하고나니 자기의 몫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치마끈을 조여맨 안해는 동이를 이고 샘물터로 나갔습니다.

쪽박으로 동이에 물을 퍼담으며 보니 물속에 비낀 자기의 모습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포동포동하던 볼이 홀쭉해지고 초들초들마른 입술은 파릿하여 전혀 딴사람을 보는듯 여윈 초라한 모습이였습니다.

《호ㅡ》
자기도모르게 가는 한숨이 입에서 새여나왔습니다.
자꾸만 서글퍼지는 마음을 달래일수가 없었습니다. 두볼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그옆을 지나던 나그네가 물을 청했습니다. 안해가 얼른 눈물을 훔치고 쳐다보니 명주두루마기에 통량갓을 그쯘히 차린 점잖은 길손이 동정어린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며 서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인인듯한 떠꺼머리총각이 살진 가라말고삐를 잡고 서있었습니다.
첫눈에도 어느 고을의 부유한 량반행차라는것이 알렸습니다.
안해는 쪽박으로 물을 떠서 두손으로 정히 받쳐올렸습니다.
길손은 샘물을 쭉 들이키더니 소담하게 자란 채수염을 쓰다듬으며 인정이 흘러넘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고마우이. 그런데 무슨 슬픈 사연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오? 길가던 사람이 알바 아니오나 너무 애젊은 꽃다운 나이에 눈물을 흘리고있는게 가엾고 동정이 가서 그러는것이니 나삐 생각지 마시우. 혹시 도와드릴수 있을런지 해서 그러는거우. 정 말못할 사연이 아니라면 조금도 허물하지 말구 말해보시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한지 초면이긴 하지만 꼭 친정집 아버지를 대하는것만 같아 안해는 어려움도 다 잊고 견디고 견뎌내다못해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길손은 이야기를 주의깊이 다 듣고나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심중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니 지나가던 길손이 참견할 일이 못되나보오. 허나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어 한많은 세상을 떠날가 한다는 말까지 듣고나니 발길을 돌리기 힘들구려. 될수 있으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생을 락으로 여기면서 남편을 받들어나가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느라면 꼭 성공하게 될거요. …정 그럴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내가 사는 고을로 데리고가서 잘살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도 있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우.》

안해는 한동안 말이 없이 오도카니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남편을 믿고 락을 보려 한다는것이 허황한 꿈이라고만 생각되였습니다. 한해두해 참고 견디여보았지만 살림살이는 점점 더 쪼들려들기만 하고 남편은 그 모양 그 꼴이니 언제 락을 보랴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갈마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시집에도 알리지 않고 빈몸으로 그 길손을 따라가게 되였습니다.

길손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먼길을 가고 또 갔습니다. 그 길손은 한사코 사양하는 젊은 녀인을 기어코 자기의 말잔등에 태워 먼길을 아무 불편없이 가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여 어느 고을의 안침한 골안에 들어앉은 호화로운 기와집 솟을대문앞에 그를 내려놔주었습니다.

《자, 다 왔수다. 이게 우리 집이니 마음을 푹 놓고 잘살게 되기를 바라오.》

젊은 녀인이 이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알아보니 이 집의 그 점잖고 인정많은 주인은 몇달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처를 찾던중에 그를 만나게 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잖은체 하고 온갖 친절을 다 베푼것은 자기의 속심을 감추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뛰쳐나온 젊은 녀인은 집주인이 비록 늙은 몸이기는 하지만 권세가 등등하고 재산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끌려 그의 새 부인으로 들어앉았습니다. 그러나 량반집 귀부인으로 팔자를 고쳐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살아보려던 경망스러운 꿈은 몇해를 못지나서 깨여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늙은 새 남편이 죽었던것입니다. 세도가 등등하던 남편이 죽고보니 끈 떨어진 뒤웅박과 같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과부신세가 되고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몇해 안지나서 다 거덜이 나고 홀몸으로 다시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는 그 호화로운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을 다 불어먹고 다시 허

줄한 오막살이 단칸초가집에서 돌피를 훑어다가 죽을 끓여먹는 신세가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살진 준마에 올라앉은 장수가 숱한 장졸들을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며 이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공부밖에 모르던 이 녀인의 그전날의 남편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생활난을 겪으면서도 아버지가 떠밀어주는데서 힘을 얻어 열심히 책을 읽고 무술을 닦아 결국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가슴에 어사화(임금이 하사한 꽃)를 달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였습니다.

그는 고향산천이 가까와올수록 고생을 하면서도 큰뜻을 품고 꿋꿋이 이겨나가던 지난날이 어제일인듯 떠올라 실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는 추연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길가의 밭고랑에 허리를 굽히고 돌피를 훑는 녀인의 고달픈 모습을 띠여보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흘러간 지난날 고향의 들판에서 돌피를 훑어다가 끼니를 끓여주던 불쌍한 안해, 멍석에 널어놓았던 돌피때문에 눈물만 보이고 종적없이 사라진 안해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돌피를 훑는 낯모를 녀인이긴 하지만 한번 만나보고 가난한 그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라도 주고싶은 생각이 가슴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하병졸을 불러 그 녀인을 대령시키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병졸의 뒤를 따라와서 자기앞에 끓어엎드린 녀인의 얼굴을 내려다본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 눈을 의심하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종적을 알수 없던 그 고생도 많았던 불쌍한 안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격정에 넘쳐 말에서 뛰여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그 녀인은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서 급히 고개를 들다

가 《아!》 하고 탄성을 터치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채 어깨를 떨며 소리없이 흐느낄뿐이였습니다.

앞에 서있는 름름한 장수가 그전날 자기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저버리고 달아났던 그 남편이였던것입니다. 그러니 그앞에 어찌 낯을 쳐들며 뭐라고 감히 한마디 말인들 할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쩔줄 몰라하는 행동거지를 보고 불길한 느낌을 받았지만 장수는 불쾌한 감정을 누르고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요 나!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있수? 도대체 어찌된 일이우?》

녀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흑흑 섧게 흐느낄뿐이였습니다. 고생을 이겨내면서 남편을 끝까지 받들지 못한 가슴쓰린 후회와 자책이 흐느낌소리로 터져나오는것 같았습니다.

장수는 일행을 멈춰세우면서 가까운 객주집에 려장을 풀고 하루 묵어가자고 명령했습니다.

녀인은 그날밤 객주집 퇴마루에 끓어앉아 자기의 나약하고 치욕스러운 행위를 다 털어놓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장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무거운 한숨을 후하고 몰아쉬였습니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고 이르시던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오. 그저 고생을 한다구 락이 오는게 아니우. 그 고생을 달게 여기구 이겨내야만 락을 볼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이였수.

나는 당신한테 마음고생을 시킨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우. 그래서 당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나간다면 조금도 나무라지 않겠수.

그러니 래일부터는 나막신을 신고 머리에 인 동이에서 물이 한방울도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 일행을 따르시오. 그 고행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함께 살게 될거요.》

그 녀인은 이튿날부터 나막신을 딸깍거리며 물동이를 이고 장수일행을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나막신이 뒤뚝거리며 발뒤꿈치를 물어뜯어 피가 흘렀지만 아

랑곳하지 않고 애써 따라섰습니다.

머리에 인 동이에 가득찬 물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출렁출렁 흔들리며 자꾸 쏟아지려 했지만 온 정신을 모아 몸을 가누며 용케 이겨나갔습니다.

남편을 굳게 믿고 따르니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허나 남편이 자기를 용서해준다 해도 늦게나마 자기의 량심이 더는 남편이라 따를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한본새로 시집살이의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하지 못한 자책으로 또 아무도 모르게 시집을 뛰쳐나간 죄의식이 머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너그러이 받아준다 해도 자신을 더는 용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깊은 산골에 들어가 한생을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의 참뜻을 깊이 깨닫고 두고두고 생활의 교훈으로 삼았답니다.

금패령에 깃든 이야기

신흥에서 풍산쪽으로 가려면 금패령이라는 험한 령을 넘어야 합니다. 금패령이라면 마패를 가진 사람이 령을 넘어가는것을 금한다는 뜻인데 이 고개에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가요.

옛날에는 중요한 길목마다 역참이라는것이 있어서 마패라는 패쪽을 가진 량반관료들은 아무때나 여기서 말을 갈아타고 먼길을 쉽게 이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세없고 땅이 없는 가난한 일반백성들이나 최하층의 상놈들은 그런 편의를 보장받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봉건량반들이 판을 치던 그 세월에 어찌하여 마패를 가진자들의 통행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이 고개에는 그런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는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때는 4월이라 갑산땅에서도 풀죽으로 겨우 끼니를 에우던 사람들이 령중턱에 널려있는 보리밭에서 채 익지 않은 이삭들을 잘

라다 풋바십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한 아낙네가 남편과 함께 부대발에서 조 애벌김을 매다가 일찌감치 저녁밥을 지으려고 물알이 여물기 시작한 보리이삭들을 한다래끼 잘라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있었습니다.

멀건 풀죽으로 조반을 치른 남편이 점심도 건늰채 하루종일 김을 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죄스러워 막 달리다싶이 했지만 걸음이 더딘것만 같았습니다. 젖이 모자라서 보채는 어린것을 집에 떼여놓고온것을 생각하면 한순간이 새로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느 산굽이를 에돌아 비탈길을 막 달려내려가고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웬 젊은이가 쓰러져 신음하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땀에 젖은 명주두루마기와 먼지가 뽀얗게 오른 갖신을 보니 먼길을 떠난 길손이 틀림없었습니다. 피기잃은 창백한 얼굴과 초들초들 말라터진 입술을 감빠는것만 봐도 초기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어느 한다하는 량반집도련님이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달려가던 몸이였지만 마음 어진 아주머니는 초기를 만나 죽어가는 나그네를 차마 못본체 하고 지나칠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에 든것이 풋바십해먹자고 잘라오는 설익은 보리이삭뿐이니 무엇으로 길손의 주린 창자를 달랜단 말입니까. 구원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망설이고있던 아주머니의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자기도모르게 옷고름을 풀고 젖가슴을 헤쳤습니다. 하루종일 어린애한테 젖을 먹이지 못했더니 젖통이 퉁퉁 불어나있었습니다. 어딘가 좀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사람을 앞에 놓고 더 망설이고있을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길가의 가랑잎을 뜯어 오그려대고 젖을 짜서 길손의

입에 흘려넣어주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희뿌연 젖이 입안으로 흘러들자 기력이 회복되는지 조금후에는 정신없이 젖을 받아넘겼습니다. 길손의 창백하던 얼굴에 차차 피기가 돌더니 드디여 눈을 떴습니다.

길손의 눈에는 어리무던해보이는 촌아낙네가 수집음을 타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은인으로 안겨들었습니다. 축축히 젖은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내다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나는것을 보고 모든것을 알아챘던것입니다.

젊은이는 기운을 내여 부시시 일어나더니 길바닥에 꿇어엎드려 아주머니한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님, 죽었던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소이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간들 이 은혜를 어찌 잊으오리까.》

《아이, 이러지 마시오이다.》

아주머니는 너무도 당황하여 마주 땅바닥에 꿇어엎드리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상놈이 량반앞에 꿇어엎드리는게 정해진 례절인데 량반댁도련님이 촌아낙네앞에 꿇어엎드리니 이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머니는 조금후에 마음이 안정되자 길손을 살려낸것이 그리도 기쁜지 환히 웃으면서 다정히 말하였습니다.

《됐소이다. 이젠 됐소이다. 루추하지만 저의 집에 가서 몸을 좀 추세워가지고 돌아가시도록 하오이다.》

나그네가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그의 집에 가보니 말이 아니였습니다.

고삭은 귀틀집방안의 구름노전을 깐 방바닥에서는 두세살나보이는 어린애가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며 흐느껴울고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어린애를 껴안고 젖을 먹이더니 가지고온 보리이삭을 방아확에 털어넣고 쿵덕쿵덕 발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고있느라니 보리단을 한짐 걸머진 남편이 밭에서 돌아왔

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주달려나가서 사연을 말하고 길손을 남편한테 소개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얼굴이 검실검실 탄 어깨가 쩍 버그러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잘했다고 안해를 칭찬하고나서 나그네와 마주앉아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아주머니가 개다리소반에 저녁상을 차려들여왔습니다.

나그네는 주인과 마주앉아 보리를 풋바심해서 지은 구수한 보리밥과 토장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량반댁도련님이 그전같으면 이런 험한 음식을 거들떠나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굶주렸다가 먹으니 보리밥도 참으로 별맛이였습니다. 밥이 배속에 들어가니 정신이 맑아지고 팔다리에 기운이 솟는것 같았습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쉬고 조반대접까지 받고서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인내외에게 몇번이고 사례하고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지여 고을에 틀고앉아있는 원의 귀에까지 새여들어갔습니다.

고을의 량반벼슬아치들과 그 마나님들은 밥먹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하던 참이라 끼리끼리 모여앉아 킬킬거리면서 별의별 험담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구,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담. 젊은 계집년이 낯모를 사내한테 젖을 물리고 쩝쩝 빨리다니… 호호…》

《그러게 말이요. 례의범절을 모르는 쌍것들이니 별수 있나. 허허…》

《헛참, 시퍼런 대낮에 분통같은 젖통을 내흔들어 사내들을 홀리려들다니… 변괴로다!》

고을의 원은 마침내 량반벼슬아치들의 부추김을 받고 행실이 고약한 그 계집년을 고을의 지경밖으로 내쫓으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이름모를 어느 량반댁도련님을 구원한 죄아닌 죄로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고을밖으로 쫓겨난 젊은 내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불편한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가자니 무슨 고생인들 안하고 무슨 구박인들 안받아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초기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 일이 잘못되였다고 후회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안해는 자기때문에 남편이 이 고생을 하게 되였다고 미안해했지만 남편은 한번도 탓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부대밭을 뚜지며 가난하게 사는 농부들은 이처럼 마음이 곱고 어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호의호식하는 량반벼슬아치들의 심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없는 착하고 마음씨고운 젊은 농부내외를 고을밖으로 쫓아내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도 말을 타고 이 령길을 지날때면 퉤하고 가래침을 내뱉으며 별의별 쌍욕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몇해 지나는 사이에 아주머니가 구원해준 그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북관땅을 순시하는 암행어사가 되여 이고장에 다시 내려오게 되였습니다.

그 잊지 못할 령길을 넘게 된 젊은이는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 마음씨고운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의 이 성공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고…)

이런 생각을 하니 한시바삐 그 아주머니를 만나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산땅에 들어서는 길로 원한테 알아보니 행실이 나빠서 그 녀인을 지경밖으로 쫓아냈는데 종적을 알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그날밤 젊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암행어사의 자격으로 원을 불러낸 젊은이는 북관땅을 다 뒤져서라도 그 아주머니를 기어이 찾아내라는 엄한 령을 내렸습니다.

고을에서는 큰 복닥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로 숱한 관헌들이 동헌으로 불리워가 원의 지령을 받고 산지사방으로 그 아주머니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깊은 산골막바지에 묻혀있는 포수네 초막까지 발칵 다 뒤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 아주머니의 소식은 얻어들을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불같은 독촉때문에 원은 얼굴이 새까매져서 고을의 관속들을 들볶아댔습니다. 그러던중 한 관졸이 이웃고을의 한 채벌장에서 우연히 초기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구원했다는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찾아가보니 찾고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아전이 그 소식을 원한테 알렸고 원은 그길로 암행어사를 만나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몹시 기뻐하면서 어서 잘 모셔오되 내가 출도할 때까지 객사의 제일 호화로운 방에 들게 하고 귀빈대접을 하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원은 암행어사의 엄한 령이라 아무말도 못하고 물러났으나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였습니다. 하여튼 암행어사가 그처럼 기뻐하는것을 보니 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였습니다. 자기가 그 아주머니한테 엄한 형벌을 내린 지난날도 돌이켜보게 되니 불안한 마음을 달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머니와 그의 가족들을 그 무슨 대감행차를 모셔오듯 가마까지 보내서 모셔다놓고 온갖 성의를 다해 환대하게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네 부부는 이 모든 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어서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을 지경밖으로 마치 개때려 내쫓듯 하던 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별스레 싹싹하게 굴면서 별의별 환대를 다하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습니다.

어느날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의아스러워서 그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불안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관가에서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술을 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지극한 대접을 하는걸보니 아마도 우리를 극형에 처할

모양이예요.》

《그런가보오. 나도 어제밤 어린것들이 불쌍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소.》

남편도 이런 말을 하면서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였습니다.

이때 한 아전이 급히 달려와서 가자고 하면서 그들을 동헌으로 데려갔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아이들을 뒤에 두고 관청으로 끌려가는 그들부부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헌 대청에서는 암행어사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들부부는 감히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대청밑으로 벌벌 기여나가서 넙적 꿇어엎드렸습니다. 이어 대청우에서 추상같은 불호령소리가 터져내렸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남편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였습니다.

《저, … 행실이 부정하여 량반나리들의 노여움을 샀소이다.》

《음, 행실이 부정했다? 그럼 무슨 행실이 어떻게 부정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이실직고하라!》

대청우에서 다시 호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아뢰였습니다.

《어느해 초여름 한창 어려운 〈보리고개〉를 넘기고있을 때에 있은 일이옵니다. 조밭에서 김을 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길에 웬 낯모를 량반집도련님이 초기를 만나 쓰러져있는걸 보게되였소이다. 집이 너무도 가난하여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던 때여서 길손을 구원할 길이 막막하였소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치고갈수도 없고 이래저래 속을 태우다가 집에 두고온 애기가 배고파 울고있을줄 번연히 알면서도 할수없이 젖을 짜서 입에 떠넣어주었소이다. 누구도 보는이는 없었지만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스스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소이다. 허지만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이를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앞

서 그런 죄되는 일을 저질렀소이다. 정신을 차린 도련님이 땅에 꿇어엎드려 사례를 하는것이 너무도 황공스러워서 죄되는줄 알면서도 또 귀한 량반님을 루추한 집에 모셔다 풋바심한 보리밥에 토장국을 대접하였소이다. 그저 몸을 추세워드려야 하겠기에 그리한것이오니 너그러이 헤아려주소이다.》

암행어사는 그 말을 깊은 추억에 잠겨 신중히 듣는듯 했습니다. 이윽고 옆에 거드름을 빼며 올방자를 틀고앉아있는 원을 흘끔 돌아보더니 엄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습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 음, 그렇다면 이 고을에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애기한테 먹여야 할 젖까지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낯모를 젊은이한테 아낌없이 짜먹인 이 기특한 소행이 용납못할 큰 죄로 된단 말인고?! 어디 여기 앉아계시는 어느 어른이든지 말을 좀 해보우!》

대청우에 턱을 쳐들고 거만스럽게 앉아있던 원을 비롯한 이 고을의 량반관속들은 대번에 낯빛이 달라지면서 고개들을 수그리고 찍소리 한마디 못했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여들듯한 초라한 몰골들이였습니다. 자기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녀인에게 벌을 내리기만 고대하고 앉아있었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여 저희들이 문책을 당하게 되고보니 기가 막히여 변명할 구실이 없었던것입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아주머니가 한발 나앉으며 애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어사또어른께서 밝은 눈으로 굽어살피시고 죄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부디 명판결을 내려주시오이다.》

그러자 그 엄엄하던 기상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겨운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자리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주머니요. 어서 머리를 드시고 나를 쳐다보시우. 내가 그때 외진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주머니의 구원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요. 바로 내가 그 무서운 〈보리고개〉를 넘지 못하고 고개길에 쓰러져 다 죽게 된것을 아주머니가 있는 지성을 다해 살려주셨

소. 아주머니는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내가 한평생 잊을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시오.

내 이제 아주머니를 아무리 잘 위해주고 돌봐준다한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예?》

아주머니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런지, 지난날의 못잊을 일들이 머리속에 떠올라서 그런지 흠칫 몸을 떨며 흐느껴울었습니다.

이윽고 아주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쳐다보더니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뇌이였습니다.

《아, 옳구려! 아,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높이 출세하셨으니 이 촌아낙네의 기쁨 이루 헤아릴수 없소이다. 아, 이 촌아낙네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다니. … 흑흑.》

《아, 아주머니를 잊다니요. 이 몸에서는 그때 아주머니가 짜넣어주신 젖 한방울한방울이 피와 살이 되여 고동치고있소이다. 그 일을 눈에 흙이 들어간들 어찌 잊으오리까.》

암행어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청아래로 걸어내려와 꿇어앉은 아주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워 대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손을 홰홰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흙을 뚜지며 사는 이 촌아낙네가 감히 어디로 오른단 말이오이까. 그건 절대로 아니될 일이오이다.》

암행어사는 아주머니의 험해진 손을 잡고 어루만지면서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량반어르신네들, 다들 보시우. 1년 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곡을 가꾸어 우리를 먹여살리는 농부들이 어떤 어질고 마음착한 사람들인가를, 목숨이 경각에 이른 낯도 모르는 젊은이를 구원해주고도 그것이 고마와 손을 잡아끄는데도 대청에 좀 오르는것조차 사양하니 정말 머리가 수그러지오. 지금 탐관오리들은 서로 헐뜯고 물어메치며 저마다 더 높은 자리에 기여오르겠다고 개싸움을 벌리고있는데 그들과 얼마나 판판 다른 훌륭한분들이요. 내

그래서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 이름없는 촌아낙네한테 길바닥에 꿇어엎드려 큰절을 올린거요. 그 뜨거운 인정에 끌려 량반의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수 없었던거요. 내 그때 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한생을 다 바쳐 일하리라 다짐하고 나섰기에 오늘의 성공을 이룰수 있었던거요.》

말을 마친 암행어사는 퇴돌밑에 가져다놓은 걸상에 아주머니를 앉히고 자기도 허물없이 그와 마주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몸둘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암행어사는 목청을 돋구어 량반관속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주머니를 존경하고 우대할 대신 별의별 입에 담지 못할 험담으로 모해하고 헐뜯다못해 마지막에는 지경밖으로 쫓아냈다는데 그래 이게 관록을 타먹고 고을의 정사를 맡아한다는 당신들의 처사인고! 그래, 이게 인륜대의에 어긋나는 무도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고! 어디 대답해보오!》

고을의 량반관속들은 고개를 땅바닥에 처박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때 약삭바른 리방이 급히 퇴돌밑으로 허둥지둥 달려내려와 암행어사의 발치에 엎어지듯 꿇어앉으며 뇌이였습니다.

《소인이 정사에 눈이 어두워 큰 죄를 범하였소이다. 엄한 벌을 내려 징계하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원을 비롯한 모든 관속들이 줄레줄레 퇴돌밑으로 밀려내려와 꿇어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가 그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은 본관한테 잘못을 빌게 아니라 이 아주머니한테 사죄해야 할것이로다. 자네들이 한짓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이를데 없도다. 이 어사의 권한으로 모두 파직시키고 형틀에 묶어 주리를 틀어도 씨원치 않을것이로다. 허나 모두 자신의 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겠다니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하겠노라.》

《황송하오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이다.》

고을의 관속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암행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훈계하노라.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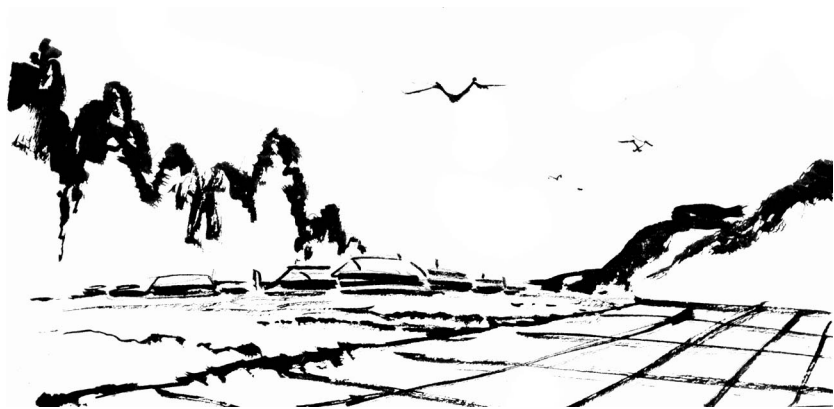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일체 그 고개길로 마패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넘나드는것을 엄금하노라. 인품이 한없이 높은 아주머니를 생각한다면 응당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례의를 표하며 고개길을 넘어가야 하겠는데 요즘도 말을 타고 거들먹거리며 고개를 넘는자들이 있다니 어찌된 일인고! 퉤퉤 함부로 가래침을 내뱉으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지나갔다니 이런 무도한 행위가 어디 있는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고 엄벌을 내릴것이니 명심할지어다.》

《예, 잘 알겠소이다.》

《명심하겠소이다.》

원이하 모든 관속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후 암행어사는 아주머니네 내외와 함께 며칠동안 객사에 묵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잊지 못할 고개길을 거닐며 회포도 나누고 옛 집터를 찾아가서 앞으로 살아갈 일도 의논했습니다. 한편 암행어사는 고을의 관속들을 시켜 집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보살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씨고운 아주머니내외는 마음편히 농사를 지으며 잘살게 되였다고 합니다.

도룡덕의 유래

신파(오늘의 김정숙군읍)에서 장진강의 흐름을 따라 한 삼십여리 거슬러올라가면 자서라는 림산마을이 나집니다. 거기서 다시 산길을 따라 저풍리쪽으로 갈라져 들어가노라면 도룡덕이라고 부르는 마을과 덕지대에 이르게 됩니다.

먼 옛날 여기는 숲이 울창한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세 형제가 살고있었다고 합니다.

두 형인 첫째와 둘째는 양지바른 골바닥에 기와집을 덩실하게 잘 지어놓고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살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동생 셋째는 골안막바지에 초막을 치고 겨우 죽물이나 우려먹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욕심많고 심술사나운 형들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땅과 재산을 동생한테는 조금도 갈라주지 않고 저희들끼리 나누어가졌던것입니다.

그래도 셋째는 형님들곁에 있으면서 오손도손 의좋게 살고싶어했지만 형들은 일년 사철 늪의 물이 흘러드는 기름진 부침땅을 갈라달라고 할가봐 앙탈을 부리면서 골바닥에 집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할수없이 늪이 없는 골안막바지

의 외진 숲언저리에 초막을 치고 부대밭을 뚜지며 고생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건들건들 놀고지내면서도 힘들여 일하는 동생을 본체만체 하였고 고간에서 쌀이 썩어나도 피쌀 한되박 보태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밝은 여름날 저녁이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한분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 골안으로 찾아들어왔습니다.

늙은이는 골안 첫어구에 있는 첫째네 기와집앞에 다가가서 하루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찰떡을 한합지 쳐놓고 식구들과 함께 꿀을 찍어먹고있던 첫째가 대문을 찌궁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 해진 갓을 쓰고 누덕누덕 기운 두루마기를 몸에 걸친 늙고 쇠약한 할아버지를 아래우로 훑어본 첫째는 대번에 낯을 찡그렸습니다.

《우리 집은 식솔이 많아서 길손을 치를수 없쇠다.》

《토방에서 자도 좋으니 하루밤만 신세를 집시다그려.》

늙은이가 사정을 했지만 첫째는 대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객주집이 아니우! 어서 딴데나 가보우!》

늙은이는 할수없이 둘째네 기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노루를 한마리 잡아놓고 고기를 구우며 술추렴을 하고있던 둘째가 대문밖을 내다보더니 가래침을 톺아 퉤 내뱉았습니다.

《퉤, 여긴 거지를 치는 곳이 아니우! 썩 사라져!》

《허허, 저놈 말버릇 고약하다.》

늙은이는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으며 돌아서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더는 찾아갈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늙은이는 길가의 너럭바위에 주저앉아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산천은 변함없이 아름다운데 인심은 왜 이다지도 사나와지는고…》

어두워지는 골안을 휘둘러보며 각박한 세상을 한탄하던 할아버지는 저 골안 막바지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한점의 불빛을 띄여보게 되였습니다.

늙은이는 행여나 해서 뚜벅뚜벅 지팽이를 내짚으며 터벅터벅 그리로 톺아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한 젊은이가 초막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후후 불며 모기불을 피우고있었습니다.

《길가던 늙은이 하루밤 신세를 질가 해서 찾아왔소이다.》

《허허, 이런 루추한 집을 다 찾아주시니 황공하오이다. 먼길에 곤하시겠는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이다.》

늙은이를 초막 아래목자리로 안내한 젊은이는 시장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부엌에서 무엇인가 수군거리는 소리, 달가닥거리는 동자질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젊은이가 저녁상을 받쳐든 안해를 앞세우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뭐 차린것은 없사오나 성의로 아시고 달게 들어주시오이다.》

진정이 어린 살뜰한 목소리를 들으니 흐렸던 기분이 맑아지고 피곤이 다 풀리는듯 늙은이의 입가에는 느슨한 미소가 피여올랐습니다.

작은 개다리소반에는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기장밥과 토장국이며 산나물채가 차려져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였지만 후더운 인정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막대기를 휘둘러야 하나도 거칠것이 없는 텅 빈 방안이나 젊은 부부의 차림새로 보나 근근히 끼니를 에워나가는 가난한 살림이라는것이 한눈에 알렸습니다. 그러니 분명 종자곡식으로 아껴두었던 기장으로 밥을 지은것이라 생각되여 늙은이는 입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늙은이는 젊은이와 함께 모기불연기가 그물그물 피여오르는 뜨락의 멍석에 나가앉아서 한담을 나누었습니다.

늙은이는 밤하늘에 총총한 별무리와 이 골안의 땅생김을 유심히 굽어살피는듯 하더니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일찌기 도를 좀 닦아서 천지조화를 미리 내다볼줄 안다네. 두루 살펴보니 이 골안에 사나운 풍파가 일 불길한 징조일세. 그러니 저 골바닥에 쓴 부모님의 묘를 옮겨야 할것 같네. 하루가 급하네. 당장 묘를 옮겨써야 화를 면하고 자자손손 복락할

수 있다네. 저 둔덕은 이 지경의 산정기가 모두 모여들어서 툭 불거져나온 곳으로서 앞이 탁 트인 명당자리가 틀림없네.》

보아하니 이 허줄한 옷차림의 늙은이는 도사가 분명했습니다. 셋째는 늙은이앞에 꿇어엎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오이다. 제 생각같아서는 당장 분부대로 하고싶소이다. 허나 저에겐 형님이 두분계시니 집안의 중대사를 그분들과 의논해서 처리해야 하오이다. 제가 이밤으로 락착지으려 하오니 그동안 로독을 푸시오이다.》

셋째는 초막안에 이부자리를 펴서 늙은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나서 부리나케 형님들한테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첫째형은 동생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야, 너 미치지 않았니. 지금의 묘자리가 어째서 옮긴다는거냐.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잘살게 된것도 다 부모님의 묘를 잘 쓴 덕이야. 다시는 내앞에서 그런 방정맞은 소리 꺼내지도 말아!》

그렇지만 동생은 진심으로 다시 권고했습니다.

《가만 보니 그 할아버지는 도사어른이 분명하오이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다가 화를 당하면 어쩌자고 그러시나이까?》

《흥, 그까짓 거지령감이 뭘 안다고 그래. 하루밤 자고가자는 청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그 앙갚음을 하자는거다. 듣기 싫다. 썩 사라져라.》

둘째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왁왁 고아대면서 장죽을 뽑아들고 막 후려갈기려 하였습니다.

셋째는 더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초막으로 쫓겨왔습니다. 도사는 셋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음, 노발대발하더란 말이지. 그럼 할수 없군.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묘를 지켜드리는 일이고 후대들의 앞날을 위한 중대사이니 자네 혼자서라도 부모님들의 묘는 꼭 옮겨야 하네. 이제 며칠안으로 늪에서 불물이 끓어올라 온 골안을 묻어버릴거네. 그러니 형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땅속에 누워계신 부모님들이 화를 입는다는걸 알면서 가만히 팔짱끼고 앉아있을수는 없

네. 내가 도와줄테니 그저 하라는대로만 하게.》

그러면서 도사는 늙고 쇠약한 자기 한몸은 생각지도 않고 움쭉 일어서더니 뜨락에 세워놓은 괭이를 들고 캄캄한 밤길도 서슴없이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이날밤 셋째는 도사가 시키는대로 골바닥에 모셨던 부모님들의 시신을 늪가의 양지바른 둔덕으로 옮겨모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늪에 고인 물이 푸지직푸지직 뜬 김을 피워올리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끓는 죽가마처럼 풀떡풀떡 거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더니 도가니속의 잘 익은 쇠물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늪물이 길길이 솟구쳐오르다가 펑하고 분수처럼 터져올랐습니다.

그것은 활화산의 용암이 터져오르는 모양그대로였습니다. 드디여 용암처럼 솟구쳐오르는 불물속으로 큰 황소만한 도롱룡 한마리가 불끈 솟아올라 오색령롱한 불구름을 흩날리며 허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터져오른 불물이 시뻘겋게 사방으로 흩날리고 늪의 뚝을 터치며 넘쳐난 불물이 골바닥을 메우며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너무도 엄청난 불물사태에 질겁하여 뒤걸음치다가 풀썩 주저앉아 입을 하 벌리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골바닥에 자라던 풀과 나무들은 불물속에 휘말려들자마자 불길속에 휩싸이고 첫째와 둘째의 기와집도, 기름진 논밭도 모두 이글이글 끓어번지는 불물속에 휘말려들어갔습니다.

셋째는 불물속에 휩싸여 이글이글 끓는 골안과 오색구름을 타고 장진강쪽 하늘가로 날아가는 도롱룡을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저 늪속에서 수백년동안 도를 닦은 도롱룡이 천기조화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심보고약한 놈들한테 벌을 내리고 자네같이 마음어진 사람들한테 복을 가져다준거라네. 이제 두고보게. 이 골안을 메운 불물이 식으면 늪의 감탕처럼 기름진 옥토로 변할걸세.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서로 도우며 세세년년 부지런히 이 옥

토벌을 가꾸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될걸세.》

도사할아버지가 흡족한듯 흰수염을 쓸어내리며 셋째한테 새힘과 래일에 대한 큰 희망을 한가슴 안겨주었습니다.

셋째는 그 은정이 너무 고마와 감사의 큰절을 올리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도사할아버지는 벌써 어디로 사라져갔는지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안을 메웠던 불물이 식어 기름진 옥토로 변했습니다.

늪바닥의 몇천년 묵은 기름진 개흙이 불물로 터져올라 골바닥을 메우고 해마다 풍년드는 기름진 덕지대를 펼쳐놓은것이였습니다.

셋째의 안해가 때마침 복스러운 아들 세쌍둥이를 낳아 골안막바지의 외진 초막에 경사에 경사가 겹쳐들었습니다.

셋째네 부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지런히 옥토벌을 가꾸어 행복한 새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안있어 이 덕지대에는 아담한 동기와집마을이 새로 생겨나고 해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정의 풍요한 옥토벌과 살기 좋은 마을이 도롱룡이 날아오르면서 생겨났다고 하여 도롱덕, 도롱덕마을이라 이름지어 부르며 셋째네 삼형제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오고있습니다.

뺑대로 적을 물리친 슬기로운 녀인

김정숙군 룡하로동자구는 장진강상류에 있는 림산마을입니다.

마을 한끝에 있는 강기슭의 바위벼랑에는 다 무너져내린 이끼오른 옛성터가 있습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그 성터를 엄부자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런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먼 옛날 이 외진 산골마을에 엄서방이라고 부르는 몸이 장대하고 성미가 괄괄한 사냥군령감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키가 구척이나 되는 가슴이 쩍 버그러진 힘장수였습니다.

아버지는 활을 잘 쏘는 명궁이였고 아들은 이름난 창잡이였습니다.

그들부자가 나서기만 하면 호랑이도 어렵지 않게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엄부자는 큰 곰을 잡아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사냥터에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집이 내려다보이는 어느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마을이 불길속에 휩싸이고 사람들의 통곡소리, 아우성소리가 가슴을 쳤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내려가보니 며느리가 재무지로 변한 집터에서 창에 찔려 쓰러진 시어머니의 시체를 붙안고 몸부림치고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밭에서 돌아와보니 오랑캐놈들이…》

며느리는 억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던 아들이 창대를 꼬나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을 삭일수 없어 돌아앉아 담배만 뻑뻑 빨던 아버지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타일렀습니다.

《아서라, 결김에 울컥해가지고는 일을 못친다. 다 생각이 있으니 때를 기다려라.》

아들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 하늘에 사무친 이 원한을 어찌 푼단 말이냐!》

그날저녁 엄서방은 마을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랑캐놈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무리지어 달려드는데 우리가 다 죽었소 하고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앉아있겠소이까. 절대로 그럴수 없수다. 이 깊은 산골에까지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 우리끼리라두 성을 쌓고 무술을 익혀가지구 마을을 지켜야 할것 같수다. 어떻소이까? 나는 래일부터라도 당장 일을 시작하자는거우다.》

《옳수다. 좋은 생각이우다.》

《우리 삼부자는 만사전폐하고 엄서방을 따르겠수다.》

다음날부터 마을사람들은 강기슭 룡바위벼랑의 돌을 날라다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기슭의 개버들숲에서는 젊은이들이 활을 쏘고 창을 내던지며 무술훈련에 열을 올리고있었으며 야장간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창검과 활촉을 벼리는 망치소리가 쉬임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엄서방네 부자는 이 모든 일을 돌보느라고 때식을 잊고 뛰여 다녔습니다.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서니 한달도 되기 전에 강기슭을 따라 튼튼한 성벽이 쭉 뻗어나가고 사람들의 무술솜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룡바위쪽에서 북소리가 둥둥둥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망을 보던 젊은이들이 적들이 기여든다고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창과 활을 집어들고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랑캐들의 한무리가 새벽안개를 리용하여 은밀히 강을 건너오고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적들을 쏘아보면서 엄서방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짙은 안개속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물결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엄서방은 놈들이 성밑에 다가왔을 때에야 활시위를 튕겨 놈들의 장수놈을 단 한화살로 쓸어눕히면서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놈들을 겨냥하고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핑핑— 화살은 비발치듯 날아갔습니다. 놈들은 아이쿠—아이쿠—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놈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떠내려가고 강물은 놈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우 몇놈의 원쑤놈들만 살아서 강 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환성을 터쳤습니다.

그러나 엄서방은 놈들이 골탕을 먹었으니 분풀이를 하려고 다시 덤벼들것이라고 하면서 성벽도 더 튼튼히 쌓고 무술훈련도 더 세차게 내밀었습니다.

오랑캐놈들은 엄서방이 예견한대로 더 많은 군사를 내몰아 미친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수백명도 넘는 큰 적을 마을사람들의 적은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 피어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놈들은 비발치듯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무리죽음을 당하였지만 수적우세를 믿고 검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사람들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느날 밤 엄서방의 아들은 놈들을 복수하겠다고 윽윽 벼르더니 한밤중에 창잡이젊은이들을 이끌고 감쪽같이 적진에 뛰여들었습니다.

벼락같이 달려든 그들은 적들의 장막에 불을 지르고 불길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기여나오는 놈들의 가슴에 날창을 박아 무리죽음을 안겼습니다.

질겁한 놈들은 허겁지겁 뒤로 물러섰지만 검은 속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더 많은 군사를 보충해가지고 또 달려들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적은 인원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엄서방의 며느리가 식칼과 빨래방치로 무장한 마을의 아낙네들을 이끌고 싸움이 한창인 성벽으로 달려왔습니다.

엄서방의 아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어서 돌아가우. 사내대장부들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데 연약한 아낙네들이 어쩌겠다는거요?》

다른 젊은이들도 어이없어 허허 웃으며 한마디씩 뇌까렸습니다.

《허허, 여기가 뭐 빨래터인가 하는게지. 가슴에 피가 한동이씩 고인 우리 젊은이들이 지켜서있으니 아무 걱정말고 돌아들 가시우.》

《치마바람이나 일궈서 될 일이 아니우다. 이 난국을 뚫고나가자면 힘이 있어야 하우다.》

그러자 엄서방의 며느리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호호, 뭐 힘으로만 싸우나요. 머리를 써야 한다더군요. 아

마 갑작수를 쓰는데선 남정네들이 우리를 못당할걸요.》
말없이 대견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있던 엄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두둔해줬습니다.
《며늘아가, 옳다. 네 말이 옳다. 손에 창검을 들고 힘내기를 해야만 싸우는게 아니다. 어서 여기 남아서 남정들이 더 잘 싸울수 있게 뒤받침을 해주렴. 그러면 큰 힘이 될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남아서 밥을 지어 성벽을 따라 돌아가면서 식사도 보장하고 화살도 날라다주었습니다. 적들이 성벽으로 기여오를 때면 가마에 물을 끓여 놈들의 머리우에 쏟아부어 무리죽음을 안겼습니다.
사기가 난 남정네들은 강을 건너오는 적들에게 화살을 비발치듯 내쏘아 강 한복판에서 소멸해치웠습니다.
그러나 원쑤놈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덤벼들었습니다.
교활한 적장놈은 강을 건느다가 매번 화살에 맞아 녹아난다는것을 알고 싸움을 질질 끌면서 화살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놈은 잘 무장한 기본부대는 숨겨놓고 적은 인원을 자꾸만 들이밀어 화살만 소모하게 했습니다. 드디여 놈들이 바라던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였습니다.
얼마 안되는 화살이 떨어져 놈들을 강복판에서 소멸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엄서방은 마을사람들을 고무했습니다.
《일없수다. 화살을 만드는 동안 가마를 몽땅 성벽우에 내다걸고 물을 끓이고 돌을 주어다 여기저기 무져놓았다가 성벽으로 기여오르는 놈들을 물벼락, 돌벼락으로 족치면 되우다. 그래도 살아서 기여올라오면 날창벼락을 안겨 마지막 한놈까지 쓸어버리자구요.》
그리하여 남정네들은 성벽 여기저기에 돌을 날라다 무져놓았고 창날을 갈며 마지막창격전을 준비했습니다.
녀인들은 마을의 가마란 가마는 다 성벽우에 내다걸어놓고 물을 끓였습니다.
이쪽 성벽우의 동정만 살피고있던 적장놈은 주먹으로 탁자를 탕

내리치며 뛰쳐일어났습니다.

《때는 왔다! 화살이 떨어졌다! 어서 강을 건너 성벽을 타고 앉자! 총공격이다!》

적장놈은 대기하고있던 기본부대의 대병력을 싸움터로 내몰았습니다.

마지막판가리싸움이 시작되였습니다.

졸병놈들을 공격전에 내몬 적장놈은 긴장한 눈길로 강건너 성벽우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벽우에서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살이 이젠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대병력을 강 한복판으로 내몰았는데 아니, 글쎄 아낙네들이 성벽우로 화살이 무둑무둑 담긴 광주리들을 이고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그들은 성벽우를 돌아다니며 활을 든 남정네들앞에 화살을 가득가득 쌓아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놈들이 우리 기본부대를 강복판으로 끌어내기 위해 화살이 떨어진체 했구나! 이제 화살이 비발처럼 날아들텐데 이를 어쩌면 좋담! 아, 이제라도 어서 퇴각명령을 내려야지 전멸을 당한다. 전멸!!)

적장놈은 자기 머리카락을 쥐여뜯으며 모지름을 쓰더니 전군에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항복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기세등등하여 강물을 건너오던 적의 대병력이 갑자기 발길을 돌려 무질서하게 흩어져 달아나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태가 한 촌아낙네의 머리속에서 꾸며진 속임수였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녘에 성벽밑에 돌가마를 걸어놓고 물을 끓이고있던 엄서방의 며느리는 싸움을 질질 끌며 늦잡던 적들이 왜 갑자기 대병력을 공격에 내모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날카롭게 벼려들고 성벽으로 달려가는 한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떨어졌다는걸 알구 그런다우.》

(아, 그랬댔구나. 그러니 적장놈이 우리쪽을 계속 살펴보고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한테 화살이 많다는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가?…)

이런 생각으로 모대기던 그는 문득 자기 손에 들려있는 빵대가 화살과 비슷하다는것을 느끼게 되였고 이어 베낳이를 할 때 어느 집에서나 다 쓰는 빵대를 모아다 쌓아놓는다면 지금도 이곳을 살피고있는 적장놈의 눈에 보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몇몇 아낙네들과 함께 마을로 달려내려가서 집집을 찾아다니며 빵대를 다 모아 한광주리씩 무둑무둑 담아 이고 헐레벌떡 성벽으로 달려올라온것이였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급히 뛰여다니며 빵대를 쌓아놓을 때도 어떤 남정네들은 꼭 무슨 아이들의 장난같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던 남정들은 그 계략이 딱 들어맞아서 적의 대병력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것을 보고서야 모두 놀라고 크게 감동되여 혀를 찼습니다.

엄서방네 며느리조차도 물을 끓일 때 불쏘시개로 쓰려고 가져다 놓았던 빵대가 그처럼 신통한 계략을 틔워주고 그처럼 큰 은을 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엄서방은 녀인들의 꾀에 속아서 넋을 잃고 도망치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고비에 쓰려고 대기시켜놓았던 아들이 이끄는 기병대에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마지막 한놈까지 소멸하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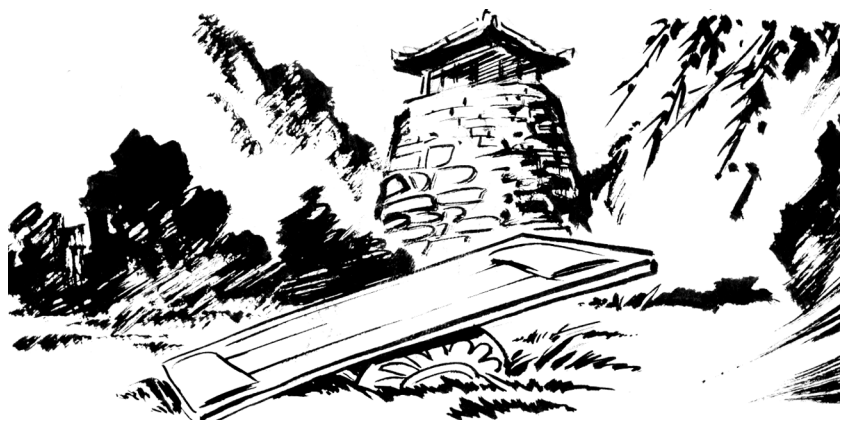
겨우 물에서 헤여나와서 도망치려던 적들은 갑자기 나타나 퇴각로를 막고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드는 젊은 기마군사들의 창날에 찢겨 전멸되고 마을사람들은 큰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마을에는 큰 경사가 났습니다.

엄서방은 너무 기뻐 춤추고 노래하는 마을사람들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자기 처와 녀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위해줘야 하겠네. 어떻게 해서나 원쑤놈들을 쳐물리치고 고향마을을 지켜내자는 녀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의 큰 승리를 안아오지 않았나. 우린 힘으로만 싸울게 아니라 고향산천을 제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 써야 성공할수 있다는 오늘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힘과 슬기를 다같이 갖추어나가세.》

젊은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녀인들을 하찮게 여겨온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엄서방네 부자가 마을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외적을 쳐부신 골이라 하여 룡바위벼랑의 옛성터를 엄부자터라고 부르면서 그 집 녀인의 이야기도 전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널뛰기의 유래

옛날 어느 시골 량반집에 마음씨 곱고 어여쁜 딸이 자라고있었습니다.

내내 집안에만 갇혀살다나니 바깥세상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엔가 나들이를 떠난 틈을 타서 어머니한테 조르고 졸라 나물을 캐러 간다는 핑게로 대문밖에 나섰습니다.

화창한 봄날이라 산기슭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여나고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은방울을 굴리는듯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고있었습니다.

종달바구니를 옆에 끼고 동구밖으로 달려나온 처녀의 작은 가슴은 한없는 기쁨과 환희로 터질듯 부풀어올랐습니다.

그는 들뜬 기분에 사로잡혀 징검돌을 사뿐사뿐 건너디디며 막 시내물을 건너가고있었습니다.

이때 저쪽 산굽이를 에돌아나온 웬 더벅머리총각이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징검다리를 마주 건너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봄바람에 취해 미처 앞뒤를 잘 살피지 못한것이였습니다.

마주 건너오는 처녀를 발견했을 때는 벌써 깜짝 놀란 처녀가 발을 헛딛고 시내물에 막 곤두박히고있었습니다.

총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물로 첨벙첨벙 뛰여나가 얼결에 처녀의 몸을 와락 부둥켜안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다행히 버선발을 물에 적셨을뿐 물속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늘쌍 남자들과 마주서면 큰일난다고 타일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총각의 품에 안겼으니…

처녀는 귀뿌리가 빨개지며 얼른 총각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총각도 무안하였던지 흠칫 놀라 물속으로 뒤걸음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어. … 거기서 물에 빠지는걸 보구 나도 모르게 그만…》

처녀가 얼핏 쳐다보니 베적삼을 몸에 걸치고 지게를 걸머진 나무군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순박하면서도 대바른 성품이 느껴져 수집은 눈길로 다시 할깃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볕에 타서 거밋거밋한 얼굴에 누덕누덕 기운 허름한 옷을 몸에 걸쳤으나 정기가 도는 어글어글한 두눈과 너부죽한 얼굴, 쩍 버그러진 어깨와 장대한 체구… 어느모로 보나 믿음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모습이였습니다.

낯모르는 처녀가 물참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들고도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줄을 몰라하니 그 성품이 얼마나 순진하고 너그러운것입니까.

처녀는 자기도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정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사온데…》

처녀는 다소곳이 고개숙여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아, 이러지 마시우. 그게 뭐…》

총각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허둥지둥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이날 량반집 귀동녀가 가난한 나무군총각을 따라 산에까지 가서 나물을 뜯게 되였습니다.

이팔청춘 꽃나이가 되도록 량반집 높은 담장안에 갇혀 아버지의 엄한 훈시속에서 자라난 처녀는 산나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가야 그런것을 캘수 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군총각이 나무도 하지 못하고 데리고다니며 도라지며 삽주 등 산나물이 어떤것인지 가르쳐주고 자기 손으로 산나물을 한바구니 해주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 후더운 인정에 사로잡힌 처녀는 그후에도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아버지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 그 총각을 따라다니며 나물도 뜯고 정담도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하루라도 만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사이가 되고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들사이의 관계를 눈치챈 처녀의 아버지는 량반집가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야단을 치면서 딸이 한발자국도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방안에 가두고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럴수록 처녀총각의 가슴속에는 서로 그리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의젓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눈물로 치마폭을 적시며 빈방에서 홀로 애를 태웠고 총각은 처녀가 못견디게 그리워 나무하러도 못가고 량반집 높은 담장만 빙빙 에돌면서 밖에서 속을 태웠습니다.

그리움속에 하루해가 저물고 그리움속에 밤이 새여 또 새날이 밝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처녀가 갇혀있는 방안의 작은 뙤창문으로 뒤뜰안의 높은 담장너머에서 울리는 구슬픈 피리소리가 알릴듯말듯 들려왔습니다.

피리소리는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듯 애절한 음조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군총각이 처녀를 그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피리소리에 담아 보내는 애타는 하소연이였습니다.

처녀는 그 애끓는 피리소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총각이 부는 풀피리소리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서로 만나 정담을 나눌 때 들려주군 하던 그 피리소리를 어찌 꿈엔들 잊었겠습니까.

처녀는 뙤창너머 피리소리가 울려오는 하늘가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때없이 떠오르는 총각의 정다운 모습만 하염없이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느라니 두볼로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끼니도 잊고 잠도 못자니 처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제일 속을 태운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얘, 너 이 에미속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걸 보자고 그러냐. 어서 이 꿀물이라도 한모금 마시고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러나 딸은 들은둥만둥 실신한 사람처럼 뙤창너머 먼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며 호— 하고 가는 한숨만 내쉴뿐이였습니다.

이러다나니 남들이 돼지를 잡고 떡을 치며 흥성거리는 설날전야에도 이 집만은 초상난 집처럼 괴괴하였습니다.

이날밤 처녀의 어머니는 남편한테 그러다간 외동딸을 죽이겠다고, 뜰안에 나가 바람이라도 좀 쏘이게 하자고 울면서 애걸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처녀의 아버지도 끝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승낙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설날아침부터 뒤뜰안에 나가 몇달만에 처음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기분은 조금도 돌려세울수 없었습니다.

피리소리는 설날에도 변함없이 담장밖에서 울려오고있었습니다.

처녀는 발돋움을 하여 밖을 내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높아서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밖을 바라볼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생각하다못해 발밑에 널쪼각을 주어다놓고 그우에 올라 발돋움하며 밖을 내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리운 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번에는 널판자밑에 또 나무토막을 주어다 고여보았습니다.

그래도 풀피리소리만 울려올뿐 밖이 내다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토막을 널판자의 한가운데다 고이고 한쪽에 올라서서 몸종처녀한테 다른 한쪽에 올라 널판을 힘껏 굴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몸종처녀가 널판자의 다른 한쪽에 올라서서 발을 구르니 자기가 서있는 널판자쪽이 건듯 들리면서 더 높이 발돋움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담장밖은 내다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종처녀한테 더 힘껏 널판끝을 구르라고 거듭거듭 부탁하면서 다른 한끝에서 자기도 번갈아 발을 구르며 몸을 솟구쳐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여 지금의 널뛰기와 비슷한 동작이 계속 반복되게 되였습니다.

처녀는 몸종처녀더러 더 힘껏 굴러달라고 소리치면서 자기도 번갈아 널판끝을 구르며 더 높이 몸을 솟구쳐보려고 모지름을 썼습니다.

처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내돋고 얼굴이 해쓱해졌으나 그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끝내 뜻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몇달째나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마음을 쓰다나니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서 더 뻗쳐낼 기운이 없었던것입니다.

처녀는 끝내 그리움에 타는 눈길로 피리소리가 울려오는 담장밖을 바라보며 널판자우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처녀네 집 하인들한테서 이 소식을 들은 나무군총각은 남들이 다 잠든 야밤삼경에 처녀를 만나보려고 바줄을 타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이미 숨이 지고 그의 집에서는 가슴을 허비는 통곡소리만 울려나왔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처녀의 이름을 부르던 총각은 더

는 울분을 참을수 없어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마후 처녀의 집은 불길속에 휩싸이고 나무군총각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후 몸종처녀의 입을 통해 그리운 님이 보고싶어 널판자우에서 발을 구르고 몸을 솟구치던 그날의 이야기가 마을사람들속에 전해지고 마침내는 처녀들의 놀음놀이의 하나로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저기로 널리 퍼져나가고 대를 이어 전해져 대중적인 민속놀이인 널뛰기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녀인들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널리 보급된 널뛰기를 한껏 즐기면서 량반, 상놈의 차별이 심하고 남녀가 자유로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던 낡은 봉건유습에 억눌려 님을 그리며 짧은 생을 한스럽게 마친 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가고있습니다.

부엌녀와 송편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랑캐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안개자욱한 이른새벽에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여들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미처 어쩔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창과 칼을 꼬나든 놈들이 에워싸고있어서 꼼짝달싹할수 없었습니다.

눈을 펀히 뜨고 앉아서 쌀과 재물을 털리웠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아먹어도 가슴을 치며 통탄할뿐 별재간이 없었습니다.

무술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다고 으시대던 배나무집 황선달도 토방에 쭈그리고앉아서 먼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풀풀 내쉬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쉴게 아니라 땅을 든든히 딛고 일어서야 하오이다.》

뜰안을 쓸고있던 마당쇠령감이 옆으로 지나가며 슬쩍 한마디 여쭈었습니다.

한평생 등이 휘도록 땅을 뚜지며 늙어온 착하고 부지런한 하

인이였습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한마디 말이 없던 입이 무거운 로인이 하는 말이여서 그런지 무게있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일밖에 모르는 하인의 말이라 하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놈들이 앞뒤에 지켜서있으니 어쩌는수가 없구나.》

황선달은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마을의 힘장수들을 불러모으고 어떻게 하면 봉화를 지펴 먼곳에 있는 우리 군사들한테 알릴가 하는 생각뿐이였습니다.

《아,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할데도 없으니…》

황선달은 저혼자 중얼거리며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울바자밖에서 망을 보고있던 놈들의 파수병이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라고 꽥 소리쳤습니다. 황선달은 피가 터지게 입술을 깨물며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저녁이였습니다.

밥상을 들고 안방에 들어왔던 부엌데기소녀가 한참이나 머뭇거리며 바재이더니 수집게 한마디 여쭈었습니다.

《저… 저, 선다님께서 글을 써주시오면 소녀가 마을사람들한테 전해드릴가 하나이다.》

황선달은 수저를 든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선다님께서 품고계신 뜻을…》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래일모레가 중원명절(백중날, 음력 칠월보름, 일을 하지 않고 명절로 즐김.)이옵니다. 쪽지를 써주시오면 떡속에 싸넣어서 전해볼가 하나이다.》

《음, 그것 참말 묘한 계책이로다. 그런데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고?》

《우리의 명절풍습이라고 하면서 떡을 많이 빚어서 먼저 굶주린 놈들에게 실컷 먹여 경계를 늦추어놓겠소이다. 그다음에 글쪽지가 든 떡을 슬쩍 돌리면 될듯 하오이다.》

《음, 그래, 그래. 네 궁냥이 정말 신통하다.》

황선달은 너무도 기쁘고 대견스러워서 여느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엌데기소녀의 손목을 덥석 부여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고개를 수그리고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부엌구석에서 그릇이나 닦고 불이나 때던 저 천한 부엌데기소녀의 머리속에서 저렇듯 놀라운 생각이 움터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황선달이였습니다. 변변한 이름 두자도 가지지 못해서 그저 부엌녀라 부르며 천대해온 저 보잘것없는 송씨성을 가진 소녀의 작은 가슴속에 그렇듯 깨끗하고 숭고한 감정이 불타오르고있었단 말인가.

황선달은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 마당쇠령감이 일러주던 말마디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먼곳에 있는 군사들과 몇몇 장수들만 생각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했던고. … 그래, 그래. 곁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무서울게 없구말구. …)

그 이튿날 아침 황선달은 온 집안사람들을 은밀히 안방에 모여놓고 고간의 쌀을 다 털어내여 떡을 빚으라고 일렀습니다.

가장의 훈시여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많은 떡을 빚자니 일손이 딸렸습니다.

놈들이 지켜서있어서 언제나 서로 오가며 살던 이웃들의 손을 빌릴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적을 치기 위한 의로운 일이니라.

그러니 뭐 량반상놈을 가릴게 없다.》

황선달은 이러면서 맨상투바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떡함지앞에 나앉았습니다.

집안의 웃어른이 하루종일 버티고앉아서 떡을 빚는 판이니 하인들은 더 말할게 없고 황선달의 마누라와 아들딸들, 로할아버지와 로할머니까지 떡을 빚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밤이 되자 황선달은 웃방문을 닫아걸고 그안에 들어앉아 글을 쓰

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수들한테만 쓴것이 아니라 온 마을사람들을 싸움에로 부르는 글을 써서 집집에 다 돌리자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황선달은 마누라와 부엌녀를 웃방으로 불러들여 벼루에 먹도 갈고 다 써놓은 글쪽지를 똘똘 말아서 떡속에 밀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밤을 지새웠지만 불빛을 가리우고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한 일이여서 파수병이 조금도 눈치를 챌수 없었습니다.

드디여 기다리던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전같으면 새옷 해입고 떡 해먹고 들놀이, 민속놀이로 더없이 흥성거릴 중원명절날이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총칼밑에 짓눌린 마을은 스산하기만 하였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창칼을 절거덩거리는 소리와 귀에 설은 놈들의 고함소리가 때없이 울려 사람들의 가슴을 옥죄일뿐이였습니다.

오직 황선달네 집에서만 명절을 쇠는것 같았습니다.

황선달은 마을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명주두루마기에 통량갓을 눌러쓰고 싱글벙글 웃으며 적의 우두머리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례절밝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명절날이면 떡을 빚어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며 하루를 즐겼수다. 란시가 돼놔서 잘 차리지는 못했지만 사양말고 많이 들어주기 바라오.》

적의 우두머리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황선달의 웃는 얼굴과 명절음식상을 세세히 살펴보더니 어서 주인이 먼저 먹어보라고 손시늉을 했습니다.

《허허, 정 의심스러우면 그럽시다그려.》

황선달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놈이 떠주는 청주 한대접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커다란 닭의 다리를 맛있게 뜯어먹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함께 온 장수들과 상앞에 다가앉아 권하는 술과 떡과 고기를 그대로 다 받아먹었습니다.

《카— 아주 맛좋구만.》

놈들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면서 어서 졸병들한테도 떡을 내돌리라고 허락했습니다.

부엌녀는 떡을 한함지 담아가지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먼저 놈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싸움판에 내몰려 배가 출출하던 놈들은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자 범벅덩이에 쉬파리 달라붙듯 모여들어 서로 밀치닥거리며 게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청주까지 한보시기씩 얻어마신 놈들은 기분이 좋아서 《좋아, 아주 좋아.》 하면서 부엌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었습니다.

부엌녀는 애써 눈웃음을 지으며 놈들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따로 숨겨놓았던 떡을 꺼내여 이웃들한테 돌려주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처음에 부엌녀를 놈들의 개년이라고 욕하면서 퉤하고 얼굴에 침을 뱉았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떡을 받아서 더럽다고 개한테 던져주었습니다. 부엌녀는 떡속에 말아넣은 글쪽지가 드러날가봐 바람처럼 달려들어 떡을 빼앗아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놈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손벽을 치며 히히덕거렸습니다.

부엌녀는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놈들을 미워하기때문에 그러는것이라고 마음을 달래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슬슬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귀속말로 조용히 일깨워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내던지는 돌덩이에 얻어맞으면서도 기어이 손에 떡을 쥐여주고야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떡속에 든 종이쪽지를 보고서야 깜짝 놀라서 자신을 뉘우치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소이까. 남정들이건 녀인네들이건 다 들고일어나 놈들을 몰아내야 하겠수다. 팔월 한가위날 꽹과리소리가 나면 다 들고일어나야 하겠수다.

도끼와 쇠스랑으로 찍어넘겨도 좋고 머리우에 끓는 물을 끼얹어

도 좋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제 집에 든 놈들은 제손으로 요정내야 하겠수다. 그러자면 놈들이 마음을 놓고 술을 퍼마시도록 미리미리 잘 구슬려놓아야 하오이다. 머리를 쓰고 지혜를 모아 거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바라나이다. 황선달.》

정말 가슴의 피가 끓게 하는 글이였습니다.

(아, 이런 글을 전해준 처녀를 놈의 개라고 했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부엌녀를 대할가.)

마을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로써 잘못을 씻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모든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속에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놈들한테 생일턱을 내는가 하면 자는 방에 불도 때주고 세수물도 데워주었습니다.

원쑤놈들은 이게 다 황선달의 본을 따르게 된 덕분이라고 그를 찾아와서 머리를 갑삭거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놈들을 안심시켜놓고 슬금슬금 눈치채지 못하게 싸움차비를 해나갔습니다.

놈들한테 술을 먹여놓고 취해 곤드라진 사이에 아궁에서 날창을 벼려냈으며 세수물을 데워준다고 하면서 그놈들을 요정낼 기름가마를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여 마음조이며 기다리던 팔월 한가위날이 밝아왔습니다.

마을의 집집에서 명절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햇곡식으로 떡을 빚고 술을 담가 오랑캐놈들한테 먹였습니다. 놈들은 동산우에 쟁반같은 보름달이 솟아오르기도 전에 곤드레만드레 취해버렸습니다.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면서 저희놈들끼리 칼부림을 하며 싸움질도 하고 고향집이 그리워 굴쩍굴쩍 눈물도 짰습니다.

파수병놈들까지 창을 내던지고 주저앉아 꺼떡꺼떡 졸았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배나무집에서 꽹과리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습니다.

넓은 뜰안에 차일을 치고 적의 우두머리들과 장수들을 청해다가 하루종일 부어라 마셔라 술놀이판을 벌려놓은 황선달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회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적의 장수들은 모두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앞에 나와 칼춤을 추던 우두머리놈도 장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졸기 시작하자 흥이 깨져서 장검을 옆에 집어던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벼락같이 손을 내밀어 칼을 집어든 황선달은 벌떡 일어서면서 우두머리놈의 목을 베여던졌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당쇠령감이 꽹당 꽹과리를 힘차게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시중을 들고있던 부엌녀는 술상을 집어던지고 가마에서 설설끓는 뜨거운 물을 한버치 퍼내여 장수놈들의 머리우에 들씌웠습니다.

장수들은 불에 덴 승냥이무리마냥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싸쥐고 껑충껑충 맴돌아쳤습니다.

어떤 놈은 얼이 빠져 마구 칼부림을 해댔습니다.

황선달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삼대베듯 놈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잠간새에 적의 장수들을 몽땅 요정낸 황선달은 대문을 차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집저집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서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고있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한 놈들을 방안에 몰아넣고 불을 지른 모양이였습니다.

황선달은 어느 집 담모퉁이에서 도망치는 놈들을 장검으로 찍어넘기고 곧장 아래마을쪽으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이쪽은 일이 잘되는것 같아서 아래마을이 어떻게 되였는지 알아보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씨름군으로 소문난 백장사와 막봉이네 두 형제가 도끼와 쇠스랑을 들고 마주달려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손을 마주잡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누가 지펴올렸는지 뒤동산 봉화대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이 창검을 집어던지고 강을 건너 도망치고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싸움이 끝났던것입니다.

마을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습니다.

《야, 이 친구 살았구나!》

《여부가 있나. 우리 집에선 놈들을 한두름이나 그물에 얽어놓고 물고기잡듯 족쳤다네.》

《거 참, 볼만 했겠구만. 나도 취해 자빠진 놈들을 콩마당질하듯 도리깨를 휘둘러 요정냈다네.》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서 싸워이긴 자랑을 저마다 엮어댔습니다.

힘이 솟고 기쁨이 넘치는 밤이였습니다.

싸워이긴 마을사람들은 황선달을 에워싸고 저마다 인사차림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선다님이 잘 이끌어준 덕분이웨다.》

《선다님이 아니였다면 어찌될번 하였소.》

황선달은 두손을 홰홰 내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아니웨다. 오늘인사는 마땅히 마당쇠령감과 부엌녀가 받아야 하우다. 령너머에서 우리 군사들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죽지부러진 매처럼 주저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힘을 주고 지혜를 준게 누군줄 아우. 그게 바로 마당쇠령감과 부엌녀올시다.》

마을사람들의 눈앞에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놈들속을 헤치며 쪽지 든 떡을 나누어주던 부엌녀의 장한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오랑캐놈들의 개라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기어이 따라와서 일깨워주던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어졌습니다.

《애, 부엌녀야, 너 어디 있느냐? 수집어하지 말고 어서 이리 나오너라. 마을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싶어한다.》

황선달이 사방을 둘러보며 이렇게 웨쳤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여기저기 휘둘러보았지만 부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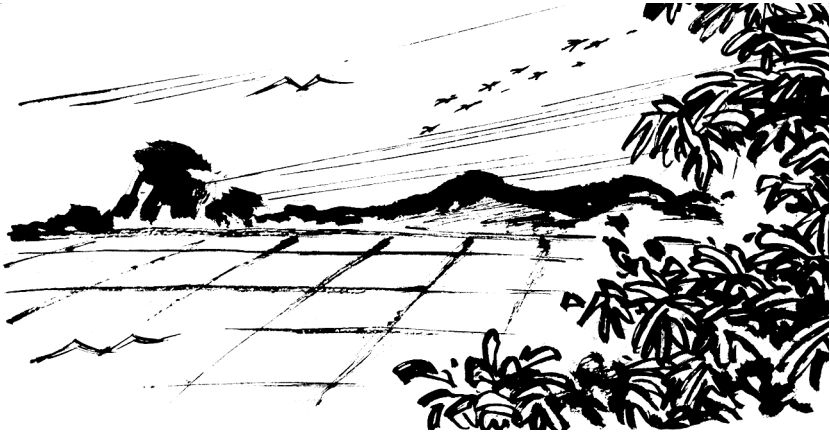
《얘, 부엌녀야!》
여기저기서 부엌녀를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달빛이 푸릿한 어느 집 담모퉁이로 등이 굽은 한 로인이 웬 소녀를 붙안고 어정어정 걸어나왔습니다.
《부엌녀는 여기 있소이다.》
마당쇠령감의 슬픔에 잠긴 석쉼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부엌녀가?!》
황선달은 너무 억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마주달려가서 소녀의 시체를 붙안고 목메여 부르짖었습니다.
《얘, 부엌녀야, 눈을 떠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일어나 이 못난 년 뺨이라도 한대 갈겨주렴. 제발 용서한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렴. 어허허 흑흑…》
떡을 받아 개한테 던져주던 아낙네였습니다.
《아, 우리 부엌녀가 이렇게 가다니… 싸움이나 끝나면 보란듯이 큰 잔치를 차리구 저 막봉이녀석과 짝을 무어 잘살게 해주자던노릇이 이렇게 되구말았단 말인가. 어허이구…》
황선달도 더 참을수 없었던지 부엌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지들 마시우. 우리 부엌녀는 남 부끄럽지 않게 잘 싸우다 갔다우. 연약한 아녀자의 몸이지만 오랑캐놈들의 머리우에 끓는 물을 퍼붓다가 마구 휘젓는 놈들의 눈먼칼질에 그만 가슴을 찔렸구려. 이 늙은것의 품에서 눈을 감으면서두 어서 놈들을 내쫓구 모두 잘살게 되기만 바란다구 했수다. 아, 왜 이 늙은게 먼저 가지 못하구 앞길이 구만리같은 우리 부엌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지… 으흐흐… 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두 부엌녀만은 잊지 못할거유.》
마당쇠령감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는듯 뜨겁게 울렸습니다.
《옳수다. 우리 부엌녀는 헛되이 살지 않았수다. 몸은 비록 죽었으나 그 불같은 뜨거운 넋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영 함께 살아있을것이오이다.》
황선달이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눈물을 뿌리며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부엌녀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에 송씨성을 가진 이름없는 처녀를 잊지 말라는듯이 무덤두리에 다박솔이 가득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후 이고장 사람들은 다박솔 우거진 그 산언덕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여 마을을 더 잘 꾸리고 꿋꿋이 지켜나갔기때문에 외적들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해마다 달밝은 팔월 한가위날이면 꼭꼭 떡을 빚어서 서로 나누어먹었는데 부엌녀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넣었던 글쪽지대신 팥보숭이소를 넣고 그가 고이 잠들어있는 산기슭의 솔잎을 뜯어다가 시루밑에 깔고 떡을 쪄냈다고 합니다.

부엌녀가 살아있을 때 살뜰히 불러주지 못한 그의 성자를 따서 이 떡에 송편이라는 정다운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고 솔잎우에 쪄낸 솔향기 감미롭게 풍기는 떡이라고 해서 송편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팔월 한가위날이면 사람들은 의례히 이 떡을 빚어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면서 부엌녀에 대한 전설을 대를 이어 전해내려왔습니다.

닫게벌과 검구멍

신파에서 혜산쪽으로 가느라면 포전이 널려있는 그리 크지 않은 들판이 나집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압록강기슭의 이 작은 들판을 닫게벌이라고 부르며 강건너 가파로운 벼랑턱에 보이는 작은 동굴을 검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되였을가요.

거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먼 옛날 이곳은 여기저기 귀틀집들이 널려있는 한적한 산골마을이였다고 합니다.

강기슭의 메마른 돌밭이나 뚜져먹는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인데 압록강너머에 사는 녀진족들이 뻔질나게 넘나들며 로략질을 하기때문에 이곳에 사는 농부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땀흘려 한해농사를 지어놓으면 하루밤사이에 다 털어가기가 일쑤이고 집짐승을 기르거나 조금이라도 인물 밴밴한 딸자식을 가진

집들에서는 하루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대들면 마구 칼탕을 쳐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을에는 군사들이 좀 있었지만 이런 외진 산골마을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더는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등지고 한집, 두집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집에 담차고 령리한 대여섯살난 떠꺼머리소년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마을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사짐을 이고지고 떠나는것을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울면서 떠나나요?》

어머니는 그게 남의 일같지 않아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훔치며 말해주었습니다.

《오랑캐놈들이 못살게 굴어서 할수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자니 가슴이 아파서 그런단다.》

소년은 종주먹을 틀어쥐며 분해했습니다.

《흥, 그놈들과 해봐야지 왜 떠나요. 내가 오랑캐놈들을 족쳐버리겠어요.》

어머니는 어린것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래,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나 지금은 안돼. 어서 커서 고향땅을 지켜 싸우는 장수가 되거라.》

그날부터 그 소년은 눈만 뜨면 동네아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했습니다.

고향땅을 지키는 장수가 되겠다고 나무칼을 휘두르며 오랑캐를 치는 놀음놀이로 해를 지우군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정말 기특한 애라고 칭찬했지만 집을 떠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네 식구들이 또 보따리를 이고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동구밖에서 칼에 찔려 피가 줄줄 흐르는 손으로 무슨 나무막대기를 깎고있는 그 소년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너 어쩌자고 칼장난을 하느냐? 어서 그만둬라!》

소년과 늘 같이 놀던 그 집 소녀가 손에 들었던 보따리를 집어던지고 뽀르르 달려가서 수건으로 피를 닦고 손을 처매주었습니다.

《이걸 어쩌니. 제발 칼장난을 하지 말아.》

소년은 볼이 부어 소녀의 손을 홱 뿌리쳤습니다.

《비켜! 자꾸 떠나는거 난 싫어! 피가 나도 좋아. 난 나무말을 깎아타구 오랑캐를 치려구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진 그 집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음, 참 용타. 이 늙은게 망녕이 들었구나. 애들까지 저러는데 나살이나 먹었다는게 그런 생각은 못하고 고향을 뜨려 했으니… 안되겠다.》

할아버지는 그자리에서 가족들을 집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그 소리를 하고 다같이 마을에 남아서 고향땅을 지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물론 조무래기아이들까지 다 떨쳐나서서 무술훈련을 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그 앞장에는 언제나 그 나어린 소년이 장수가 되여 나무칼을 추켜들고 나서군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때마침 후치령너머에서 말잔등에 소금짐을 싣고 들어오던 소금장사가 마을에서 묵어가게 되였습니다.

새끼밴 어미말이 새끼낳이를 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운 짐을 무리하게 지워서 그런지 달이 차지 못한 팔삭둥이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 망아지는 잘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길이 급한 소금장사는 할수없이 그 망아지를 누은 값으로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얻어들은 옆집소녀는 할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리며 그 망아지를 사서 그 소년한테 주자고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기특하다고 머리를 쓸어주면서도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자기도 그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손에 쥔것이 없는게 한스러웠습니다.

오죽했으면 고향마을을 떠나려고까지 하였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날저녁 사랑방에 마실을 온 사람들과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해보았습니다.

여럿이 모여 그 소년을 돕자고 마음을 합치니 방도가 나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집집에서 낟알을 한되박씩 모아 그 기특한 소년한테 망아지를 사주게 되였습니다.

소년은 그 말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옆집소녀가 그를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아침저녁 풀죽을 쑤어먹으면서도 아껴두었던 좁쌀로 죽을 쑤어먹였고 망아지의 몸이 좀 추서자 무술훈련하는데로 데리고나가 만문한 풀도 뜯게 하고 내닫는 련습도 시켰습니다.

저녁이면 늪으로 끌고가서 시원한 물로 잔등의 땀과 먼지도 말끔히 씻어주었고 솔로 털갈기도 비다듬어주었습니다.

망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허리가 늘씬하고 날랜 준마로 변하였습니다.

그 나날 소년도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무쇠팔뚝의 름름한 소년장수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날 또다시 오랑캐놈들이 강을 건너 마을로 달려들었습니다.

준마에 올라 검을 추켜든 소년장수를 따라 온 마을 젊은이들이 손에 쟁기를 비껴들고 떨쳐나섰습니다. 부녀자들도 식칼과

빨래방치를 들고 따라나섰습니다.

소년장수가 질풍같이 말을 몰아 도망치는 적장의 목을 검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기세에 질겁한 오랑캐놈들은 싸움도 걸어보지 못하고 강건너 숲속으로 황황히 도망쳐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처음 오랑캐놈들을 쫓아낸 마을사람들은 징과 북을 두드리며 명절날처럼 흥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앞장에서 적들을 족치던 소년장수는 도망치는 원쑤놈들을 쏘아보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분해했습니다.

《아, 준마는 있는데 변변한 장검 한자루 없어서 원쑤놈들을 더 족치지 못하구 돌려보내누나!》

그 애끓는 절절한 웨침소리가 쩌렁쩌렁 강건너 절벽에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벼랑 낭떠러지에서 바위돌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면서 펑하고 굴문이 열리고 그속에서 자라 한마리가 입에 자그마한 보검을 하나 물고 엉금엉금 기여나왔습니다.

자라는 보검을 소년장수앞에 내놓으면서 아뢰였습니다.

《자, 신령님이 보내신 이 보검을 받으소서.》

소년장수는 머리를 가로흔들었습니다.

《아니, 그 성의 고맙기 그지없다. 허나 나는 이 한몸 지키자고 나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장난감같은 보검은 필요없다.》

자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 번쩍번쩍 빛나는 장검을 동무자라와 함께 맞들고 나왔습니다. 그 무게가 백근도 실히 될 날이 시퍼렇게 선 장검이였습니다.

소년장수가 그 장검을 휙 한번 머리우로 휘두르니 마른 하늘에 번쩍 번개가 일면서 벼랑턱이 와르르 무너져내리고 아름드리나무들이 동강이 나서 날아올랐습니다.

《음, 이만하면 한번 써볼만 하구나. 정말 고맙다.》

《마음에 든다니 신령님께서도 기뻐하실거웨다.

어서 그 장검으로 날강도놈들을 요정내시오이다.》

자라들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새초가 우거진 강기슭의 들판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요란한 말발굽소리와 함성소리가 터져오르고 말울음소리와 휙휙 장검으로 허공중을 헤가르는 소리가 산촌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마을의 야장간에서는 뚝딱뚝딱 창칼을 벼리는 마치소리가 가락맞게 울려나왔습니다.

삼년석달 구슬땀을 흘리며 도를 닦은 보람이 있어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어깨가 쩍 버그러지고 팔뚝이 무쇠덩이같이 힘장수로, 창검을 잘 쓰고 활 잘 쏘는 무사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년장수의 무술솜씨는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갈대를 엮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런이 세워놓으면 캄캄한 야밤에도 준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장검을 휘둘러 하나같이 상투만 잘라던졌습니다.

하늘중천에 높이 떠도는 갈가마귀무리도 내달리는 말잔등에 척 누워서 한순간에 화살을 비발같이 날려 모두 숨통을 꿰질러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강을 건너왔던 오랑캐놈들은 단 한놈도 살아돌아가지 못하고 죽어너부러졌습니다. 놈들은 준마를 타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휘둘러치는 소년장수의 서슬푸른 장검에 목이 잘려 삼대쓰러지듯 하였고 마을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내지르는 창에 찔려 여기저기서 아이쿠— 아이쿠— 비명을 지르며 나딩굴었습니다.

겨우 살아서 도망치던 놈들도 마을의 늙은이들이 쏜 화살에 맞아 강을 못건느고 피를 토하며 너부러졌습니다.

겁에 질린 오랑캐놈들은 다시는 마을에 덤벼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마음을 푹 놓고 서로 도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화목하게 살수 있게 되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갔던 사람들

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여앉기만 하면 제 고장에서 난 소년장수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고을의 량반벼슬아치들은 쉬쉬 하면서 될수록 그의 공로를 덮어버리고 제놈들의 낯을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수도의 높은 성벽을 넘어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소년장수가 비록 가난하고 천한 집안출신이지만 그 공적을 무시할수 없어서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국경을 지키는 큰 장수로 임명했습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그 소년장수가 준마를 타고 내달리며 무술훈련을 하던 새초 우거진 들판을 닫게벌이라 하고 자라가 장검을 물고 나온 강건너 벼랑중턱의 작은 동굴을 검구멍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며 자기 고향마을에서 나서자라난 소년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해갔습니다.

구슬픈 여울물소리

압록강기슭에 가면 여울물소리 유정하게 들려오는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한문글자로 구슬 민자와 여울 탄자를 써서 민탄이라고 부르는 오붓한 강변마을입니다.

은구슬을 굴리는듯한 여울물소리, 얼마나 감미로운 산촌의 정서를 자아내는 물소리입니까.

저녁을 먹고 모기쑥내 싱그러운 토방의 멍석에 앉아있노라면 주알주알 쉬임없이 흐르는 여울의 물소리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정답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여울물소리가 언제나 그렇게 유정하게 들려온것은 아닙니다.

먼 옛날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자라난 열여덟 꽃나이의 아릿다운 공주가 아버지인 왕의 눈에 나서 나라 한끝의 외진 산골마을인 이 민탄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민탄이란 이름이 붙지 않은 이름없는 마을이였습니다.

공주의 아버지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여 웅장한 궁전을 지어놓고 밤낮 술놀이와 사냥놀이로 세월을 보내는 부화방탕하고 무능한 왕이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주위를 맴돌며 눈웃음치는 간신들의 수에 넘어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지어 사랑하는 딸까지 왕궁에서 쫓아내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 나라형편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왕의 기분을 맞출줄 아는 간교한 간신의 무리들이 나라의 높은 관직에 올라 저마다 권세를 부리면서 나라재산을 탕진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략탈하여 제 배를 채웠습니다.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고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여기저기서 들고일어났습니다. 바다건너 섬오랑캐놈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피묻은 칼을 갈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간신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정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얼마 못가서 나라와 민족이 큰 화를 입고 망하게 되리라는것이 불을 보듯 너무도 뻔한 일로 되고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몇몇 량심적인 젊은이들이 어서 빨리 군사를 키워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나섰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요사스러운 간신의 무리를 처단하고 정사를 바로잡을 책략도 꾸미고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젊은이들의 주동인물인 정가성을 가진 총각한테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어 저혼자 그를 사모하고있었습니다.

언제인가 그 젊은이가 부왕앞에 꿇어앉은 모습을 얼핏 보았는데 웬일인지 안온하던 그의 가슴속에 파문이 일어나고 자꾸만 울렁거려지는것이 이상스러웠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에 어깨가 쩍 버그러지고 탄력있는 몸매, 서글서글한 미소가 어린 환한 얼굴과 시원스러운 검은 눈동자… 그의 의젓한 모습이 때없이 눈앞에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아이참, 내가 왜 이럴가. 그이는 나를 생각도 안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리워지는것이 그 총각의 름름한 모습이였습니다.

어느날 공주는 부왕의 방에서 그 젊은이가 써올린 청원서를 우연히 보게 되였습니다.

룡이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활달한 필치로 대번에 붓을 휘둘러 쓴듯한 글월에서는 정정당당한 주장과 정연한 론리로 군사를 키워야 나라와 민족을 방비하고 빛내일수 있다고 역설한 그의 주장이 당당히 울려나오는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그 글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올라설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가슴뜨겁게 느꼈고 그럴수록 그한테 마음이 더 끌리는것을 자기로서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자기의 이런 애틋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겨운 미소 한번 보내주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고충으로 애달픈 나날을 보내고있는 때에 서대감의 아들이 그 유들유들 살진 징그러운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공주한테 치근치근 다가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애비 서대감은 부왕의 발밑에 찰찰 감겨돌아가면서 갖은 간사스러운 요설과 낯간지러운 얄미운 웃음으로 높은 신임을 얻어 오늘의 높은 자리에 기여오른 교활하고 약삭바른 늙은 신하였습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서대감의 아들도 여간한 모략가가 아니였습니다.

애비의 권고대로 공주만 잘 홀려내여 왕의 부마가 되는 날이면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수 있는 높은 자리에도 손쉽게 오를수 있다는 타산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공주한테 접근하였던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는 그를 쌀쌀하게 대하였으며 조금도 곁을 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정씨총각이 더욱 돋보였으며 그에게 쏠리는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를 보지

못하면 마음속이 싱숭생숭하여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공주는 그 총각이 왕궁에 한번 들려주었으면 하는 한가지 기대를 품고 궁전의 외랑을 거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왕의 별실에서 무엇인가 열기띤 목소리가 새여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슬그머니 창가로 다가가서 방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더니 뜻밖에도 그자리에 서대감과 그의 아들이 꿇어앉아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무슨 종이장을 부왕한테 올리면서 누가 엿들을세라 목소리를 죽여가며 열심히 아뢰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월에 적혀있는바와 같이 그자들이 주장하는 〈양병론〉은 군사를 일으켜 존엄높은 왕위를 찬탈하자는 하나의 모략으로 엮어진 흉악무도한 간책이 분명하오이다.》

서대감의 간특한 목소리는 너무도 왕의 턱밑에 다가붙어 속삭이기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버럭 화를 내는 부왕의 성난 목소리만 밖으로 울려나왔습니다.

공주는 무슨 일인지 심상치 않은 음모가 꾸며지고있다는 예감이 들어 몹시 긴장해졌습니다. 공주는 더 바싹 창가에 다가서서 귀를 강구었습니다.

부왕은 서대감의 말을 귀가 솔깃해서 듣고앉아있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험하게 이지러지면서 또다시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에잇, 간악한 역적놈들! 양병이요 방비요 하고 요사를 떨더니 끝내 꼬리를 드러냈구나.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런 놈들을 그냥 놔두었느냐?》

그러자 서대감의 아들놈이 왕의 턱밑으로 다가앉으며 구슬려댔습니다.

《상감마마, 존귀하신 몸 돌보시여 부디 진정하시오이다. 상감께 충실한 소신들이 살아있는 한 그 흉악무도한 악당들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일망타진할것이오니 부디 안심하옵소서.》

그렇지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종이장을 와락 내던지며 호령했습니다.

《당장 그 배은망덕한 악당놈들을 잡아내여 릉지처참하라!》

그 순간 공주는 그 종이장이 전날 부왕의 방에서 본 그 젊은이의 청원서라는것을 알아보고 와뜰 놀랐습니다.

(아, 저 종이장이 어떻게 서대감손에 들어갔을가? 그러면 그이가 위험에 처했단 말인가?)

이때 서대감과 그의 아들이 부왕앞에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뒤걸음쳐 문으로 물러나왔습니다.

공주는 황급히 정원의 꽃포기들사이로 몸을 숨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서 빨리 이 사실을 그이에게 알려 몸을 피하게 해야겠다고 속다짐했습니다.

드디여 일은 터지고야말았습니다.

교활한 서대감네 일당은 모두 혼곤히 잠든 깊은 밤에 졸개들을 내몰아 그 의로운 젊은이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획책했지만 헛물을 켜고말았습니다.

공주의 급한 전갈을 받고 젊은이들이 벌써 어디로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것입니다.

헛물을 켠 서대감과 그의 아들은 먼저 공주를 의심했습니다. 왕의 별실에서 밀담을 하고 물러나다가 꽃포기들사이로 얼씬거리던 공주를 얼핏 띄여보았던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로 하여 이러한 랑패를 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사소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고보니 공주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앞에서 자기들의 실책을 변명하기 위해서도 이 사실을 왕앞에 고해바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무능한 왕은 서대감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 공주를 나라의 북쪽끝에 있는 산골마을로 쫓아버리게 한것이였습니다.

궁벽한 산골로 쫓겨내려온 공주는 하루하루 눈물속에 서글픈 나

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부왕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내려오기는 하였지만 공주의 귀한 몸이라 고을의 량반관속들이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서 례물을 바치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어떤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를 따라내려온 노비, 몸종들이 꿍져가지고온 금은보석과 값진 물건을 팔아서 아침저녁으로 구미에 맞는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지만 한숟가락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베개만 눈물로 적셨습니다.

보동보동 살이 오르고 허여멀쑥하게 피여나 꽃처럼 어여쁘던 얼굴이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공주는 서글픈 심사를 달랠길 없어 여울물소리 처량하게 울리는 강기슭을 하염없이 거닐군 하였습니다.

손가락에 끼고있는 비취구슬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강기슭을 오르내리느라면 사랑하는 그 총각의 의젓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수 있었습니다.

그가 끼고있는 구슬반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꿈결에서처럼 잠시 만나뵙고 헤여지던 그 잊지 못할 저녁에 그 총각이 기어이 다시 만나자는 말없는 언약으로 손가락에 정히 끼워주고 떠나간 유일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날저녁 그 젊은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피할수 있도록 간신들의 모략을 미리 알려준 공주한테 정말 고맙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잠시나마 정열에 불타는 뜨거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 구슬반지를 끼워주고 기약없는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운 모습을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넣으려는듯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뜨거운 눈길을 공주는 영원히 잊을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그 반지를 자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아무때건 기어이 뜻을 이루고 다시 만나자는 굳은 언약

의 표시로 기쁘게 받아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는 상봉의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의 표대처럼 마음속깊이 새겨졌습니다.

홀로 강기슭을 거닐며 반지의 비취구슬알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선가 장한 뜻을 굽히지 않고 굳세게 살아나가고있을 그리운 님의 정겨운 눈동자를 보는듯 하여 애달픈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부왕도 자신의 무능함과 실책을 깊이 뉘우치고 그 름름한 총각, 의로운 젊은이를 자신의 부마로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와 나란히 세워주고 축복해주리라 생각하느라면 공주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있는 온갖 고통과 번뇌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공주가 저녁노을이 곱게 비낀 강기슭을 홀로 거닐며 그 젊은이와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순간에 서대감의 아들이 불쑥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거들먹거리는 그 얄밉고 역스러운 몰골은 삽시에 잠시나마 처녀의 순진한 가슴속에 깃들었던 아름다운 표상과 오색 령롱한 꿈을 짓밟고 그를 암담하고 처절한 나락으로 떠미는듯 하였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품고 애타게 바라던 기쁜 소식은 전혀 없고 불행만 겹쳐드는듯 하여 가슴만 후둑후둑 뛰였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듯한 느낌이여서 공주는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공주가 이고장으로 떠나올 때 말을 타고 수십리 먼길을 지꿎게 따라오면서 검질기게 달라붙어 달콤한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짓밟으려고 날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을 참을수 없는데 그 파렴치한 인간추물이 또 눈앞에 막아선것이였습니다.

서대감의 아들은 말에서 뛰여내려 공주한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주앞에서 뇌까렸습니다.

《공주님,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소이까? 소인은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소이다. 그동안 나라안을 소란하게 하고 상감마마와 공주님의 가슴속에 그늘을 던져주던 그 악당의 무리를 일망타진하였소이다.》

공주는 얼굴이 해쓱해졌습니다.

《그 악당의 무리라니?…》

서대감의 아들이 능글맞게 웃으며 계속 지껄여댔습니다.

《저… 공주님도 잘 아시는 그 정가성을 가진 젊은 놈이 심산유곡에 숨어들어 경당을 꾸리고 무사들을 꾀여 또다시 반역을 꾀하다가 우리 군사들한테 잡혀 처형되였소이다.》

공주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다가 그 마른벼락같은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모래불에 쓰러졌습니다. 마음속의 불안을 누잦히며 애오라지 한가닥 희망의 등불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달픈 삶을 이어오던 연약한 몸이 어떻게 가슴저미는 그 슬픈 소식을 태연히 받아안을수 있겠습니까.

강가에서 빨래하던 녀인들이 오구구 모여들어 꿀물을 타먹인다 찬물찜질을 한다 한동안 구완을 해서야 공주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대감의 아들이 다시 공주앞으로 다가앉으며 뇌까렸습니다.

《공주님, 진정하시오이다. 부왕께서는 지난 일을 불문하고 모든 과실을 너그러이 용서하셨소이다. 그러하오니 다시는 그자들한테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마시고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 부왕의 뜻대로 저와 함께 행복한 새가정을 꾸리고 백년해로하시오이다.》

그러자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추상같이 꾸짖었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간신놈아, 더는 애국충신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자리에서 썩 사라져라! 아무리 검은구름이 어지럽게 몰려들어도 밝은 해님을 가리울수는 없노라. 네놈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리여도 가신이들의 의롭고 장한 뜻은 이루어지고야말것이니라!》

공주는 말을 마치고 누가 어쩔사이없이 강기슭에 누워있는 너럭

바위우로 뛰여오르더니 치마를 뒤집어쓰고 소용돌이치는 압록강 푸른 물에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바위에 부딪쳐 튀여난 가락지의 비취구슬이 여울물속에 떨어져 오늘까지도 마음씨 곱고 대바른 어여쁜 공주를 죽음에로 몰아넣은 어리석고 무능한 부왕과 간교한 간신의 무리들을 단죄하고 어지럽고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며 울분을 터뜨리는듯 여울물에 부대끼며 쉼없이 구슬픈 소리를 내고있다고 합니다.

그후 이고장 사람들은 비취구슬이 구슬픈 물노래를 불러주는 이 여울과 그 가녁에 있는 마을을 민탄이라 이름지어 부르며 열여덟 꽃나이에 간신의 간악한 무리들과 그놈들에게 얼리워 귀여운 딸까지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은 어리석고 무능한 부왕 그리고 그런자들이 판을 치고있는 어지러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생을 마친 공주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배상객덕전설

량강도 삼수군의 황수원등판에 오르면 두루봉의 한쪽기슭에 꽤 넓은 덕지대가 펼쳐져있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 덕을 배상객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태를 묻고 이고장에서 한생을 살아왔다는 수염발이 허연 할아버지들은 젊었을 때 이 덕지대에 올라왔다가 다 고삭아서 푸실푸실 부서지는 배의 잔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덕을 배상객덕이라고 부르게 된 전설을 들려주군 하였습니다.

배상객덕이라는 이름은 문법구조상 완성되지 못한 잘 어울리지 않는 불규칙적인 어휘결합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보통 고유어휘는 고유어휘와 결합되고 한자어휘는 한자어휘와 결합되는것이 상례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고 완성감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상객덕이라는 어휘는 《배》와 같은 순수한 조선말 고유어휘와 《상》, 《객》과 같은 한자말어휘가 결합되였기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칭에서 소박하고 고지식한 이고장 사람들이 자연의 변덕스럽고 모진 풍파와 력사의 어지러운 소용돌이속을 헤

쳐넘으며 입에서 입으로 대를 이으며 전해내려온 전설의 구전적인 체취를 진하게 느꼈기때문에 하나도 윤색하지 않고 전설의 제목으로 그대로 살려썼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에는 이고장도 지금처럼 숲이 울울창창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푸른 초원이 아득히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로 큰 강줄기가 도도히 굽이쳐흐르는 드넓은 평야였다고 합니다.

짐승의 털가죽으로 몸을 가리우고 돌도구를 만들어쓰던 그 당시의 우리 선조들은 강기슭의 갈숲을 뚜지고 처음으로 오곡을 가꾸기 시작하였으며 들짐승을 길들여 초막뜨락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강기슭의 개버들 우거진 둔덕에 돌이라는 사람이 반토굴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럽게 자랐습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길가의 막돌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어린것이 제힘으로 살아나가자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남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는 돌처럼 굳고 억센 사나이로 성장하였습니다. 돌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생겨난것이라고 합니다.

돌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기슭의 갈대 무성한 진펄을 파헤치고 처음으로 논을 풀어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그옆에 있는 가시덩굴 뒤엉킨 돌밭을 일구고 번듯한 반토굴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두리에 버들가지를 찍어다가 울바자를 치고 산과일나무도 떠다심었으며 산짐승을 길들여 집에서 소와 돼지, 개, 닭 등 집짐승도 많이 쳤습니다.

가을이면 오곡백과 무르익고 살진 집짐승들이 우글거리니 정말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되였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제손으로 아글타글 살림살이를 꾸린 보람이 컸습니다. 그럴수록 일하기가 흥겹고 성수가 났습니다. 일하는 재미가 커서 잠시도 일손을 놓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날이였습니다.

이날은 돌이네 마을사람들이 동구밖 강기슭의 무성한 들메나무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흥겨운 민속놀이로 하루를 보내는 년중에 제일 큰 축제의 날이며 즐거운 명절날이였습니다.

태고적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해농사를 다 지어놓은 풍요한 이 가을날에 잘 여문 햇곡식으로 술과 떡을 빚고 살찐 집짐승을 잡아 제일먼저 자기들이 숭배하는 천신이나 곰과 범 등으로 우상화된 조상신에게 향불을 피우고 흰 사슴의 생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으며 자기 종족에게 행운이 차례지고 큰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손을 비비고 큰절을 드리며 기원하는 풍습을 전해왔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이웃들과 서로 술도 권하고 떡과 고기도 나누어먹었으며 취기가 오르고 기운이 좋아지면 흥겨운 민속놀이를 벌렸습니다. 남정네들은 말을 타고 내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을 내던져 누가 더 많은 짐승을 잡는가를 겨루는 사냥경기도 하고 발타격으로 적의 공격을 막고 제압하는 택견과 같은 무술놀이도 하였으며 힘을 겨루는 씨름놀이, 재주를 겨루는 장대타기놀이 등으로 하루해를 보냈습니다. 녀인들은 강기슭의 모래발에서 서로서로 손을 잡고 원을 지어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의 흥겨운 로동생활을 반영한 소박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낮에 밤을 이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민속놀이를 고조선의 예라는 고장 사람들은 《무천》이라 하였으며 고구려의 지경에 살던 씨족들은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종족마다, 씨족마다 그 이름은 같지 않았으나 년중 제일 큰 축제였으며 즐거운 명절이였습니다.

이해따라 오곡도 잘 여물고 백과가 무르익어 기분이 들뜬 돌이네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남녀로소 할것없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명절놀이장소로 정해진 백년묵은 늙은 들메나무가 서있는 강기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이네 집앞을 지나가면서 함께 가자고 찾았습니다.

흥흥 코노래를 부르며 뜨락에서 돌도끼로 뚝딱뚝딱 굵은 통나무속을 찍어내고있던 돌이는 일손을 멈추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습니다.

《먼저들 가게. 나도 하던 일을 끝내고 인차 따라가겠네.》
마을사람들은 뜨락을 기웃기웃 들여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자넨 명절날도 놀지 않고 뚝딱거리나?》
《원 극성스럽기두, 그만하면 부러운게 없겠는데 뭘 또 하나?》
돌이는 면구스러운듯 뒤더수기를 긁었습니다.
《어, 뭐 별게 아니네. 심심풀이루 통나무배를 무어볼가 했지.》
《뭐 배를 무어? 원 욕심두. 뜨락에 욱실대는게 짐승인데 물고기까지 혼자 다 잡아먹으려나?》
《그런게 아니야. 모두 강건너다니기 불편해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다못해 큰 배를 한척 무어보자는거지.》
그러자 마을의 좌상령감이 허연 채수염을 내리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그럴테지. 참 좋은 생각을 했네그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 없지. 모두 돌이처럼 오금을 놀려야 만사가 다 잘된다네.》
그러자 모두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무렴, 그렇구말구요. 그런것도 모르고…》
《참 고맙네. 오늘은 명절이니 좀 쉬구 래일 우리 함께 배를 무으세나.》
돌이는 할수없이 일손을 놓고 그들을 따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저녁녘에 놀이터에서 돌아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며 배 한척을 혼자서 다 무어놓고야말았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그 통나무배덕을 톡톡히 보게 되였습니다. 모두 배를 타고 강을 넘나들며 낟알을 심어가꾸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이고장에 몇천년에 한번씩 들이닥친다는 무서운 천지개벽의 큰 풍파가 일어 사람들도 산천초목도 말못할 큰 재난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미친듯 돌변하는 혹심한 기후변화와 땅이 꺼져내리고 불물이 솟구쳐오르는 지각변동으로 온 세상을 죽음의 나락속에 휩쓴 불란리, 물란리의 무서운 광란이 돌이네 마을에도 들이닥쳤던것입니다.

누리를 진감하는 웅글은 지동소리와 함께 땅덩어리가 부르르 몸부림치더니 여기저기 쩍쩍 갈라져터지면서 시뻘건 불물이 왈칵 솟구쳐오르고 기름진 옥토벌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우르르 꺼져내렸습니다. 이 악의 불도가니속에서 불에 타 재가 되고 땅속에 가뭇없이 파묻혀버린 마을이 얼마인지 모르며 사람과 짐승, 나무숲이 순간에 타서 재가루로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불행은 쌍으로 겹쳐든다고 불길속에 숨져가던 이 땅에 물란리까지 휩쓸어들었습니다. 예수교신자들이 《노아의 홍수》라 부르는 재난도 온 세상을 휩쓴 그때의 물란리를 일컬은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을 뒤덮으며 시꺼먼 먹장구름이 밀려들더니 번쩍 꽈르릉 번개가 하늘을 헤가르고 우뢰가 터지면서 동이로 물을 퍼붓는듯한 무더기비가 석달열흘이나 쏟아져내려 불길속에 휩싸였던 땅덩이와 겨우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이번에는 물갈기를 휘말려올리며 노호하는 흙탕물속에 휩쓸려들어 물속깊이 영영 자기의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으로 영영 끝장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서운 불란리, 물란리속에서 헤여나왔는지 요행 불에 끄슬리고 바위에 부딪치고 물살에 떠밀려 만신창이 된 통나무배 한척이 소용돌이치는 탁류의 바다를 헤가르며 기우뚱기우뚱 떠돌고있었습니다.

배우에서는 타고 찢기여 너덜너덜해진 털가죽옷을 몸에 걸친 돌이가 힘겹게 노를 저으며 미쳐날뛰는 탁류의 소용돌이속에서 요리조리 용케도 배를 몰아가고있었습니다.

돌이도 처음에는 전에 볼수 없었던 이 자연의 무서운 변덕에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초막은 불길속에 휩싸이고 가족들은 불속에서 아우성쳤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이 혼잡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두손을 비비고 고개를 조아리며 이 재난을 가셔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돌이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음다졌습니다.

(아니야, 하늘도 씨족장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산다던데 죽기를 각오하고 내 힘으

로 헤쳐나가보자!)
  이런 배심이 생긴 돌이는 자기 집 식구들과 이웃들을 모두 통나무배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불속에서 끌어낸 오곡종자와 집짐승들까지 배에 주어실었습니다. 이 혼잡속에서도 불씨를 묻어놓은 토기화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생결단하고 나서니 무서운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털가죽을 뒤집어쓰고 배바닥에 엎디라고 고함을 치면서 살을 지지는 불길속을 헤치고 배를 강 한복판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방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세찬 불길이 휘몰아치니 강물도 죽가마처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돌이가 이를 악물고 어느 물굽이로 노를 저어나가는데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확 풍기며 엄청나게 큰 불산이 와르르 강복판으로 무너져내려왔습니다. 불사태에 밀리여 강물이 통채로 허공중에 휘뿌려졌습니다. 통나무배도 회오리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처럼 물갈기에 휩싸여 어느 벼랑코숭이에 휘뿌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장이 나는가!)
  돌이는 노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정신이 아찔하여 배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뜨거운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지는데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배가 어느 바위동굴속에 놓여있었습니다. 불붙는 락엽더미우에 떨어지면서 다행스럽게 그밑에 있는 이동굴속으로 배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온것이였습니다. 배전이 좀 부서져 떨어졌을뿐 사람들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돌이네 일행은 불길을 막아주는 이 바위동굴속에서 그 무서운 불란리를 무사히 치르고 물란리로 그곳까지 흙탕물이 차오르자 배를 수리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노를 저어나왔습니다.
  천신만고속에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불어났던 물이 다 찌고 물속에 잠겼던 땅덩어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돌이는 배를 어느 밋밋한 산등에 가져다댈수 있었으며 죽음의 나락에서 벗어나게 되였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제손으로 살림살이를 아글타글 이악하게 꾸려온 돌이의 굳세고 드팀없는 기질이 이 무서운 불과 물의 란리가 겹쳐 드는 생지옥속을 완강한 의지로 뚫고나올수 있게 한것입니다.

돌이와 그의 일행이 배에서 내린 곳은 지각변동으로 땅우에 새로 불쑥 솟아오른 꽤 넓은 덕지대였습니다. 불길속에 휩싸여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땅덩어리가 물에 잠겨 서서히 식으면서 이루어진 덕지대여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풀벌레 한마리 생명을 가진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황막한 벌거숭이대지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다 사라져버렸으며 서우와 털코끼리를 비롯해서 풀숲속에 떼를 지어 밀려다니던 짐승들도 다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쓰고살 집도, 농사를 지을 논밭도 없었습니다.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돌이는 통나무배를 탄 덕에 살아남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데리고 새삶의 터전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잠풍하고 해가 잘 비쳐드는 아늑한 골안에 땅을 파헤치고 움막을 몇채 꾸려놓고 모두 거기 모여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괭이와 돌호미를 만들어 주변의 황무지를 파헤치고 배에 싣고온 오곡종자를 심어 가꾸었으며 움막주변에는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뜨락에서는 가지고온 집짐승들을 키웠습니다.

몇해가 지나니 이 황막한 덕지대가 오곡백과 무르익고 집짐승떼 무리지어 뛰노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 천지풍파로 인적마저 끊어졌던 이 고장에 그들의 자손들이 자꾸만 태여나고 퍼져서 련이어 새 마을이 생겨나고 서로 도와 부지런히 일하며 화목하게 사는 활기에 넘친 풍요한 산촌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고장 사람들은 배우에서 물란리, 불란리를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새삶을 개척한 곳이라고 해서 이 덕지대를 배상객덕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를 이어 전설로 전해내려왔습니다.

추파덕에 묘를 쓴 외양쇠

신파에서 장진강을 끼고 좀 올라가느라면 왼쪽골짜기에서 작은 시내물이 흘러나옵니다.

남산골이라고 부르는 그 골짜기로 물곬을 따라 한 십리길을 톺아오르면 이깔나무와 가문비나무숲이 울창한 덕지대가 나집니다.

이곳이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소문난 추파덕입니다.

추파덕에는 량반놈들을 멋지게 속여넘기고 묘를 써서 머슴군의 신세를 면하고 벼슬길에 올랐다는 슬기로운 젊은이에 대한 재미나는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외양쇠라는 이 청년은 일찌기 량부모를 잃고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양간에서 짐승처럼 먹고 자면서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라는 그를 외양쇠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주인은 서울에서 높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민탄이라는 이고장 마을로 쫓겨내려온 량반이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묘를 잘 써서 다시 벼슬길에 올라보자는 야심을 품고 매일같이 말을 타고 명당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소몰이를 하는 외양쇠가 남달리 령리하고 빨랑빨랑하다는것을 알고 자기의 마부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양쇠는 매

일같이 말고삐를 잡고 명당자리를 찾아다니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주인은 외양쇠한테 말을 타고 길을 떠나기 직전에 닭알을 좀 가지고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외양쇠는 아마 쉴참에 닭알을 먹고싶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어멈한테 제꺽 닭알을 한꾸레미 삶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삶은 닭알을 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하하, 이녀석아. 삶은 닭알에서 닭이 까나온다더냐. 나한텐 생닭알이 필요하단 말야. 생닭알이.》
외양쇠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게 주인의 분부인지라 두말없이 《예, 알겠소이다.》 하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생닭알을 가져왔습니다.
외양쇠가 말고삐를 잡고 우불구불 휘여들어간 골바닥의 비탈길을 톺아올라 다달은 곳은 그 유명한 명당자리인 추파덕의 앞이 탁 트인 공지였습니다.
아침안개 감돌아흐르는 아득한 이깔숲이며 유유히 굽이쳐내리는 천리장강의 장쾌하고 수려한 풍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습니다.
말에서 뛰여내린 주인은 이 아름다움에 취한듯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더니 외양쇠한테서 생닭알을 달래가지고 공지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락엽무지를 파헤치고 생닭알을 세곳에 갈라묻었습니다. 그러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 파묻은 생닭알에서 닭이 홰를 치며 까나오기만 하면 틀림없는 명당자리겠는데…》
외양쇠는 그제야 주인이 왜 생닭알을 가지고오자 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 무슨 그럴듯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제혼자 두눈을 반짝이며 히죽히죽 웃었습니다.
(흥, 량반놈들만 명당자리에 묘를 쓰고 잘살라는 법이야 없겠지.)

주인은 외양쇠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길에 친구네 집에 들려 술판을 벌려놓았습니다.

외양쇠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양쇠는 말한테 풀을 뜯기겠다고 주인한테 말해놓고 말을 몰아 다시 추파덕으로 달려올라갔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여내리자 주인이 파묻어놓은 생닭알을 파내고 괴춤에 넣고있던 삶은 닭알을 꺼내여 그자리에 슬쩍 묻어놓았습니다.

《흥, 나도 명당자리에 우리 부모묘를 쓰고 한번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는거야!》

외양쇠는 흥이 나서 저혼자 중얼거리며 말등에 뛰여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는줄 감감 모르는 주인은 다음날 이른새벽에 곤히 자고있는 외양쇠를 깨워가지고 다시 추파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우듬지들사이로 아침노을이 비껴들고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 은구슬인양 반짝이는 추파덕의 풍치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주인은 땅에 묻은 생닭알에서 닭이 까나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며 공지를 오락가락하였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닭들이 홰를 치며 울어댔으나 파묻어놓은 생닭알에서는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바라보니 허파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겨우 참으며 외양쇠는 저혼자 속으로 주인을 야유했습니다.

(바보어른, 내가 삶은 닭알을 바꾸어 파묻었는데 무슨 닭이 까나오겠소. 어서 돌아가시는게 어떻수?)

이제는 해가 한발이나 솟아올랐습니다. 주인이 기다리는 닭은 종시 까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는지 입에 물고있던 담배를 풀밭에 홱 집어던지며 짜증섞인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흥, 내가 잘못 봤지. 이까짓 촌구석에 무슨 명당자리가 있을텐가. 얘, 이녀석아. 어서 돌아가자!》

주인은 돌아가는 길에 또 친구집에서 화술을 진종일 퍼마셨습니

다. 외양쇠는 얼른 말을 타고 추파덕에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묻어놓은 삶은 닭알을 파내고 다시 생닭알을 묻어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양쇠는 주인이 밤새껏 술놀이를 하고 늦잠을 자는 사이에 추파덕에 올라가보았습니다.

아침노을이 곱게 물든 숲언저리로 젖빛안개가 그물그물 감돌아흐르고있었습니다.

이때 공지의 락엽무지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세마리의 황금빛수닭이 몸에 묻은 흙을 털며 솟아나왔습니다. 수닭들은 일제히 푸드득푸드득 홰를 치며 《꼬끼요, 꼬끼요.》 목청을 돋구어 류창하게 울어댔습니다.

《야, 됐구나. 닭이 까나오면 틀림없는 명당자리라고 했지. 그러니 이젠 한뉘 고생살이만 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명당자리에 모시게 됐구나. 얼씨구 절씨구 좋다.》

외양쇠는 저혼자 환성을 터치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추파덕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도 늦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외양쇠는 그후에도 계속 주인이 탄 말고삐를 잡고 명당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보아도 추파덕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신선한 곳은 없는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추파덕에 어서 빨리 부모님들의 묘를 옮겨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인한테 매인 몸이니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주인을 속이고 몰래 해야 하는 일이니 누구한테도 내놓고 말할수 없어 더욱 안타까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좋은 기회가 차례졌습니다.

주인집에서 머나먼 혜산쪽으로 급히 심부름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던것입니다.

주인은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외양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먼길에 실수없이 가자니 머리가 영민한데다가 말까지 잘 타는 외양쇠가 적임자로 꼽혔던것입니다.

외양쇠는 주인이 써주는 편지봉투를 품에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도중에 쉬지도 않고 말을 질풍같이 내몰아 주인이 닷새는 실

히 걸려야 한다던 길을 사흘만에 다 축내고 누구도모르게 옹근 이틀을 바쳐 부모님들의 묘를 추파덕명당자리에 옮겨모셨습니다. 그리고나서야 주인집으로 말을 몰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한가위날 짬을 내서 슬그머니 추파덕에 올라가보니 아니 글쎄 어떤 놈이 그랬는지 부모님무덤을 몽땅 파헤쳐놓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성껏 파묻고 돌아왔는데 그후에 가보니 또 파헤쳐놓은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따위짓을 하는지 내 잡아서 주리를 틀어놓을테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외양쇠는 물푸레몽둥이를 하나 깎아들고 그날저녁 추파덕에 올라 진대나무구새통속에 숨어서 범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밤삼경이였습니다.

이름모를 산새들도 모두 깊이 잠들었는지 어두운 숲속은 괴괴하기만 한데 어디선가 은은한 풍악소리가 울려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외양쇠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와뜰 놀라서 깨여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래져서 구새통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오색찬연한 채색구름을 타고 수염이 하얀 풍채좋은 백발할아버지가 활활 부채를 내저으며 내려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신선이 분명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량반이 있는지 신선할아버지는 주인이 고을관청에 들어갈 때의 차림그대로 도포차림을 하고있었습니다.

신선은 땅우에 내려서자 흰수염을 쓸어내리며 공지를 한바퀴 빙 돌아 묘지앞에 와서 멎어섰습니다. 부모님분묘를 유심히 살피는듯하더니 갑자기 발을 탕 구르며 볼부은 소리를 했습니다.

《에, 량반이 묻혀야 할 명당자리에 또 쌍놈이 묻혔군. 중의적삼차림인걸 보니 흙이나 뚜지는 농부가 분명해. 안되지, 안돼!》

그러더니 묘지를 향해 부채를 펴서 활활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돌개바람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묘지를 파헤치고 시신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외양쇠는 너무도 놀랍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숨도 제

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떨며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외양쇠는 신선할아버지가 하늘로 날아간 다음에야 정신이 번쩍들어 구새통속에서 기여나왔습니다.

《흥, 천당은 좋다 하더니 쌍놈이라고 천대하는걸 보니 이 땅이나 그저 같고같구나. 퉤!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줄 아느냐! 주인나리도 멋지게 골려먹었는데 하늘량반이라고 골탕먹이지 못할텐가…》

외양쇠는 저혼자 화풀이를 하면서 부모님시신을 일시 다른 안전한 곳에 잘 묻어놓고 주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청간 북데기속에 누워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량반네들 차림새를 흉내내서 부모님들을 안장하면 하늘신선도 속일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며칠동안 짬짬이 수소문해보니 량반들은 하나같이 린색하고 심술궂은 족속들이여서 사모관대는커녕 다 해진 헌 도포하나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양쇠는 이 고을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짬짬이 산에서 들쭉을 따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밀짚으로 구럭을 엮어서 들쭉을 담아 잘 포장해놓았습니다. 그럴듯한 묘한 수를 생각해낸것이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서울장안에 싣고만 가면 되겠는데 주인에게 매인 몸이니 용빼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인집을 뛰쳐나가리라 마음다지고 어느날 밤 다 잠든 깊은 밤에 말잔등에 들쭉구럭을 가득 싣고 뒤문으로 주인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에 주인집에서는 외양쇠가 말을 타고 도망쳤다고 야단법석을 했지만 외양쇠는 벌써 고을경내를 벗어나 흥얼흥얼 흥타령을 부르며 서울길을 다우쳐가고있었습니다.

서울장안에 들어선 외양쇠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번화하다는 네거리의 제일 구석진 곳에 짐을 부려놓았습니다. 거기서는 몸종을 거느린 량반댁 마나님들이 가마를 타고 장을 보려 많이 나다니고있었습니다.

외양쇠는 장사치들의 흉내를 내며 제법 흥취가 나게 엮어대기 시

작했습니다.

자 싸구려 싸구려 명산의 들쭉 싸구려
입맛 떨어진 아낙네 입맛 돋구고
애기 서는 아낙네 복덩이를 낳게 하는
새큼하고 달콤한 천하제일
명산의 명약 들쭉 싸구려

서울장안에서는 정말 보기 희귀한 들쭉, 입쓰리하는 아낙네가 좋아하는 새큼한 명약이라는 바람에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귀가 솔깃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상 판서 대감집 마나님들도 체면을 차리다가는 명약을 놓쳐버린다고 가마에서 내려 마구 헤집고 들어와 흥정판을 벌렸습니다.

《아하, 들쭉이라는게 먹음직스럽수. 그래 한근에 얼마나 하우?》

《하하, 나한텐 단돈 한푼 필요없고 쌀섬이나 비단필을 내민대도 통하지 않수다. 그저 입다 벗어놓은 헌털뱅이라도 좋으니 도포, 사모관대만 한벌 가져오면 들쭉 한구럭 눅거리로 그저 넘겨주겠수다. 막눅거리루요.》

그러자 저저마다 좀 기다려달라고 당부하면서 허둥지둥 가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외양쇠는 그날 한겻동안에 어렵지 않게 도포, 사모관대를 다 손에 넣을수 있었습니다.

외양쇠는 그길로 말을 몰아 귀로에 올랐습니다.

신파땅에 이른 외양쇠는 곧장 추파덕으로 올라가서 부모님시신에 량반차림새를 시켜 그 명당자리에 다시 잘 모셨습니다.

그날밤 외양쇠는 다시 그 구새통안에 숨어서 신선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밤삼경이 되자 풍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그 수염이 하얀 신선할아버지가 채색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신선은 묘지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음, 이제야 이 명당자리에 하늘의 뜻대로 량반나리가 묻혔군. 됐어!》

그리고는 활활 부채질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라가버렸습니다.

《흥, 이젠 됐구나. 하늘의 뜻대로 이 쌍놈도 어디 한번 팔자를 고쳐봐. 하하…》

외양쇠는 신이 나서 말을 몰아 산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인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자란 름름한 젊은이로 자라났으니 오랑캐놈들과 맞다들어도 하나도 무서울것이 없다는 담력과 배짱이 생겼던것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그의 말타는 재주를 보고 두말없이 군사로 받아주었습니다.

외양쇠는 한동안 창검을 다루고 활줄을 당기면서 무술을 익히더니 한다하는 장수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날래고 용맹스러운 무사로 당당히 나서게 되였습니다.

몇차례의 싸움에서 원쑤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힌 외양쇠는 도장수의 눈에 들어 인차 장수로 추어올라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땅을 탐내여 덤벼들었던 외적들은 외양쇠가 이끄는 군사들과 맞다들면 다시 살아서 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큰 란이 일어났을 때는 오랑캐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놈들에게 잡혀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공적을 무시할수 없어 외양쇠의 이름을 상놈의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변방을 지키는 도장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있는 고을의 정사까지 다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외양쇠는 그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을 받고 병영에 돌아온 외양쇠는 도장수의 으리으리한 관복을 병졸들이 거처하는 방구석에 훌렁 벗어던지고 벌렁 드러누우면서 어이가 없어 저혼자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사람을 천시하고 피땀을 빨아먹는 량반관료놈들 노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한번 맞서볼 배심으로 천상천하의 량반놈들을 다 속여넘기구 명당자리에 묘를 써서 이쯤 되였는데 아

니 글쎄 날더러 그 구린내나는 량반나리가 되라는게 아니겠소! 헛참!》

그는 그후에도 관복을 잘 입지 않았고 절대로 량반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틀을 조금도 차리지 않았고 병졸들과 늘 한가마밥을 먹고 한방에서 같이 딩굴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땅을 넘겨보면서 피를 물고 덤벼드는 원쑤들과 거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여 제 배를 불리는 량반관료들은 리유불문하고 가차없이 징벌했습니다.

그래서 외양쇠가 다스리는 변방고을 사람들과 병졸들은 그를 무척 따랐으며 기를 펴고 마음편히 농사도 짓고 살림살이를 하였습니다.

외양쇠는 자기 한사람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량반관리들과 맞서볼 배심으로 그 놀음을 꾸몄던것입니다. 그러니 악한짓만 일삼던 량반들을 징계하고 백성들이 기를 펴고 살게 한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웠습니다.

독고개에 깃든 전설

청진시 청암구역에 가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독고개라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고개에도 놈들의 침입을 막아 싸운 이고장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슬기로운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옛날 이 고개밑에는 작은 야장간이 있었고 거기서는 한 할아버지가 돌이라고 부르는 나어린 손자애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은 몸이였지만 일년 사철 마을사람들한테 호미와 낫을 벼려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수걱수걱 일만 하였습니다. 일곱살밖에 안되는 나어린 돌이도 령리하고 손기가 빨라서 제법 풍구질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면서 할아버지의 일손을 곧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왜놈의 큰 무리가 이고장으로 밀려들고있다는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우리 군사들도 미처 도착하지 못했는데 놈들은 벌써 여러 마을에 기여들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

들을 마구 죽이며 닥치는대로 재물을 털어내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피난을 가야 산다고 짐을 싸서 이고지고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야장간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말없이 뚝딱뚝딱 벼림질만 하고있었습니다. 쇠붙이라면 보습이건 가마건 아낌없이 다 녹여서 마름쇠를 벼렸습니다. 마을사람들에게 농쟁기나 벼려주는 작은 야장간이라 쇠붙이를 다 털어내서 벼리였다는 마름쇠가 고작 쉰개도 되나마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이라도 고개길에 묻어놓으면 왜놈의 군사들과 말의 발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였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든 몸이라 직접 손에 창검을 들고 싸울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달려드는 왜적을 지체시켜 우리 군사들을 돕자는것이였습니다.

벼림질을 끝낸 할아버지는 끝이 뾰족하게 날이 잘 섰는지 하나하나 살피며 마름쇠를 망태기에 주어담고있었습니다.

이때 돌이가 야장간으로 헐레벌떡 달려들어오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남들은 다 피난가는데 우린 안가나요?》

할아버지는 일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돌이가 겁이 나는 모양이지. 그렇지만 다 떠나가버리면 누가 왜놈들을 막아내겠느냐.》

돌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마름쇠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하자고 벼렸나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말이냐. 이걸루 왜놈들을 혼내보자는거다.》

돌이는 입을 비죽거리였습니다.

《피, 이따위로 어떻게 왜놈들을 혼쌀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름쇠를 하나 집어서 야장간바닥에 묻어놓고 바닥우로 삐죽 솟아오른 날카로운 쇠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젠 네가 이걸 한번 밟아보아라.》

《아아, 싫어요. 무서워요.》
돌이는 겁이 나서 한발자국 껑충 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더니 한눈을 찔끔 감았다뜨며 말했습니다.
《허허, 찔릴가봐 겁이 나는게지. 그러니 이걸 왜놈들이 오는 길목에 쭉 묻어놓으면 어떨것 같으냐?》
《예, 발을 찔린 왜놈들이 그자리에 주저앉아 아우성칠거예요. 야, 정말 멋진 생각을 하셨네!》
돌이는 그제야 알겠다고 환성을 지르며 손벽을 짜락짜락 쳤습니다. 그러더니 마름쇠의 날카로운 송곳날을 매만지며 무슨 묘한 궁리가 떠올랐는지 별눈을 반짝이며 사립문밖으로 껑충껑충 뛰여나갔습니다.
《얘, 내곁에 가만히 있지 않구 또 어디로 가느냐?》
《예, 인차 돌아와요.》
돌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담장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도 마름쇠를 넣은 망태기를 둘러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한복판으로 달려간 돌이는 제또래 어깨동무들을 찾아다니며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얘, 우리 피난가지 말고 왜놈들과 싸우자.》
동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 우리가 어떻게 왜놈과 싸워?》
돌이는 그런 동무들을 뒤골목으로 끌고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진 아예 피난갈 생각은 하지 않고 왜놈들과 싸울 차비만 하고 계신단 말야.》
《피, 너의 할아버지가 신식총을 땅땅 쏘는 왜놈들을 무슨 수로 당해내겠대?》
《글쎄, 내 말 들어봐.》
《응, 어서 말해봐.》
동무들은 호기심이 나서 재촉했습니다. 돌이는 할아버지가 벼려낸 마름쇠이야기를 하고나서 자기의 속생각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마름쇠대신 늪에 가서 말배를 따다가 왜놈들이 기여드는 길목에 쭉 깔아놓는단 말이야. 묵은 말배의 가시는 굳고 날카로와서 왜놈들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놓을거란 말야.》

동무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흥이 나서 맞장구를 치며 적극 따라나섰습니다.

《거 정말 그럴듯한데. 발이 찔리운 왜놈들은 아이쿠아이쿠 하면서 펄썩 주저앉을거야.》

《야, 어서 말배를 따러 가자.》

이렇게 되여 돌이와 어깨동무 대여섯이 망태기를 내흔들며 마을에서 몇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늪으로 욱 밀려가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찜벙찜벙 뛰여들었습니다.

저마다 더 많이 따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며 지난해에 열린 묵은 말배를 골라서 땄습니다. 묵은 말배일수록 잘 여물고 말라서 그 가시가 더 굳고 날카로우니까요.

말배를 한망태기씩 따가지고 돌아온 아이들은 먼저 그것을 동구밖의 길목에 쭉 뿌려놓았습니다.

말배가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는것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먼발치에 숨어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동구밖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마침 박첨지네 송아지가 피난짐을 싣고 가던 어미소한테서 떨어져 길바닥으로 껑충껑충 뛰여나왔습니다. 송아지는 말배를 짓밟았는지 앞발을 들며 껑충 뛰여오르더니 음메 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쩔뚝거리다가 길바닥에 나자빠져 버둥거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근에서 짐을 이고지고 피난가던 사람들이 우구구 모여들어 송아지를 둘러싸고 법석 떠들어댔습니다. 어미소를 길바닥에 세워놓고 허둥지둥 달려온 박첨지는 송아지의 발쪽에 배긴 말배가시를 뽑아내면서 펄펄 뛰였습니다.

《어느 녀석이 이따위짓을 했느냐! 당장 잡아다 주리를 틀어야겠다. 어느 놈이 그랬느냐!》

이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돌이네는 질겁하여 조발고랑사이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돌이는 박첨지한테 미안하게 되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무들은 성공했다는 기쁨이 더 커서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의 환성을 터쳤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숱한 아이들이 피난을 안가고 너도나도 다 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돌이는 그들을 데리고 그날저녁으로 말배를 많이 따다 고개밑의 길바닥에 촘촘히 뿌려놓았습니다. 그우에다 흙과 가랑잎을 살짝 덮어놓았기때문에 누구도 알아볼수 없었습니다.

이때 야장간할아버지도 자기가 벼려온 마름쇠를 마을로 넘어오는 고개마루에 주런이 묻어놓았습니다.

그러느라니 무더운 여름해도 서산너머로 기울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고개마루에는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길가의 무성한 덤불속에 몸을 숨기면서 이마에 내돋은 땀방울을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러나 미처 숨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벌써 고개밑에서 말발굽소리가 어지럽게 울려왔던것입니다.

풀숲을 헤치고 내려다보니 왜놈들의 척후대인지 한무리의 말탄 그림자가 흙먼지를 뽀얗게 피워올리며 달려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놈들만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왜놈기마수들이 고개마루의 외통길에 들어섰습니다.

앞에서 뚜거덕거리며 달려오던 말이 갑자기 오호홍— 새된 소리를 내지르며 앞발을 번쩍 쳐들고 화닥닥 뛰여올랐습니다.

그바람에 말잔등에 탔던 왜놈이 손에 들었던 장검을 떨구며 길바닥에 곤두박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이어 다른 말들도 아우성을 치며 빙빙 맴돌다가 앞다리를 꺾으며 그자리에 나자빠졌습니다. 쓰러져 버둥거리는 말들의 울음소리며 말잔등에 깔려 죽어가는 왜놈들의 아우성소리가 산천의 정적을 깨치며 스산하게 울려퍼졌습니다.

요행 봉변을 면한 왜놈들이 말에서 뛰여내려 뭐라고 고아대면서 당황한 눈길로 사방을 휘둘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놈이 또 마름쇠를 짓밟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들은 그제야 마름쇠를 발견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놈들은 더 나가지 못하고 피흐르는 말발굽과 제놈들의 발바닥에서 마름쇠를 뽑아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중 한놈이 뒤따라오는 기본행렬에 이 사태를 알리려는지 조총을 한방 쏘았습니다.

얼마후 왜놈들의 큰 무리가 고개마루로 밀려올라왔습니다.

놈들은 마름쇠에 찔린 발도 치료하고 길바닥에 묻어놓은 마름쇠도 찾아내느라 많은 시간을 고개마루에서 지체했습니다.

그동안 왜놈장수들이 한데 모여서서 수군거리더니 척후기마대를 파견하고 다시 행군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하루밤 묵어가자고 작정하고있었는데 마름쇠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혼쌀이 나고보니 또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쉬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그냥 떠나가기로 한것입니다.

장마철이라 먹물을 뿌려놓은듯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또 후둑후둑 굵은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척후대의 뒤를 이어 놈들의 기본행렬도 비내리는 어둠속으로 따라섰습니다.

비를 맞더라도 한시바삐 이 위험한 고장을 벗어나자는 심산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말배를 뿌려놓은 돌이네 동무들이 숲속에 숨어서 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던것입니다.

드디여 왜놈행렬이 고개길을 내려 말배를 뿌려놓은 곳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긴장해서 가슴을 조이며 놈들의 거동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맨앞에서 질적질적한 진창길을 달려오던 놈들의 선두말이 갑자기 놀라서 오호홍— 소리를 내지르며 껑충 뛰여오르더니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냅다 달아났습니다. 뒤이어 다른 말들도 잔등에 탄 왜놈들을 뿌려던지며 되돌아서서 절뚝절뚝 정신없이 내뛰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뒤따르던 기본대렬에서도 련이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장서 걸어가던 조총대의 왜놈들이 놀라서 미친듯이 달려오는 말발통에 짓밟히고 휘뿌려져 아우성을 쳤습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밤송이같은 말배를 짓밟고 가시에 찔려 아이쿠— 아이쿠— 비명을 지르며 숱한 왜놈들이 길바닥에 어푸러져 나딩굴었습니다.

가시에 독이 있어서 그것에 찔린 발이 퉁퉁 부어 시퍼렇게 되고 몸에 열이 나니 그럴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놈행렬은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말울음소리로 온통 수라장이 되고말았습니다.

이 꼴을 지켜보고있던 돌이와 그의 동무들은 놈들이 들을가봐 만세의 함성은 터치지 못하고 그저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왜놈의 우두머리장수가 장검을 뽑아들고 조용하라고 호통을 쳐서야 겨우 혼란이 수습되였습니다.

알고보니 길바닥에 쭉 깔려있는 말배의 가시에 발이 찔려 또 한바탕 봉변을 당한것이였습니다.

졸개들을 시켜 알아봤더니 그러한 가시열매가 이제 지나가야 할 길바닥에도 수없이 깔려있어 발을 옮겨짚을 자리가 없다는것이였습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말배를 뿌려놓은 길바닥의 여기저기에 아이들의 작은 발자욱이 찍혀있다는것이였습니다.

왜놈의 우두머리장수는 너무도 억이 막혀 미친 놈처럼 저혼자 허허허— 허거픈 웃음을 터칠뿐 더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칼부림에서는 제노라고 뽐내던 사무라이들이 조선의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걸려들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것을 생각하니 자기자신이 가소롭게 생각되여 서글퍼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아,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운 곳이야. 나어린 소년들까지 저렇듯 굴함없이 떨쳐일어나 싸우니 이 나라 사람들의 강한 의지력과 장

한 기개를 어떻게 당해낼수 있단 말인가!)

왜놈의 우두머리장수는 가슴이 써늘해지면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더는 발을 옮겨짚을 용단을 내릴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피묻은 칼을 내두르며 덤벼들던 섬나라의 왜놈무리는 겁에 질려 오도가도 못하고 찬비를 맞으며 캄캄한 길바닥에서 후들후들 떨며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왜놈의 우두머리장수는 할수없이 추켜들었던 피묻은 장검을 맥없이 내리우며 제놈의 군사들에게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놈들은 더 걷지 못하게 발이 상한 놈들과 말들을 칼로 찔러죽이고 누구도모르게 새벽 어스름을 타고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황황히 도망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뒤미처 달려온 우리 군사들의 매복에 걸려들어 전멸당하고 살아서 바다로 도망친 놈은 몇놈 안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이 나지막한 작은 고개를 마을에 기여들던 왜놈의 큰 무리가 독침에 찔려 아우성치다 달아난 고개라 하여 《독고개》, 그 고개밑에 있던 돌이네 마을을 《독동》이라고 부르면서 그 옛날의 슬기로운 소년들과 야장간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로 자랑스럽게 전해왔다고 합니다.

쇠메와 달미선녀

록음이 우거진 기묘한 바위절벽들사이로 수정같은 맑은 물이 해빛에 반짝이며 돌돌 감돌아흐르는 칠보산의 여름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맑은 수정구슬을 은실에 꿰여놓은듯 흐르던 물이 여러개의 담소에 고여 금빛, 은빛으로 반짝이는 풍치는 정말 장관입니다.

더구나 류두날 아릿다운 녀인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이곳에 모여들어 윤기흐르는 삼단같은 검은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감는 황홀한 모습이며 맑은 물에 미역을 감고나서 차려온 음식을 서로 권하며 춤추고 노래부르는 흥겨운 장면은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잘 어울려 하늘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실로 희한한 광경이였습니다.

그 풍치가 얼마나 매혹적이였던지 오죽했으면 옥황상제의 령을 받고 하늘길을 급히 날아가던 신선관리들까지 내려와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해가 지는줄도 몰랐겠습니까.

그러다나니 요즘 이곳의 풍치에 마음이 끌려 옥황상제의 엄한 령을 제 날자에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신선관리들이 부쩍 늘

어났습니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펄펄 뛰였습니다. 그 즉시 그들의 사모관대를 벗겨 옥에 가두거나 하늘아래 인간세상으로 정배살이를 보내는 혹독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첫번째 대상으로 걸려든것이 은하수의 외진 감옥에서 수격수격 성실하게 일하던 마음씨 어진 옥리신선이였습니다.

그가 발밑에 꿇어엎드려 제발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었으나 옥황상제는 들은체만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인정에 사로잡혀 견우직녀가 칠월칠석날 단 하루동안만 오작교에서 만나게 하라는 짐의 령을 어기고 그들이 류두날 또다시 즐겁게 상봉하여 저 머나먼 누리의 해솟는 나라 조선의 칠보산에까지 가서 놀다 오게 하였은즉 그 죄행 중하도다. 그러니 두말 말고 어서 소백산에 내려가서 정배살이를 할지어다.》

이렇게 되여 그 인정많은 옥리신선은 소백산을 지키는 지신으로 인간세상에 쫓겨내려가게 되였습니다.

옥황상제한테는 옥지라는 귀여운 막내딸이 있었는데 이 공주는 부왕마마의 이 처사가 너무나 혹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옥리신선은 옥지공주가 몸종선녀들을 거느리고 은하수로 미역감으러 갈적마다 후더운 환대를 베풀고 극진히 보살펴주던 좋은분이였던것입니다.

권세가 등등하고 포악한 성미를 가진 부왕마마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옥지공주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밤 옥황상제 몰래 소백산으로 날아내려가서 잔이 찰찰 넘치게 손수 천일주까지 부어 권하면서 부왕마마대신 잘못을 빌고 진심으로 그를 위안해주었습니다. 그날밤 옥지공주는 소백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지신한테서 칠보산의 류두놀이이야기도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날 칠보산의 일곱가지 보물중에서도 으뜸이라 할만치 풍치수려한 명소이며 류두날 불로약수로 이름난 담소의 맑은 수정샘물로 머리를 감으면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면서 늙지 않고 검은 머

리로 영생한다는 말을 듣고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돌아온 옥지공주는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조선의 칠보산이야기를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만 묻어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몸종선녀들한테 소곤소곤 귀속말로 속삭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보산에 가보게 될 류월류두날만을 마음속으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곳으로 날아내려가는 황홀한 순간을 그려보는 옥지공주였습니다.

어느날 옥지공주는 옥황상제의 팔소매에 매달리며 응석기어린 고운 목소리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였습니다.

《부왕마마, 오는 류두날 저 인간세상의 칠보산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감을가 하오니 허락하여주시옵소서.》

옥황상제는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공주였지만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손을 뿌리치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허, 네가 막내공주라고 어자어자하면서 귀여워만 했더니 이젠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신선이 사사로운 일로 인간세상의 천한 땅에 내려가지 못한다는거야 하늘나라의 엄한 법도가 아니냐.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아라!》

그러나 옥지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지공주는 금시 새침해지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흥, 부왕마마는 천상천하를 마음먹은대로 쥐락펴락하시는 하늘나라의 으뜸가는 상제이시온데 저의 그 작은 소원도 풀어주지 못하신단 말이오이까.

모든 신선들이 다 내려가 즐기는 곳에 어찌하여 유독 옥황상제의 공주만 가보지 못한단 말이오이까. 류두날 그 물을 한번만 떠마시고 머리를 감아도 늙지 않고 윤기흐르는 검은 머리칼을 영원히 간직할수 있다 하온데 부왕마마는 이 딸이 젊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소이까.》

옥황상제는 묵묵히 듣기만 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누리에 내려보냈던 신하들한테서 칠보산은 경치만 아름다운것이 아니라 그 맑고 시원한 수정샘물이 백년묵은 산삼과 록용을 씻으며 흘러내린 천하에서 제일가는 약수라는 말을 듣고 한번 가봐

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더듬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류두날은 하늘나라에서도 선녀들이 모두 떨쳐나 동쪽으로 흐르는 은하수 맑은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라 이날 칠보산으로 훨훨 날아내려가서 동쪽으로 넘쳐흘러나오는 담소의 그 좋은 약수로 머리를 감고싶은 생각이 한창 피여나는 이팔청춘꽃나이의 옥지공주에겐들 왜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벌을 받은 견우와 직녀까지 몰래 날아가서 즐겼다는 그곳에 옥지공주만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귀여운 딸애를 무턱대고 꾸짖은것이 후회되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애 말대로 천상천하를 한손에 거머쥐고 호령하는 이 옥황상제가 제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딸자식의 소원도 풀어주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 음,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것도 없지.)

이렇게 고쳐 생각한 옥황상제는 그 즉시 문무백관을 수정궁에 모여놓고 령을 내렸습니다.

《짐은 오는 류두날 옥지공주를 맑은 아침의 나라 칠보산에 내려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런즉 경들은 그리 알고 옥지공주의 시중을 들 몸종선녀 일곱명을 엄선하여 그를 잘 모실수 있게 빈틈없이 차비를 갖추도록 할지어다.》

그러면서 일곱선녀들속에 마음씨 착하고 례절바른 몸종인 달미를 꼭 끼워넣어서 옥지공주를 잘 돌보도록 하라고 다시 분부했습니다.

방금전까지 칠보산소리만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무엄한짓이라고 펄펄 뛰던 옥황상제가 갑자기 돌변하여 사랑하는 공주까지 그곳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옥황님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옥황상제는 그것이 괘씸하고 못마땅하여 눈알을 부라리고 미간을 찌프리면서 다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고! 경들은 그래 짐의 한마디 말이 곧 하늘나라의 법도로 된다는걸 모른단 말인고!》

그 소리에 와뜰 놀란 문무백관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깊숙이 조아리면서 한목소리로 아뢰였습니다.

《지극히 현명한 분부라 생각하옵니다. 몸과 마음 다 바쳐 상감마마의 뜻을 받들겠소이다.》

그리하여 수정궁은 갑자기 옥지공주의 칠보산유람차비로 들썩 끓게 되였으며 옥지공주의 간절한 소원도 풀리게 되였습니다.

달미선녀도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해 류두날은 마침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옥피리소리가 은은하게 울려내려왔습니다. 령롱한 일곱색무지개가 무한대한 공간을 지나 칠보산기슭으로 비껴내려왔습니다.

분홍색 하늘나라 비단천으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비취색 물병을 하나씩 품에 안은 옥지공주네 여덟선녀는 향기로운 바람결에 너울너울 춤을 추듯 날개옷자락을 날리며 무지개를 타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안개바다속에서 머리를 쳐든 칠보산의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은 정말 일곱가지 보석을 비다듬어 세워놓은듯 눈부시게 황홀했습니다.

여덟선녀는 로적봉을 날아돌아 어느 한 담소의 너럭바위우에 사뿐사뿐 내려섰습니다.

머리우에서는 밝은 해님이 따사로운 해별을 함뿍 뿌려주었습니다. 담소의 맑고 정가로운 물은 눈부신 해빛을 받아 은구슬, 금구슬을 뿌려놓은듯 아롱아롱 현란하게 반짝이였습니다.

여덟선녀는 얼른 날개옷을 벗어서 못가의 매지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담수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밝은 미소가 함뿍 어린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들이며 희고 부드러운 동실한 어깨와 볼록한 젖가슴, 잘룩한 허리와 매칠하고 고운 팔다리… 어느 하나 흠잡을데 없는 선녀들의 아릿다운 모습에 반한듯 지나가던 사슴과 토끼들이 걸음을 멈추고 홀린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선녀들중에서 먼저 달미가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물목에 멈춰

셨습니다.

선녀들이 맑은 물속에 손을 잠그니 어른어른 파문을 일으키면서 물결도 그 고운 자태를 비껴담은듯이 기쁜듯 조잘조잘 노래하며 즐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유, 시원해라.》

선녀들은 너무도 기뻐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를 터치며 그 시원한 물을 한모금씩 떠마시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감미로운 물이 조화라도 부리는지 백옥같이 흰 고운 얼굴에 분홍빛 홍조가 피여나고 동백기름을 바른듯 머리칼에서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면서 그윽한 향기가 풍겨올랐습니다. 선녀들은 몰라보게 더 아름다와진 모습을 서로서로 쳐다보며 너무도 놀라와 《야!》하고 기쁨의 탄성을 터쳤습니다.

《야, 얼마나 어여뻐졌는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정말 그래, 류두날의 담소물은 참말 하늘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명약이 틀림없어.》

선녀들은 오구작작 떠들며 폭포수밑에 들어서서 덕수도 맞고 미역도 감고 물장구도 치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그들은 맑은 물속에서 자유로이 꼬리치며 노니는 물고기들을 홀린듯이 바라보면서 싱싱하게 자란 산나물을 캐서 향기로운 채도 무쳐먹고 너울너울 흥겨운 춤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새 해가 기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즐겁고 유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서쪽하늘에 아름다운 감색노을이 비끼고 아득히 먼 하늘나라 수정궁에서 땡땡 어서 돌아오라 그들을 부르는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왔습니다.

《아이, 벌써 돌아갈 시간이 되였나?》

옥지공주가 먼저 물녘에서 물러서며 아쉬운듯 한숨을 호— 내쉬였습니다. 그러자 달미선녀가 날개옷을 가져다주려고 매지나무가 서있는 둔덕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는 매지나무앞에 오뚝 서서 쇠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날개옷이 없어졌사와요.》

선녀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아우성을 치며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가지에 주런이 걸어놓았던 날개옷들은 간 곳이 없고 나무그늘밑에는 난데없는 독사 한마리가 징그러운 몸뚱이를 도사리고 누워있었습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선녀들은 팔담에서의 류두놀이에 온 정신이 팔려 누가 자기들의 날개옷을 훔쳐가는지도 몰랐던것입니다.

선녀들은 흠칫 놀라 뒤걸음질을 치면서 겁에 질린 눈길로 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차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독사가 검푸른 비늘이 번뜩이는 몸뚱이에 날개옷들을 둘둘 휘감고 혀를 날름거리며 쳐다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아이, 이를 어쩌면 좋담.》

《날개옷을 빼앗겼으니 하늘나라로 어떻게 돌아가나.》

몸종선녀들은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눈길로 옥지공주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옥지공주는 제일 믿고 사랑하는 몸종인 달미선녀의 손을 잡아흔들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자 달미선녀가 입술을 옥물고 독사를 향해 한발자국 나서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아, 우린 갈 길이 바쁜 하늘나라 선녀들이야. 너도 저 종소리가 들리겠지. 쓸데없는 우둔한 장난질로 우리 걸음을 지체시켜서야 되겠니. 어서 날개옷을 이리 다오.》

독사는 두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뇌까렸습니다.

《흥, 내가 장난질을 한다고? 아니야, 나도 날개옷 입고 훨훨 하늘을 날아보자는거야.》

달미선녀는 이 땅에 내려왔다가 이런 흉물스러운 짐승한테서 롱락당하는것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분을 삭이고 독사를 달래였습니다.

《독사야, 너도 이 땅에 사는 짐승이니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비쳐주는 해빛신세를 지고 살테지. 그러니 옷을 내주는게 좋아.》

독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옥황상제! 나는 해빛신세를 지지 않아도 돼. 지금은 캄캄하고 깊은 땅굴속에서 사니까.》

옥지공주는 손을 홰홰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해빛이 없이는 못살아. 캄캄하면 앞을 보지 못하고 먹이도 찾지 못해. 그리구 날개옷이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해. 그러니 어서 옷을 내놓아.》

《옥황상제가 여기로 내려와서 내가 겨울동안 땅굴속에서 답답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너희들의 날개옷을 못내놓겠다! 그래 어쩔테냐!》

독사는 당장 날개옷을 찢어버릴듯 사나운 이발로 옷을 물어뜯으면서 독을 썼습니다.

《아, 이런 생억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린 어쩌면 좋담.》

선녀들은 너무도 겁이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달미선녀는 옥황상제가 급할 때 쓰라고 보신용으로 준 비녀를 머리에서 쏙 뽑아 독사한테 홱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꽝 꽈르릉—요란한 우뢰소리가 터지면서 시퍼런 번개불이 번쩍 하고 독사의 머리우로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두터운 비늘로 갑옷처럼 몸뚱이를 감싼 독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사렸던 몸뚱이를 스르르 풀면서 뇌까렸습니다.

《흥,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줄 알아. 안돼! 절대로 안돼! 나는 졸려서 굴에 들어가 한잠 자야겠어.》

독사는 말을 마치자 날개옷을 한데 뭉그려 등에 지고 옆에 있는 바위구멍을 향해 스르르 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몸이라 어쩌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수정궁에서는 어서 돌아오라고 연방 종을 치면서 독촉하는데 독사는 날개옷을 등에 지고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를 어쨌으면 좋단 말입니까.

달미선녀는 종주먹을 부르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옷을 내놓으라

고 소리쳤지만 독사는 들은체도 하지 않고 계속 굴을 향해 기여갔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풀피리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달미선녀가 눈물을 훔치고 뒤를 돌아보니 멀지 않은 다래덩굴밑에 웬 떠꺼머리총각이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풀피리를 불고있었습니다.

달미는 얼른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도 급한 나머지 부끄러움도 수집음도 다 잊고 안타까운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발 우리들을 구원해주시오이다.》

그 총각은 풀피리를 훌 집어던지더니 옆에 놓인 망치를 손에 집어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러운 놈! 뭇짐승들을 못살게 굴더니 오늘은 또 하늘나라 선녀들한테 성화를 대는구나!》

비록 몸에는 허름한 베옷을 걸치고있었으나 어글어글한 두눈이 별처럼 빛나고 이마가 번듯한 구척장사의 름름한 총각이였습니다.

그 총각은 급히 내달려 독사의 앞을 막아서더니 망치를 번쩍 머리우로 추켜들었습니다.

《이놈! 선녀들의 날개옷을 당장 돌려줘라!》

《흥, 안돼! 못돌려주겠다!》

독사도 세가닥 혀를 날름거리며 마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휙 하고 세차게 내려치는 망치에 대갈통을 얻어맞고 몸뚱이를 꼬며 그자리에 나딩굴었습니다.

총각은 얼른 독사의 등에 휘감긴 날개옷을 벗겨서 달미선녀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죽어너부러진줄만 알았던 독사가 꿈틀꿈틀 용을 쓰더니 날카로운 독이발로 총각의 발등을 꽉 물어뜯었습니다.

총각이 앗— 하고 비명을 지르며 홱 돌아서더니 다시 망치를 들어 독사의 대가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독사는 몸뚱이를 꼬며 꿈틀거리더니 꼬리를 척 늘어뜨리고 뻐드러졌습니다.

총각도 비칠비칠 하더니 망치를 손에서 뚤렁 떨구며 그자리에 어푸러졌습니다.

선녀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총각앞에 서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달미선녀가 얼른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내여 총각의 발목을 조여매고 발등을 꼭꼭 눌러 독을 빼주었습니다.

옥지공주는 샘물에 꽃수건을 적셔다가 독이 오른 시뻘건 발등에 찬물찜질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선녀들도 모두 달라붙어 총각의 다리를 주물러주었습니다.

이윽하여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앉았습니다.

달미가 얼굴을 붉히면서 걱정스러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소이다. 그런데 발을 상해서 어찌하오리까.》

총각은 너그럽게 웃어넘기면서 례사롭게 말했습니다.

《이까짓 상처가 이 석공을 어쩌지 못할테니 걱정마시우. 이 독사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놈이였소이다. 그러나 이제는 끝장이 났으니 아무 걱정 마시구 어서들 떠나시우다.》

선녀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나서 날개옷을 몸에 걸치며 하늘나라로 날아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미선녀만은 총각의 곁에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독이 올라 퉁퉁 부어오른 발등을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수집은듯 간신히 뇌이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소녀 은인의 이름도 모르고 어찌 떠날수 있겠소이까.》

그러자 총각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보잘것 없는 칠보산의 석공 쇠메이옵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구 어서 떠나시우.》

달미선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올리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쇠메님, 안녕히 계시오이다. 하늘나라 선녀 달미의 간절한 부

탁이오니 부디 몸조리를 잘하시기만 바라나이다.》

달미선녀는 인사를 마치고도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겠는지 머뭇거리다가 옥지공주의 독촉을 받고서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날개옷을 너울너울 휘저어 하늘길로 날아오르면서도 줄곧 손저어 바래주는 마음씨 무던하고 대바른 총각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쇠메는 선녀들이 하늘가 멀리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다가 날이 저문 다음에야 쩔뚝쩔뚝 범바위밑에 있는 작은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발등이 시퍼렇게 독을 쓰면서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에 열이 나서 다시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돌봐줄이 없는 깊은 산속의 외진 초막에 홀로 쓰러져 앓고있는 쇠메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간 옥지공주는 아무 근심걱정없이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미선녀는 옥지공주의 곁에서 그의 몸치장이며 하루 세끼 밥상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펴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잔시중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쇠메의 병세가 걱정되여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달미는 옥지공주와 함께 정원길을 거닐며 칠보산담소에 내려가서 물장구를 치며 즐기던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그 고마운 석공총각의 발이 다 나았을가요?》

그제야 자기네들을 위해 독사와 싸우다가 발을 상한 은인을 까맣게 잊고 지낸것이 량심에 가책되는지 옥지공주가 달미한테 간절히 타일렀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네가 래일 칠보산에 내려가서 쇠메의 병세가 어떤지 알아봐야 하겠다. 상처가 심하면 네가 담소의 맑고 정갈한 물을 길어다가 발도 씻어주고 먹이기도 해야 할것 같다.》

《담소의 맑은 샘물이 약이오이까?》

달미가 두눈을 반짝이며 옥지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 물은 신비한 명약이라더라. 그 물을 쓰면 종처도 깨끗이 아물고 몸도 추세울수 있다더라. 이건 내가 지난해 여름 소백산에 내려갔다가 그곳을 지키는 지신한테서 들은 명처방이란다. 그 지신은 원래 은하수감옥의 옥리로 있던 내가 잘 아는 마음어진분이니 믿을수 있단다. 꼭 그렇게 해다오.》

옥지공주는 거듭거듭 당부했습니다.

옥지공주는 래일아침 일찍 떠나라고 했지만 달미는 쇠메의 병세가 마음에 걸려 자리에 누웠으나 좀체로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상처가 도진것만 같아서 불안해지는 마음을 걷잡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미선녀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로 날개옷자락을 너울너울 휘저으며 날아내려갔습니다.

칠보산의 로적봉에 사뿐 내렸으나 한치앞도 분간할수 없는 캄캄한 한밤중이여서 어디가 어디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애어린 선녀의 몸으로 어디서 무슨 사나운 짐승이 노리고있는지 알수 없는 어둡고 험한 숲속을 홀로 헤쳐나가자니 머리칼이 쭈볏이 일어서고 작은 가슴이 호독호독 뛰였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겨우 낯익은 담소까지 찾아갔으나 쇠메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다가 한밤중이여서 누구한테도 물어볼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쇠메가 어떻게 되였는지 걱정되여 날이 밝기를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었습니다.

달미는 험한 숲속으로 이리저리 헤매며 찾고찾다가 다래덩굴에 발이 걸려 어푸러졌습니다.

그 순간 풀덤불속에서 콜콜 단잠을 자고있던 재빛토끼를 다쳐놓게 되였습니다. 달미가 조심스럽게 손을 뒤로 움츠렸지만 재빛토끼는 깜짝 놀라서 후닥닥 뛰여 달아났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해치려는줄 알았던것입니다.

《귀여운 토끼야, 놀라지 말아. 나는 저 하늘의 선녀란다.》

달미가 재빛토끼를 따라가며 조용조용 말했습니다. 달미의 부드

럽고 고운 목소리를 듣고서야 재빛토끼도 마음이 놓이는지 그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선녀야, 무슨 일로 한밤중에 잠을 깨우니?》

달미는 단잠을 깨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쇠메를 찾아오게 된 사연을 죄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빛토끼가 펄쩍 뛰며 놀라와했습니다.

《아니, 그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석공총각이 그 흉악한 독사놈한테 물렸단 말야! 원 이런 변이 있나! 어서 가자구, 어서!》

재빛토끼는 달미선녀를 이끌고 급히 범바위밑에 있는 초막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긴긴 밤이 지새고 먼동이 틀무렵에야 범바위밑에 있는 작은 초막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맘때면 의례히 굴뚝에서 밥짓는 연기가 몰몰 피여올라야 하겠는데 초막에서는 아무런 인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미는 초막으로 다가가면서 주인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빛토끼가 깡충깡충 달려가서 초막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달미가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방안을 들여다보니 쇠메가 풀검불을 깐 방구석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었습니다. 독이 발목을 지나 허벅다리에까지 퍼져서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달미가 쇠메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갈듯 가는 숨결이 겨우 느껴질뿐이였습니다.

재빛토끼는 야단났다고 하면서 약을 구해오겠다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미는 하늘나라에서 품에 넣고온 천도(하늘나라 복숭아)를 꺼내여 조심스럽게 숟갈로 긁아서 떠넣어주었습니다.

얼마 안있어 쇠메의 몸에서 열이 내리고 한결 숨결이 고르로와졌습니다.

숲속의 착한 짐승들인 사슴, 노루, 너구리들과 함께 산삼과 산꿀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재빛토끼도 이젠 됐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달미는 부엌에서 동이를 이고 나오면서 착한 짐승들한테 부탁했

습니다.

《내가 담소에 가서 약수를 길어올테니 그동안 쇠메님을 잘 보살펴주렴.》

《우린 다 쇠메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착한 짐승들이니 걱정말고 어서 떠나.》

착한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준 쇠메를 저마다 간호하겠다고 말아나섰습니다.

달미는 그럴수록 쇠메에 대한 믿음이 커갔고 그를 어서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세여졌습니다.

그래서 달미는 동이를 이고 담소에 훨훨 날아가서 물을 길어다가 쇠메를 치료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흘동안 담소의 맑은 물을 길어다 먹이고 상처를 씻어주었더니 마침내 쇠메가 한잠 자고난 사람처럼 부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산삼과 록용을 씻어내린 물이라더니 정말 담소의 맑은 물은 세상에 드문 명약이였습니다.

달미는 너무 기뻐서 쇠메의 손을 꼭 잡고 목메여 속삭였습니다.

《쇠메님, 이젠 살았나이다. 살았사와요.》

쇠메도 달미선녀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와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달미선녀가 아니오이까? 그런데 어떻게 되여 여기에 다시 내려왔수?》

《쇠메님 병세가 걱정돼서…》

달미는 수집음을 타서 그 희고 어여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그런데 선녀가 여기 내려와있어도 일없겠소이까?》

쇠메는 달미가 너무 고마와 두손을 꼭 잡아흔들면서도 뒤일이 걱정되였던것입니다.

《옥지공주님께서 내려보내주셨사오니 걱정마시오이다.》

달미는 옥지공주한테서 들은 소백산지신이야기며 담소의 물을 길어다 치료를 하게 된 사연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 이런 천한 석공이 뭐라고 하늘나라 선녀들이 그토록 정성

을 기울이신단 말이우. 》

쇠메는 너무도 감동되여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보산의 착한 짐승들도 쇠메가 살아난것이 너무 기쁘고 달미선녀가 고마와 그들 두사람을 빙 둘러싸고 껑충껑충 춤을 추었습니다.

달미선녀는 쇠메의 상처가 깨끗이 아물지 못했기때문에 그후에도 얼마동안 더 초막에 머물러있으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동이를 품에 안고 담소에 날아가서 물을 길어왔으며 밤에는 머리맡에 지켜앉아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물로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권했습니다.

쇠메의 상처는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

시퍼렇게 부어올랐던 발등의 상처도 깨끗이 아물고 얼굴에는 홍조가 피여났습니다. 얼마후에는 팔다리에 기운이 뻗쳐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하게 되였습니다.

달미는 그것이 기뻐서 더 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쇠메의 입맛을 돋구어주려고 시내물을 따라 오르내리며 민물고기도 잡아다 지져주고 산나물도 캐다 맛있게 무쳐주었습니다.

쇠메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초막안팎도 정갈하게 거두고 토방밑에 꽃밭도 아담하게 꾸려놓았습니다.

칠보산의 착한 짐승들이 매일 떼지어 찾아와서 그의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쇠메는 어느날 산에서 땔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온 달미의 손을 꼭 잡고 진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때문에 그 곱던 손이 몹시 험해졌수.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수다. 이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으니 제발 좀 쉬여주시우. 》

달미는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면서도 자기를 아껴주는 그 마음이 고마와서 이렇게 속삭이였습니다.

《우리 선녀들을 위해주다 그렇게 되셨는데 뭘 그러시나이까. 아무 걱정 마시고 몸이나 어서 추세우세요. 》

《아, 내 몸이 어떻다고 그러시우. 요즘은 기운이 부쩍부쩍 솟구치는게 알리는데… 자, 내가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한번 보

시우.》
쇠메는 이러면서 초막옆에 놓인 집채같은 바위돌을 두손으로 끙하고 떠밀어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육중한 바위돌이 기우뚱기우뚱하다가 언덕밑으로 디굴디굴 굴러내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쇠메는 자기 힘이 이렇게까지 세여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바위돌을 들어보니 그것도 작은 조약돌처럼 가볍게 힝 들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서있던 달미는 너무 놀라와서 입을 딱 벌리였습니다.
《봤지요. 이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으니 칠보산의 아름다운 산천이나 구경하면서 푹 쉬시우.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쁠게 아니우.》
쇠메가 다시 달미의 험하게 터갈린 손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달미는 그 말에 가슴이 짜릿해지면서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우?!》
달미의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쇠메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쇠메님이 건강을 회복하신게 너무 기뻐서…》
달미는 방긋 웃어보이면서도 목이 메여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안그러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몸종선녀들이 다 그러하듯 달미도 열여덟꽃나이가 되도록 남의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마음고생만 했지 이런 사랑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던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떠꺼머리 석공총각을 간호해주는 나날에 처음으로 그토록 살뜰한 애정을 받고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 달미선녀였습니다. 그러고보니 자기자신도 그런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쇠메한테 한껏 쏟아부어주고만싶어

졌습니다.

달미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을 자기도모르게 하루하루 미루면서 이루 헤아릴수없이 달콤한 애정을 쇠메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달미는 칠보산에서 100여일이라는 긴 나날을 지체하게 되였습니다.

하루 있으면 하루만 더 있고싶어지니 참으로 인정에 끌리는 마음은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엄혹한 법도를 잘 아는 달미선녀는 시름겨운 얼굴로 돌아갈 차비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쇠메가 달미의 손을 꼭 잡고 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가면 언제 또 만날수 있겠수? 아, 정이 깊어지기 전에 떠났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으련만…》

말을 마친 쇠메의 눈에도, 대답을 못하고 서있는 달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올랐습니다.

달미는 이러한 쇠메를 외진 산중초막에 혼자 남겨두고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메님, 저한테는 우리들간에 맺어진 깊은 정을 끊을 힘이 없소이다. 하늘나라의 무서운 벌을 받아 이 몸이 산산쪼각이 난다 해도 쇠메님을 홀로 남겨두고는 절대로 떠날수 없소이다.》

그러면서 쇠메의 정다운 품에 와락 안기였습니다.

그동안 하늘나라의 옥지공주는 부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쇠메한테 떠나보낸 달미선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몹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오늘은 돌아올가 래일은 돌아올가 하고 마음조이며 애타게 하루하루 기다린 달미선녀가 10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옥지공주가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게 틀림없었습니다.

옥지공주는 할수없이 어느날 비왕을 불러앉히고 이 일을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주의 부탁을 받은 비왕은 제일 날래고 령리한 룡마를 칠보산에 내려보내여 달미선녀의 행처를 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칠보산의 담소근처에 날아내려간 룡마는 그리 어렵지 않게 어느한 초막에서 달미선녀를 찾아냈습니다.
룡마는 하루동안 숲속에 숨어서 살핀 다음 그가 석공총각과 정분이 나서 깨가 쏟아지도록 재미나게 살고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비왕은 이 소식을 옥지공주한테만 알려준것이 아니라 옥황상제한테도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주먹으로 룡상 팔걸이를 내리치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늘나라 선녀가 인간세상의 한갖 천한 석공과 짝을 무었다니 이건 고금동서에 없는 해괴망측한 추태로다. 당장 그년을 잡아 올려다 저 은하수감방의 제일 깊고 외진 옥속에 처넣어 한뉘 해빛을 보지 못하게 할지어다.》
옥황상제의 엄명이라 비왕은 그 즉시로 룡마를 잡아타고 칠보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비왕이 범바위밑에 있는 작은 초막앞에 이른것은 나무잎에 맺힌 새벽이슬이 해빛에 반짝이는 이른아침이였습니다.
초막 굴뚝에서는 밥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르고 부엌에서는 칼도마소리가 쏙독쏙독 가락맞게 울려나왔습니다.
《여봐라, 안에 누가 없느뇨?》
비왕이 말우에 앉아 호통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엌문이 열리면서 싱그러운 산나물김치와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함께 풍겨나왔습니다.
뒤이어 물묻은 손을 행주치마자락에 닦으면서 달미선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사냥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아침밥을 짓고있던 달미는 산

촌의 아낙네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소박하고도 알뜰한 모습이였습니다.
《흥, 하늘나라 선녀라는게 이게 무슨 꼴인고! 너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는고?!》
비왕이 초막앞으로 다가서며 질책했습니다.
달미는 토방밑에 꿇어엎드리며 간절히 아뢰였습니다.
《소녀 옥지공주의 령을 받들어 석공총각의 병을 구완하는 나날에 그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였소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아름답고 숭고한 인정세계에 몸도 마음도 다 끌려들어 하늘나라 법도에 어긋나는줄 알면서도 발길을 뗄수 없었소이다.
비왕께서 옥황상제께 이 비천한 소녀의 심정을 잘 말씀드려주시오이다. 널리 헤아리시고 부디 용서하도록 해주시기만 바랄뿐이오이다.》
무지막지한 비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뇌까렸습니다.
《흥, 용서해달라구? 안돼! 옥황상제께선 네년을 잡아다 은하수의 외진 섬에 있는 옥에 처넣으라는 엄령을 내리셨도다. 어서 가자!》
그러더니 사정없이 번개채찍을 휘둘러 달미를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룡마잔등에 처싣고 하늘나라로 날아올라가버렸습니다.
쇠메가 노루를 한마리 잡아가지고 초막에 돌아와보니 달미선녀가 없었습니다.
방금 물이라도 길러 나갔는지 부엌에서는 토장국이 부글부글 끓고있었습니다.
쇠메가 샘물터로 나가보았지만 달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안팎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달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까치가 까만 꼬리를 달싹거리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쇠메야. 야단났다. 하늘나라 비왕이 내려와서 달

미아씨를 잡아갔단다. 옥황상제의 엄명으로 은하수의 옥에 처넣는다고 하더라. 깍깍.》

쇠메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달미가 없으니 단 하루도 살아나갈수 없을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옥에 갇혀있는 달미를 구원할수 있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였습니다.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달미를 구원하자면 은하수의 외진 섬으로 가야 하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갈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쇠메는 달미가 남겨놓고간 날개옷을 그러쥐고 안타깝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쇠메의 머리속에 문득 달미선녀가 들려주던 소백산지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달미는 담소의 물을 길어다 치료하게 된 사연을 말하면서 그 비방을 옥지공주한테 일러준 소백산의 지신은 원래 하늘나라 은하수감옥의 옥리로 있다가 이 땅에 쫓겨온 착한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 그 지신을 찾아가면 은하수감옥으로 가는 길을 알수 있겠구나! 됐다, 됐어!》

쇠메는 저혼자 중얼거리면서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길로 소백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쇠메가 끝없는 밀림의 바다를 헤치고 소백산에 오르니 광풍이 휘몰아쳐 흩날리는 뽀얀 눈가루때문에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었습니다.

쇠메는 두눈을 부릅뜨고 눈보라를 헤쳐나가다가 천길벼랑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쇠메가 몸에 뒤덮인 눈무지를 헤치고 기여나오는데 문득 머리우에서 벼랑턱을 쩡쩡 울리며 무서운 불호령소리가 터져내려왔습

니다.

《어떤 놈이 무엄하게 이 신성한 땅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고!》

쇠메가 정신을 가다듬고 쳐다보니 어느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눈부신 해빛이 벼랑너머로 비쳐내리고있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여 엉금엉금 벼랑턱으로 기여올라가보니 눈앞에 얼음에 뒤덮인 수정봉이 해빛에 번쩍이며 장엄하게 솟아있었습니다.

(아, 소백산지신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쇠메는 지신의 발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바위우에 꿇어엎드렸습니다.

《존엄높으신 소백산지신님! 칠보산의 석공 쇠메 문안드리나이다. 소인은 지신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을 받고저 렴치불구하고 감히 찾아왔소이다.》

그러자 머리우에서 또다시 그 웅글은 말소리가 우뢰처럼 터져내려왔습니다.

《네놈이 담이 얼마나 크기에 감히 나를 찾아온단 말인고!》

그 말소리와 함께 등뒤의 바위벼랑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습니다.

쇠메가 무너져내리는 큰 바위돌들을 척척 받아서 발밑에 무져놓으니 큰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과시 담이 크도다. 그만하면 나를 만날만도 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걸 어떻게 알았는고!》

쇠메의 눈앞에서 흰 안개가 물씬 풍겨오르더니 그속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기골이 장대한 로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쇠메는 지신에게 달미선녀를 만나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 여기로 찾아오게 된 사정을 자세히 다 아뢰고나서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소인을 가엾게 여기시여 부디 달미를 구원할수 있도록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시오이다.》

소백산지신은 머리를 끄덕이며 잠시 말이 없더니 짐짓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자네의 딱한 사정은 알만 하네. 허나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폭군일세. 제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나를 이리로 쫓아내려보낸것도 바로 그 폭군일세. 자네의 청을 들어줄리 없으니 괜히 화를 입지 말고 달미선녀를 영영 잊어버리는게 좋을듯 하네.》

쇠메는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진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신님, 제 한몸이 위태롭다고 옥에 갇힌 은인을 외면한다면 제가 무슨 사내대장부라 하오리까. 옥황상제가 저의 청을 거절하고 어떤 폭행을 가한다고 해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어이 달미를 구원해내고야말겠소이다. 제가 의리를 지키도록 부디 하늘나라로 인도해주시오이다.》

쇠메의 눈에는 진정이 어린 뜨거운 눈물이 고여 번뜩이였습니다.

그 뜨거운 의리와 드팀없는 강한 의지력에 감동된 지신은 쇠메의 등을 쓸어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그가 할바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쇠메는 지신이 시키는대로 소백산의 맑은 물을 떠마시면서 며칠동안 장수힘을 키운 다음 하직인사를 드리고 칠보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신이 일러준대로 달밝은 대보름날 로적봉밑에 펼쳐진 풀판으로 찾아갔더니 푸릿한 달빛아래 허리가 늘씬한 룡마 한마리가 한가로이 거닐면서 불로초를 뜯어먹고있었습니다.

쇠메는 룡마가 놀라지 않게 기침을 하면서 천천히 곁으로 다가가서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룡마는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남다른 사랑을 동정하여 고개를 주억거리기도 하고 그들을 갈라놓고 달미선녀를 잡아다 옥에 가둔 옥황상제의 처사에 분개하여 앞발로 땅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지금 나이가 많고 쇠약하여 이고장에 내려와 한

가로이 불로초를 뜯고있지만 젊어서는 옥황상제가 타고다니던 그 유명한 오룡차를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던 선마라고 부르는 으뜸가는 천리준마였습니다.

드디여 룡마는 달미선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옥황상제한테 청원하러 가겠다는 쇠메를 도와주겠다고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룡마는 쇠메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주겠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래일아침에 다시 여기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쇠메는 그 이튿날 아침 룡마의 등에 올라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게 되였습니다.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흐르는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진 하늘길은 처음에 쇠메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날고날아도 끝이 안보이는 무한대한 공간이여서 인차 조급성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람과 떠도는 구름밖에 없는 단조로운 길이여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수 없었고 얼마만큼 갔는지도 도무지 가늠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야 하늘나라가 보이우?》

쇠메가 참다 못해 룡마의 귀에 입을 대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너무 조급해 말게. 아직 절반도 못왔으니 마음을 푹 놓고 내 등에서 한잠 자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닿게 될거네.》

룡마가 날개를 퍼덕이며 타일렀습니다.

쇠메는 룡마의 잔등우에 앉아 하늘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자기도모르게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룡마가 몸을 흔드는 바람에 번쩍 정신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이젠 다 왔네. 저 멀리 구름너머로 바라보이는게 하늘나라 수정궁이라네.》

룡마가 쇠메에게 귀띔해주었습니다.

《야―》

쇠메는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룡마의 등에서 몸을 솟구며 정신없

이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가에 해빛에 번쩍이는 수정산의 봉우리들이 허리에 흰 구름을 휘감고 아아히 솟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슭에 호화찬란한 옥황상제의 수정궁전이 펼쳐져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날았는지 룡마가 어느 복숭아동산에 날아내렸습니다. 먹음직한 복숭아들이 울긋불긋 무르익어 진한 향기를 풍겨주었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의 무릉도원이라네.》
룡마가 말해주었습니다.
쇠메는 물씬물씬 풍겨오는 복숭아향기를 가슴가득 들이키며 룡마의 등에서 뛰여내렸습니다.
《저리로 가면 수정궁의 대문이 있네.》
룡마가 복숭아동산의 한 기슭으로 우불구불 뻗어나간 길로 쇠메를 친절하게 안내해주었습니다.
쇠메가 으리으리한 수정대문앞에 이르니 삐죽한 외뿔투구를 쓰고 무쇠갑옷을 걸친 거쿨진 장수 셋이 긴 창으로 쇠메의 앞을 막으며 건방지게 호통치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쇠메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나서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인간세상의 칠보산에 사는 석공 쇠메가 옥황상제께 청원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소이다.》
그러자 한 장수가 앞에 나서서 쇠메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호령했습니다.
《이 얼뜨기야, 여기가 어딘줄 알고 함부로 기여들어!》
쇠메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청원하러 왔다지 않수. 옥황상제한테 알리지 않구 왜 호령질이우!》
그러자 다른 장수가 창끝을 쇠메의 앞가슴에 들이대며 잔말 말고 썩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쇠메는 성이 나서 한손으로 창끝을 잡아서 콱 낚아챘습니다.

그 장수는 엄청난 힘에 이끌려 코밀이를 하며 땅바닥에 어푸러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장수가 창대를 꼬나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쇠메는 낚아채서 빼앗은 창대를 휘두르며 맞받아나갔습니다. 어찌나 세차게 창대를 휘둘러댔는지 두 장수는 창대에 얻어맞고 멀리 나가떨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쇠메는 창대를 집어던지고 굳게 닫겨있는 수정대문을 어깨로 힘껏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대문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렸습니다.
쇠메는 그곳을 지나 수정궁전의 뜨락에 들어섰습니다.
수정대문이 무너지는것을 본 숱한 장수들이 룡마를 타고 창검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게 섰거라!》
당장 짓뭉갤듯이 구름을 뽀얗게 말아올리며 달려드는 그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쇠메는 얼른 수정산기슭으로 물러서서 두손으로 길가의 벼랑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수정산벼랑이 와르르 쾅 무너져내리며 앞장서 달려오던 룡마탄 장수들을 깔아뭉개놓았습니다. 뒤따르던 장수들은 기겁을 해서 저마다 말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쇠메는 호화찬란한 수정궁앞으로 의젓이 걸어들어갔습니다. 쇠메는 문앞에 꿇어앉아 큰소리로 아뢰였습니다.
《칠보산의 석공 쇠메 옥황상제께 삼가 아뢰옵니다.
소인은 옥지공주가 보내준 몸종 달미선녀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을 털고 일어난 몸이옵니다. 이에 대하여 옥황상제께와 옥지공주께 허리굽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아울러 한가지 청원의 말씀 올리나이다.
달미선녀의 간호를 받는 과정에 서로 정이 통하여 둘이 한가정을 이루고 의좋게 살았사온데 갑자기 비왕이 달려들어 달미선녀를 잡아갔소이다. 이런 포악무도한 행위를 어찌 용납하오리까. 옥

황님께서 부디 선의를 베푸시여 비왕을 파직시키고 달미선녀를 되돌려주시기만 바라옵니다.》

그러자 궁전안에서 이런 호통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나왔습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법도에 심히 어긋나는 큰 죄를 지었은즉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이 신성한 곳에 들어와서까지 소란을 피우고 망동을 부리니 어찌 용서를 바랄소냐!

비왕! 번개채찍을 휘둘러 당장 저놈을 잡아 옥에 처넣도록 하라!》

령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릉 쿵 하늘땅이 무너지는듯한 요란한 굉음이 터지면서 세마리의 룡마가 끄는 3룡차가 쇠메앞으로 질풍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우에 떡 뻗치고선 비왕이 번개채찍을 들어 휙— 내리긋자 시뻘건 불줄기가 번쩍 일며 쇠메의 온몸을 칭칭 휘감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쇠메가 으윽— 하고 용을 쓰며 두팔을 뻗쳐 온몸을 휘감은 불줄기를 툭툭 끊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라리며 울분을 터쳤습니다.

《하늘나라는 신선이 사는 신성한 고장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사랑과 믿음의 륜리와 량심이 통하지 않는구나! 권력을 잡은 무지막지한자들이 마구 폭력을 휘둘러 착하고 어진분들을 못살게 구는 이상 나도 이제는 힘을 쓸수밖에 없다. 어디 한번 맞서보자! 내 비록 여기서 죽어 재가루가 된다 해도 기어이 이 무법천국을 무너뜨리고 의로운분들을 구원하리라!》

쇠메는 한발 뒤로 물러서며 아까 무너뜨린 수정산의 벼랑바위를 통채로 번쩍 들어 수정궁의 문앞으로 홱 집어던졌습니다.

쾅 와지끈! 웅장화려한 수정궁의 앞채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그 서슬에 온 수정궁이 드르릉 흔들리면서 눈부신 보석투성이의 옥좌가 나딩굴고 그우에 앉아 호통을 치던 옥황상제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습니다. 온 궁전이 비명소리, 아우성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존엄을 뽐내던 하늘나라가 한순간에 거덜이 날 판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버선발로 벌벌 기여나와서 쇠메한테 빌붙었습니다.

《이보게 석공장수, 제발 부탁이니 노여움을 풀고 용서하게나. 소원을 다 풀어줄테니 이젠 그만하구 서로 좋게 지내자구.》

그러나 쇠메는 격분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쇠메는 발을 탕탕 구르며 옥황상제를 꾸짖었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린다는 옥황상제가 사랑과 믿음의 은혜로운 정사를 펼 대신 이렇듯 포악하게 날뛰니 어질고 착한분들이 어떻게 기를 펴고 살겠는고! 그러고도 옥좌에 앉아있을 체면이 있는고! 내 비록 여기서 싸우다 죽을지언정 이 불공정하고 무도한 하늘세상을 짓부셔버리고말테요!》

쇠메가 다시 무너진 벼랑바위를 들어올려 수정궁을 짓부시려할 때였습니다. 누가 뒤에서 쇠메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쇠메님,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분을 삭이시오이다.》

그 목소리는 무척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귀에 익은 정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쇠메가 뒤를 돌아보니 그리도 애타게 그리던 달미와 옥지공주가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고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서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쇠메의 옷자락을 잡은 그들의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있었습니다.

쇠메가 수정궁에 나타났다는것을 알게 된 옥지공주가 부랴부랴 아버지 옥황상제의 오룡차를 타고 은하수감옥으로 날아가서 달미선녀를 이리로 데려온것이였습니다.

옥황상제도 쇠메앞에 무릎을 꿇고 두손을 비비며 제발제발 빌었습니다.

《짐이 잘못을 꼭 고치고 선정을 베풀겠으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게나.》

쇠메는 쳐들었던 벼랑바위를 그자리에 쾅 집어던지고 두손으로 달미의 연약한 손을 꽉 틀어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수?》

달미는 으흐흑 흐느껴울며 쇠메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겨 목메여 속삭였습니다.

《저는… 저는 쇠메님이 꼭 여기로 찾아오실줄 알고 기다렸소이다. 으흐흑…》

쇠메는 아버지 옥황상제의 무도한 행위때문에 미안해 어쩔줄을 몰라하는 옥지공주한테도 고개를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비왕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쇠메의 발밑에 꿇어엎드리며 사죄했습니다.

《누리의 장수님, 천상천하에 으뜸가는분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군 저를 너그럽게 생각하고 부디 용서해주시오이다.

그리구 우리 하늘나라엔 당신같은 힘장수가 없으니 여기에 남아서 우리 수정궁의 수문장으로 계시는게 어떻겠소이까?》

옆에 서있던 옥황상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게 정말 좋겠네. 내가 무릉도원의 경치 아름다운 기슭에 별궁을 세워주겠으니 우리 달미선녀와 함께 깨가 쏟아지게 살면서 말이네.》

쇠메는 그 소리를 듣고 낯을 찡그렸습니다.

방금전까지도 자기를 깔보고 죽이려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한껏 올려춰주면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꼬이려든다고 생각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던것입니다.

쇠메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꼭 찍어 말했습니다.

《허허, 거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구려. 허지만 우리 인간세상의 백성들은 누구도 하늘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당신들처럼 부귀를 탐내는 속물이 아니우. 긴말 하지 말구 어서 달미와 함께 인간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우. 만일 옥황님께서 그런 선의도

베풀지 못하겠다면 부득불 다시 힘으로…》

겁에 질린 옥황상제는 쇠메가 더 말을 잇지 못하게 두손을 홰홰 내저으며 서둘러 비왕한테 령을 내렸습니다.

《비왕, 어서 나의 오룡차를 내드리고 쇠메님과 달미선녀를 잘 모셔가도록 호위장수들을 붙이라!》

이렇게 되여 쇠메는 사랑하는 달미를 데리고 다섯마리의 날랜 룡마가 끄는 옥황상제의 화려한 황금마차로 하늘길을 훨훨 날아 그리운 칠보산으로 돌아오게 되였습니다.

칠보산으로 돌아온 쇠메와 달미선녀는 범바위밑에 작은 초막대신 아담한 초가집을 세워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쇠메는 그전과 다름없이 자기가 나서자란 정든 땅인 칠보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석공일에서 삶의 보람을 한껏 누렸고 달미는 귀여운 아들딸 셋을 낳아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키우면서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도록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쇠메와 달미는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100살이 넘어서 죽었는데 그 넋이 칠보산을 푸르청청 단장하는 잣나무와 전나무로 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산에서는 잣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전나무가 있고 전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잣나무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잣나무와 전나무를 부부나무라고 하면서 쇠메와 달미선녀이야기를 전설로 전해왔다고 합니다.